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만들기

2013.11

도시와 자연 연구소

제 출 문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추진센터 귀하

이 보고서를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만들기」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도시와 자연 연구소

연구책임자 : 제 종 길 (도시와 자연 연구소)

연구원 : 민 병 미 (단국대학교)
민 병 근 (성균관대학교)
박 숙 현 (시민환경연구소)
박 정 운 (녹색사회연구소)
정 수 정 (한국환경교육연구소)
한 석 (잇네이쳐)

목 차

I. 서론	7
1. 연구 배경과 목적	7
2. 생태관광마을이 갖는 의미	8
II. 대상지 개황과 대상 마을 현황	12
1. 대부도 개황	12
(1) 대상지 개요	12
(2) 대부도 지형	18
2. 사회적 현황	20
(1) 어가와 어가인구	20
(2) 도로 및 교통량 현황	24
3. 대상 마을의 경관과 식생	26
(1) 마을 경관	26
(2) 식물상 및 식생	44
(3) 자연 경관의 가치	56
4. 대상 마을의 주거구조	58
5. 대상 마을의 문화·역사·관광 자원	63
(1) 역사적 자원	63
(2) 문화적 자원	70
(3) 대부도 주요 관광자원	72
(4) 대부도 관광 관련 계획	77
III. 해양생태관광마을 만들기	80
1. 생태관광마을 만들기	80
(1) 생태관광마을의 조성 원칙	80
(2) 대부도 생태관광마을 만들기 과정	80
2. 생태관광마을의 유형	82
3. 대부도 북2리(종현동), 남3리(학난골) 주요 시설 배치	85
(1) 대상 마을 지명 유래 및 생태관광적 의미	85
(2) 북2리(종현동 속말) 마을의 현재 자원 지도화 (Mapping)	88

(3) 남3리(학안골) 마을의 현재 자원 지도화 (Mapping)	95
4. 두 마을의 미래 산업	100
(1) 생태관광마을 사례 검토	100
(2) 북2리(종현동 속말) 생태관광마을 제안	107
(3) 남3리 생태관광마을 제안	119
IV. 결론	123
참고문헌	124
부록 1. 국내 생태마을 만들기 사례	126
부록 2. 성공적인 생태관광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147

표 목차

표 1. 대부동에 속해있는 섬 목록	12
표 2. 대부도의 표고별 면적 분포	19
표 3. 어가와 어가인구 연도별 현황	20
표 4. 대부도 면적	21
표 5. 대부동의 2010년 연령별·성별 인구	21
표 6. 대부도 연도별 인구 현황	22
표 7. 대부도 종현동, 남3리 세대수 및 인구	22
표 8. 종현동 연령별 인구 현황	23
표 9. 남3리 연령별 인구현황	23
표 10. 대부도 주요 종사업	24
표 11. 우리나라 중부지방 해안사면에 흔히 출현하는 목본식물종	45
표 12. 내륙수생식물	48
표 13. 대상 지역 내 염생식물	52
표 14. 대부도 주요 관광지 방문자 현황	75
표 15. 대부도 관광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78
표 16. 국제 생태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생태마을 구분	83
표 17. 생태마을활성화 방안 연구-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129

그림 목차

그림 1.	국제 생태관광협회에서 제시하는 “생태관광”	10
그림 2.	생태관광의 선순환 구조	10
그림 3.	대부도 지역 위성사진	17
그림 4.	대부도 지역 주변 경기만	18
그림 5.	시화교→오이선착장 차선의 일요일 시간대별 평균속도	25
그림 6.	북2리(종현동) 구릉 정상부에서 본 마을 전경 01	27
그림 7.	북2리(종현동) 구릉 정상부에서 본 마을 전경 02	27
그림 8.	북2리(종현동) 구릉 정상부에서 본 마을 전경 03	28
그림 9.	북2리(종현동) 구릉 정상부에서 본 마을길	28
그림 10.	북2리(종현동) “口”자형 마을 가옥 사례 01	29
그림 11.	북2리(종현동) “口”자형 마을 가옥 사례 02	30
그림 12.	북2리(종현동) 마을길 01	30
그림 13.	북2리(종현동) 마을길과 벽화 01	31
그림 14.	북2리(종현동) 마을 벽화 사례 01	32
그림 15.	북2리(종현동) 마을 벽화 사례 02	32
그림 16.	북2리(종현동) 마을 벽화 사례 03	33
그림 17.	북2리(종현동) 마을 벽화 사례 04	33
그림 18.	북2리(종현동) 마을 벽화 사례 05	34
그림 19.	남3리 마을 안쪽 농경지 경관 01	35
그림 20.	남3리 마을 안쪽 농경지 경관 02	36
그림 21.	남3리 마을 안쪽 농경지 경관 03	36
그림 22.	해안가쪽 마을 입구 건물	37
그림 23.	남3리 마을 내 가옥 사례 01	37
그림 24.	남3리 마을 내 가옥 사례 02	38
그림 25.	남3리 마을 내 가옥 사례 03	38
그림 26.	남3리 마을 주민의 일상	39
그림 27.	남3리 내륙 습지	40
그림 28.	남3리 내륙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	40
그림 29.	남3리 지역 해안 염습지 01	42
그림 30.	남3리 지역 해안 염습지 02	42
그림 31.	남3리 지역 염생식물	43
그림 32.	남3리 지역 해안 염습지 03	43
그림 33.	남3리 지역 해안 염습지 04	44
그림 34.	해안 식생대의 식물	47
그림 35.	대상지 내 습지 식물	49
그림 36.	대상지역 해안가 염생식물	53
그림 37.	김두석 가옥 전경 (1)	59
그림 38.	김두석 가옥 전경 (2)	60

그림 39. 김두석 가옥 평면배치도	61
그림 40. 김태덕 가옥 전경	62
그림 41. 김태덕 가옥의 안채와 안마당	62
그림 42.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에서 발굴된 10호 석곽묘	63
그림 43.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 출토 유물	65
그림 44.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	70
그림 45. 수도권 지역별 바지락칼국수의 판매점 수와 비중	71
그림 46. 대부도식 재배방법인 비가림 포도	72
그림 47. 지역주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기본 의식	76
그림 48. 대부도 내 마을 대상지 위치 (북2리: 종현동 속말, 남3리: 학란골)	81
그림 49. 북2리(종현동 마을)	90
그림 50. 북2리(종현동 속말) 생태관광마을 만들기 지역적 범위	93
그림 51. 북2리 생태관광마을 대상지의 지역적 범위와 확장 범위	94
그림 52. 남3리 마을 자원 위치	96
그림 53. 동피랑 마을 안내도	100
그림 54.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동피랑 마을 벽화작업	101
그림 55. 통영국제음악제와 동피랑 마을	101
그림 56. 가덕도 정거마을 전경	103
그림 57. 정거마을쪽 풍광	103
그림 58. 마을 끝집에서 바라본 마을 모습	104
그림 59. 정거마을을 통해 국수봉으로 올라가는 길	104
그림 60.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홈페이지	106
그림 61. 연대도 모습	106
그림 62. 연대도 주민교육 - 부녀회 바리스타 교육	107
그림 63. 걸기여행의 동기와 목적 및 여행 방식의 변화	108
그림 64. 제주 슬로비 식당에서 제공하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110
그림 65. 제주 슬로비 사례 : 애월읍에 자리잡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110
그림 66. 지팡이의자 사례	112
그림 67. 주차장과 휴게소 시설 제안	113
그림 68. 전망대 제안	114
그림 69. 휴게시설 또는 방문객센터에서의 여행정보 제공	115
그림 70. 마을 도로 정비 - 바닥, 스트리트 퍼니처	116
그림 71. 우물가 재정비 - 퓨처 마크	117
그림 72. 마을 담장 정비 - 꽃담, 돌담, 흙담	118
그림 73. 모정 사례	120
그림 74. 그늘막형 야외학습장 사례	120
그림 75. 호주 CERES의 파머스 마켓 판매 농산물	121
그림 76. 호주 CERES에 마을 생산물을 판매하러 나온 주민과 소비자	121
그림 77. 남3리 마을 생태관광을 위한 기본 인프라 제안	122
그림 78. 생태마을의 부문별 구성원칙	128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201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 이상이 되었다¹⁾. 이렇듯 관광이 대세를 이루는 시기이지만 대중관광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중관광은 태생적으로 환경이나 지역의 문화를 훼손하는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으며, 경제성과도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면 부차적인 효과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대중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속가능한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생태관광은 이들 대안 관광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지역 중심 관광이라 할 수 있다.

○ 생태관광은 세계생태관광협회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TIES)에 따르면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자연지역들에서 하는 책임지는 여행 (responsible travel to natural areas that conserves the environment and improves the welfare of local people)”으로 정의되곤 한다. 한 문장의 아주 간략한 정의이지만 생태관광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관광이라는 산업의 일부로서, 자연 보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며,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지역의 자연과 문화 보전, 수익 발생, 그 수익의 지역사회 기여 등 3대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략한 정의도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빈번히 왜곡되거나 잘 못 이해되는 정의이기도 하다(Honey, 2008).

○ 따라서 생태관광은 지역사회의 기초 단위 공동체인 마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 많다. 우리나라에선 의도하였건 아니건 간에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생태관광과 연계되어 활성화되는 사례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역 중심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또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을만들기(부록 1 참조)는 초기에는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마을만들기로 시작되거나, 특별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문화마을이 대세였다. 그 어떤 경우이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하였는데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다른 두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어려웠다.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생태관광이다.

1) 외래관광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5년 이후 1978년에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34년 만에 그 10배에 해당되는 1,0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자료 http://www.mcst.go.kr/web/s_notice/p ress/pressView.jsp?pSeq=12451)

○ 한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관내 마을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의 경관들을 미화하여 국립공원 명품마을이라 이름하고 홍보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였다. 명품마을인 경우 관광객들과 마을 주민들이 동시에 만족해하는 좋은 사례이고, 이 경우도 국립공원 입장에서는 생태관광 마을만들기로 이해하고 있다. 해안지역에서는 두 곳 - 완도군의 관매도와 신안군의 영산도 마을에서 시작되었으나(국립공원 2010, 2012), 아직 완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대부도는 인천 옹진군 소재 섬이었으나 1994년에 시화호 방조제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연육이 되면서 안산시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도서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섬의 서쪽과 남쪽에는 크게 훼손되지 않은 갯벌들과 해안선이 있고, 많은 해안 자연부락들을 가지고 있다. 22개 섬이 연육 후 급격한 변화를 겪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아직 지역의 확고한 발전 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대부도를 대중관광지로 삼으려는 지자체 안산의 계획도 수립 중 있어 향후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어떠한 경우여라도 섬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개발로부터 마을 중심의 생태계와 문화는 보전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는 대안으로 이 ‘해양생태관광마을 만들기’ 연구가 시작되었다.

○ 해양생태관광마을이란 해안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되 생태관광을 발전 동력으로 삼는 마을로 정의한다. 기존의 마을들의 환경과 생활 여건을 생태마을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여 마을의 생활 여건과 경관을 개선하고 생태관광을 통해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해양생태관광마을 만들기” 최종 연구 결과가 아니고 해양생태관광마을을 만들기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이므로 이후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 등이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순응적으로 실행되어나가야 할 것이다.

2. 생태관광마을이 갖는 의미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계생태관광협회에서는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자연지역들에서 하는 책임지는 여행”을 생태관광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짧은 정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세 요소는 바로 “보전”과 “지역 커뮤니티”, “수익”이며, 이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써 “해설”이다. 해설은 사뭇 딱딱할 수도 있는 생태관광을 즐겁고 감동을 주는 수단이므로 필수적인 것이다.

○ “보전”은 생태관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필연적으로 대상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자원과 유산을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보전하고 보호함으로써 생태관광의 대상과 소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원 역할을 한다.

○ “수익”은 생태관광을 산업의 일부로 볼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태관광은 방문자(관광객)들이 경제행위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삼아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 수익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쓰이지만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는데 쓰이게 된다.

○ “지역 공동체(또는 사회, community)” 위주의 관광은 기존의 대중관광이 갖지 못했던 지역 자원만을 집중적·경쟁적 소비구조로 취하고 지역 공동체(커뮤니티)와 주민을 철저히 배제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과도한 개발 세력에 상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주민들의 고용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생태관광은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지역사회(혹은 마을) 중심 생태관광이 된다.

○ “해설”은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중심 관광의 구조 안에서 대상지의 다양한 자원이 효과적으로 보전되는 생태관광적 상황(자연, 지역사회, 문화)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환경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방법이다(강미희, 2013). 또한 해설은 참여하는 주체들의 다양한 경험이 반영되기도 한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해설은 핵심요소이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의 매력 요소를 발견하여 흥미롭게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특히, 지역 공동체 즉 지역사회 중심 생태관광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문화 자원을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문화와 생태계 서비스의 보전에 필요한 경비와 기술을 관광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관광을 추진하여 “자원의 보호 → 다양한 차원의 생태 관광 서비스를 제공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다시 자원의 보호”로 이르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제종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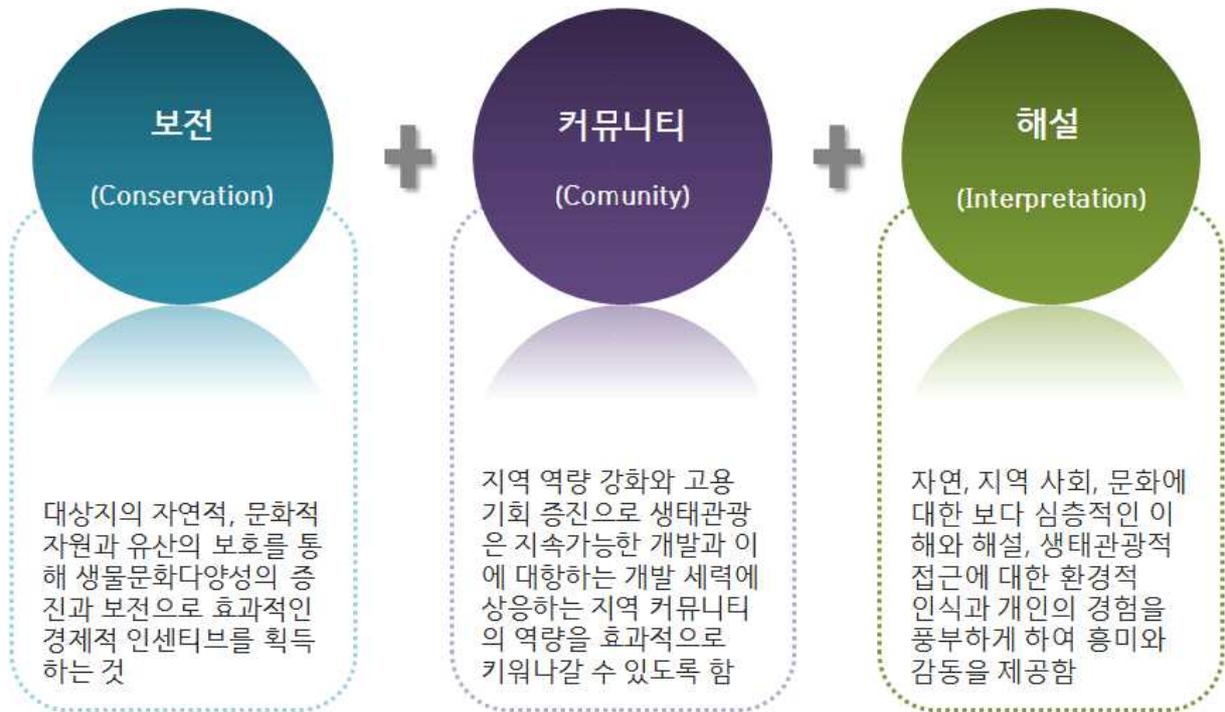


그림 1. 국제 생태관광협회에서 제시하는 “생태관광”
(ref. <http://www.ecotourism.org/what-is-eco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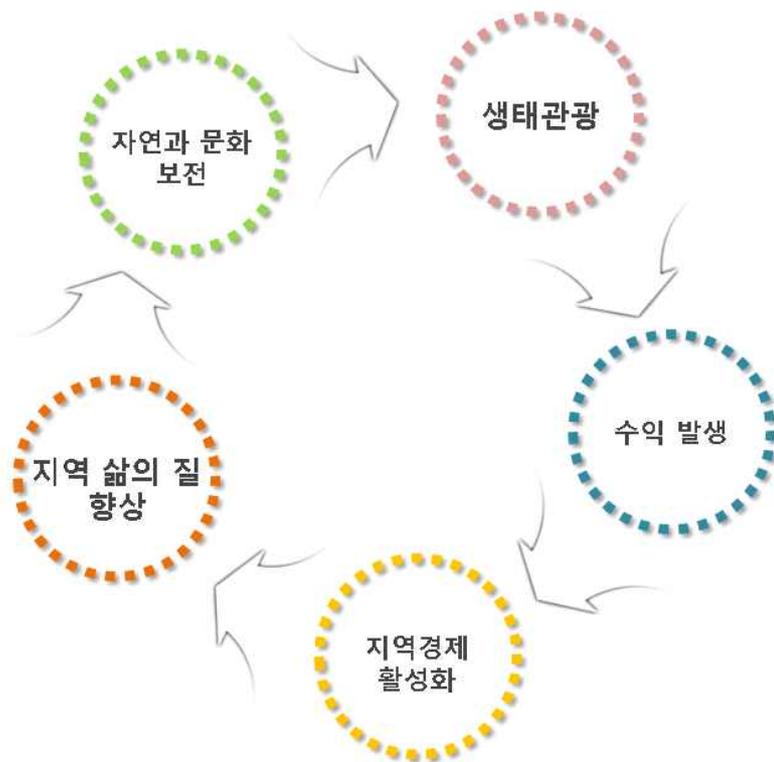


그림 2. 생태관광의 선순환 구조 (제종길, 2013)

○ 이렇듯 생태관광은 기존의 대중관광에서 벗어난 대안적 관광의 중요한 가치로, 환경과 지속가능성, 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포함하고 있다. 대개의 생태관광은 지역사회 중심 관광 형태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기초 단위인 마을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생태관광을 도입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을들의 상당수는 생태마을의 가치²⁾를 받아들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 원활한 지역(마을) 중심의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생태관광의 네 가지 요소로 인프라, 대상지의 자원, 사람, 콘텐츠로 제안하고 있다(김현, 2013). 생태관광 마을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융합되고 운영될 때 성공적 생태마을로 이를 수 있을 것이다.

- 인프라: 생태관광을 하기 위한 기본 바탕으로 하드웨어(hardware)와 시스템웨어(systemware) 측면에 속한다. 흔히 관광 인프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상지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이는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 먹을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식당, 쉴 수 있는 휴게시설로 대표되는 물리적 인프라와 이를 적절하게 생태관광적 측면에서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관련 요소들 간의 갈등 조정 및 발전에 관여하는 총체적인 관리에 해당하는 시스템적 인프라를 포함한다.
- 대상지 자원: 생태관광을 하기 위한 자원이 되는 요소로 자연적 자원을 포함한 문화, 역사 자원 등의 유형, 무형 자원을 모두 말하며,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지켜져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 사람: 지역(마을)의 인프라 안에서 실제로 이를 운영할 주체인 사람(humanware)을 가리키며, 지역(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고 필요시 전문가 및 관련 활동가, 행정기관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들의 인식 증진과 교육을 통해 지역의 인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다.
- 콘텐츠: 대상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광상품화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적(software) 요소에 해당한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가진 프로그램이 없다면 제대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지역에 대한 매력도는 점차 떨어지게 된다. 생태관광지의 지속성에 있어서 콘텐츠는 항상 발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외부에 드러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2) 자연생태계를 보전, 복원시킴과 동시에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생활, 생산양식을 가진 마을로, 마을경관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친화적인 삶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

II. 대상지 개황과 대상 마을 현황

1. 대부도 개황

(1) 대상지 개요

○ 대부도라는 명칭은 서해안에서 가장 큰 섬으로 이를 가리켜 “큰 언덕”이라는 뜻에서 대부도(大阜島)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삼국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에 실시된 전국구주제로 한주에 속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부현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남양군에 속하였고, 인조 때에는 방어사가 주재하였다. 고종 33년인 1914년에는 남양군에서 부천군으로 편입되었다.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웅진군에 편입되었다가 제2단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1994년 안산시에 편입되었다(한국도서백서, 1996).

○ 안산시 남서쪽에 위치한 대부동은 대부도, 선감도, 불도, 탄도 등 육지와 방조제로 연결된 5개의 연륙도와 풍도와 육도 등 2개의 유인도, 누에섬 등 9개의 등록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으로 시화방조제가 건설되어 시흥시와 연결되어 인천과 근거리권에 있고, 남동쪽으로는 선감도, 불도, 탄도 사이에 방조제가 건설되어 화성시와 이어져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사)연안보전네트워크, 2013)³⁾.

표 1. 대부동에 속해있는 섬 목록

구분	명 칭
연육도	대부도, 선감도, 불도, 탄도
유인도	풍도, 육도
등록무인도	누에섬, 말육도, 중육도, 종육도, 미육도, 큰햄섬, 가운데햄섬, 변도, 할미섬

가. 연육도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3) 국토해양부 연안포털(<http://www.coast.kr>)에서 인용되었음. / 해양생태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대부동 지역 생태관광 및 문화예술 자원조사 연구 보고서((사)연안보전네트워크, 2013) 재인용 함.

① 대부도

○ 대부도(大阜島)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속하며 시의 서쪽에 위치한다. 면적은 33.08km², 해안선의 길이는 61km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섬이었으나 북쪽으로는 시화방조제를 통해 시흥시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탄도방조제를 통해 화성시와 연결되면서 연륙되었다.

○ 대부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북쪽에 있는 황금산(黃金山, 143m)⁴⁾이었고, 황금산 서쪽에는 빼꼭산 (69m)이 있으며, 주변에 높이 100m 이하의 낮은 구릉들이 있다. 대부도의 지세는 황금산을 중심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높이 100m 내외의 구릉들이 펼쳐져 있다. 대부도 남서쪽에는 106m의 큰 산을 중심으로 고도 50~100m 정도의 구릉이 20여 개 분포하며, 100m를 넘는 산이 4개 정도에 이르고 주변의 평지는 주로 과수원으로 이용된다. 대부도에는 황금산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개천이 있다. 황금산 북서쪽으로 방죽천, 남서쪽으로 빼꼭천, 남동쪽으로 분지천, 북동쪽으로 영전천이 그것이다. 새방죽천 및 분지천의 연안과 해안을 따라 경지가 분포하며, 용수원은 북동저수지, 구봉저수지와 분리저수지에서 공급된다. 선감포구 북쪽에는 바람산(58m)이 있으며, 대부도 서쪽과 남쪽 해안에는 갯벌이 널리 분포하고, 동쪽 해안(시화호 호안)은 습지로 바뀌었거나 육지로 간척되었다.

○ 대부도의 기후는 대체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다.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이 강하여 춥고 눈이 많다. 1월 평균기온은 -4°C 내외, 8월 평균기온은 24°C 내외, 연강수량은 1,210mm 정도이다. 바람은 11월부터 3월까지 북서풍계열이 매우 우세하다.

○ 대부도가 낙지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섬의 본래 해안선은 드나뭇이 복잡하였지만 간척사업에 의하여 직선화된 곳이 많고 주변 해역에 작은 무인도들이 있으며, 대부도 남쪽 해안에는 메추리섬, 장자여, 할미섬, 부흥도, 까치섬, 거북섬, 가운데섬, 큰섬, 선감도, 불도, 탄도, 누에섬 등이 있으나 지금은 대부도의 일부가 되었거나 방조제로 연결되어 있다.

○ 대부도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을 뿌리라고 하는데, 대부도 서쪽 해안에는 느릿뿌리, 벽산뿌리, 큰잘뿌리, 산재뿌리, 옆뿌리, 검은옆뿌리 등이 있다. 또 남쪽 해안에는 서거여뿌리, 아침서거여뿌리, 고래뿌리, 신장이뿌리, 배랑 뿌리 등이 있고, 북쪽 해안은 지금은 육지가 되었지만 숯뿌리, 대깨미뿌리, 함박이뿌리 등이 있다.

4) 황금산의 정상부위는 시화호 방조제 건설시 토취가 되어 실제로 많이 낮아진 상태임.

○ 해안에는 다양한 갯벌과 빼어난 경관을 가진 해안이 많이 있다. 홍성리 선착장 서쪽은 선재대교를 통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도와 연결된다. 대부도 북쪽은 넓은 간척지가 노출되어 있고, 남쪽은 화성시 제부도에 이르는 지역에도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시화방조제 건설로 대부도 북동쪽의 군자만 갯벌은 육지로 바뀌어 더 이상 연안습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부도 주변은 갯벌의 규모가 큰 편이어서 조수가 흐르는 갯골의 규모가 크다. 대부도는 일찍부터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간척하였다.

○ 서쪽 해안에 바구리방조제, 큰잘뿌리방조제, 메추리섬방조제 등이 있고, 남쪽 해안에는 비롤방조제, 그므랑죽방조제, 행복골방조제, 상동방조제, 금당방조제, 웃마니들 방조제, 안산방조제, 그므랭이방조제, 어리골방조제, 대신방조제, 불도방조제 등이 있다. 남쪽과 서쪽 해안에 작은 규모의 방조제를 많이 쌓았고, 동쪽과 북쪽 해안은 육지 가까이 연속적으로 방조제를 쌓았다. 대부도 동쪽 수로와 저수공간은 시화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지구와 시화지구 대송단지가 있고, 마산수로 가까이에는 해안도로가 건설 중이다.

○ 큰가리섬과 작은가리섬

- 큰가리섬은 대부도 북서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가장 높은 곳의 고도는 33m이다. 작은가리섬은 큰가리섬 동쪽의 평탄한 섬으로, 지금은 시화방조제가 통과하며, 시화호조력발전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 방아머리섬

- 방아머리섬은 대부도 북쪽에서 매우 가까운 섬으로 101m의 북망산이 가장 높은 곳이고 주변에 32m 높이의 구릉과 평지로 이루어졌다. 지금은 서쪽의 구봉이섬, 남쪽의 돈지섬과 함께 대부도와 연결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 마을은 도로를 따라 길게 열촌 형태로 분포한다. 현재 대부도관광호텔 동쪽에는 암초인 잠투섬과 동남쪽에 쌀섬(암초), 그리고 터미섬(38m) 등이 차례로 있었으나 3개 모두 육지와 연결되었다. 북동쪽에는 노루녀라는 암초로 이루어진 작은 섬이 있으며, 이 위로 방조제가 지나고 있다.

○ 구봉도

- 구봉도(九峰島)는 구봉산(九峰山, 96m)과 72m의 구릉을 중심으로 서쪽 고갈미에는 높이 36m, 동쪽에는 높이 40m의 낙섬과 높이 33m의 섬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도와 연결되었다. 고갈미 서북쪽 1km 정도에 작은 섬 변도(辯島)가 있으며, 북망산과 구봉도 사이에는 구봉저수지가 있다.

○ 돈지섬

- 돈지섬은 북망산 남쪽 깊숙한 만에 있던 섬으로 지금은 대부도 내륙으로 바뀌었으며, 주변에는 2개의 저수지가 있다.

○ 메추리섬

- 메추리섬은 대부도 서남쪽 끝에 있는 섬으로 높이 37m의 구릉이 있다. 대부도 남단 서쪽에는 쪽박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었다. 대부도 남단 서거여뿌리 남쪽에는 장자여라는 작은 암초가 있다.

② 선감도

○ 선감도(仙甘島)는 안산시 서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서쪽에는 대부도, 남쪽에는 불도와 탄도가 있으며, 시화호 개발에 따라 이들 섬들과 방조제를 통해 연결되었다. 화성시 서신면에서 탄도, 불도, 선감도 등을 거쳐 대부도까지 연륙되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대현산(大峴山, 124m)이며, 주변은 높이 32~107m 내외의 구릉으로 이루어졌다.

○ 선감도의 서쪽은 평지이며, 농경지와 염전으로 이용되었다. 해안에는 갯벌이 넓게 발달하며, 주민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연근해에서는 주로 굴과 바지락이 양식된다. 취락은 주로 서북쪽 선감이 지역에 분포한다. 선감도 남쪽에는 그므랭이방조제, 어리골방조제 등이 있다.

③ 불도

불도(佛島)는 북서쪽의 선재도와 남쪽의 탄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남쪽은 38m, 북쪽은 23m 높이의 구릉으로 만들어졌다. 현재는 선감도.탄도와 함께 대부도에 연결되었다. 불탄도리, 부침이 등의 마을이 있다.

④ 탄도

○ 탄도(炭島)는 본래 동쪽 69m, 서쪽 65m, 북쪽 68m 높이의 구릉으로 이루어진 섬이며, 해안에는 해안절벽과 절리, 단층 등이 나타난다. 선감도와 불도 등과 대부도와 방조제로 연결되어 시화호를 조성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이루었다. 탄도는 탄도방조제를 거쳐 화성시 전곡과 연결 된다. 불도.선감도.대부도와 연결된 탄도는 마산수로(馬山水路)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화성시와 마주한다.

○ 탄도 동쪽의 마산수로는 대부도와 서쪽의 선재도 사이를 흐르는 영흥수로와 함께 조선시대 지방의 물산을 한양으로 나르던 조운선 등이 이용하던 대표적인 경기만의 수로였으며, 해산물 생산과 집적 장소였고, 연안 문화의 공간이었다. 오늘날 마산수로의 탄도 방조제 바깥쪽에는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이 있다. 탄도의 취락은 주로 불탄도리 지역과 탄도항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나. 유인도 (안산시사편찬위원회a, 2011)

① 풍도

○ 고려부터 조선 말까지는 단풍이 아름답다 하여 楓島로 불렸으나, 섬 주변에 수산자원이 풍족하여 1895년에 豊島로 바뀌었다고 한다. 단원구 대부동에 속한 섬으로 북위 37.06'32"동경, 126.22'55"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1.84km², 해안선의 길이는 5.5km에 불과하지만, 가장 높은 후망산(候望山)은 약 176m 높이로 섬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대부도와 24km, 육도와 4.5km, 태안군 난지도와 4.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승봉도, 대난지도, 대이작도 등이 있다.

○ 섬의 모양은 둥근 편이며, 후망산과 함께 174m 높이의 산이 남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쪽과 남쪽에는 경사가 급하다. 또한 파도의 침식에 의해 이루어진 해식애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나타난다. 풍도는 섬 전체의 경사가 급하여 해안 폭이 넓지 못하고, 파식대도 비교적 좁게 발달하며, 파랑의 작용이 활발하여 갯벌이나 사빈(모래해안)이 나타나지 않고 해안에 바닷물에 의해 만들어진 절벽인 해식애와 바다 동굴인 해식동, 파도가 만든 암석으로 된 평탄지인 파식대, 자갈 해안 등이 나타난다. 주민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데, 연근해에서는 조기, 민어, 새우, 갈치, 꽃게 등이 잡히며 바지락, 굴 양식이 활발하다. 농산물로 쌀, 보리, 콩, 고구마 등이 재배되며, 북동쪽 해안가에 취락이 밀집해 있다. 인천과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출발하는 정기여객선이 다닌다.

② 육도

○ 육도는 풍도에서 뱃길로 20분 거리에 있는 섬으로 면적 0.13km², 둘레가 3.0km, 최고봉 68m로 풍도에 비해 매우 작은 섬이다. 끝늬섬(말육도), 가운데늬섬(중육도), 육도, 질마섬, 정초리섬, 물우녀(미육도) 등 여섯 개의 섬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여

섯 개의 섬 중 사람이 사는 곳은 가장 큰 섬인 가운데의 육도뿐이며, 북쪽 섬인 끝녹섬에서 보면 여섯 개의 섬은 마치 하나의 섬처럼 보인다.

○ 끝녹섬은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며, 가운데녹섬은 끝녹섬 남쪽에 있는 섬이다. 질마섬은 육도 남쪽에 있는 섬으로 소의 질마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정초리섬(정철이)은 질마섬 남쪽의 뾰족한 섬으로 정의 끝처럼 뾰족하다고 한다. 물우녀는 바위 두 개가 서 있는 ‘여(썰물 때는 나타나고 밀물 때는 잠기는 바위)’로, 배가 다니는 물길 위에 있는 여라는 뜻이라고 한다. 육도는 비교적 완만하지만 섬이 작고 지하수가 풍부하지 못해 사람이 살기에는 불편하다. 자연 경관은 해안을 따라 쌓여 있는 자갈이나 절벽 등이 풍도와 비슷하지만 접근성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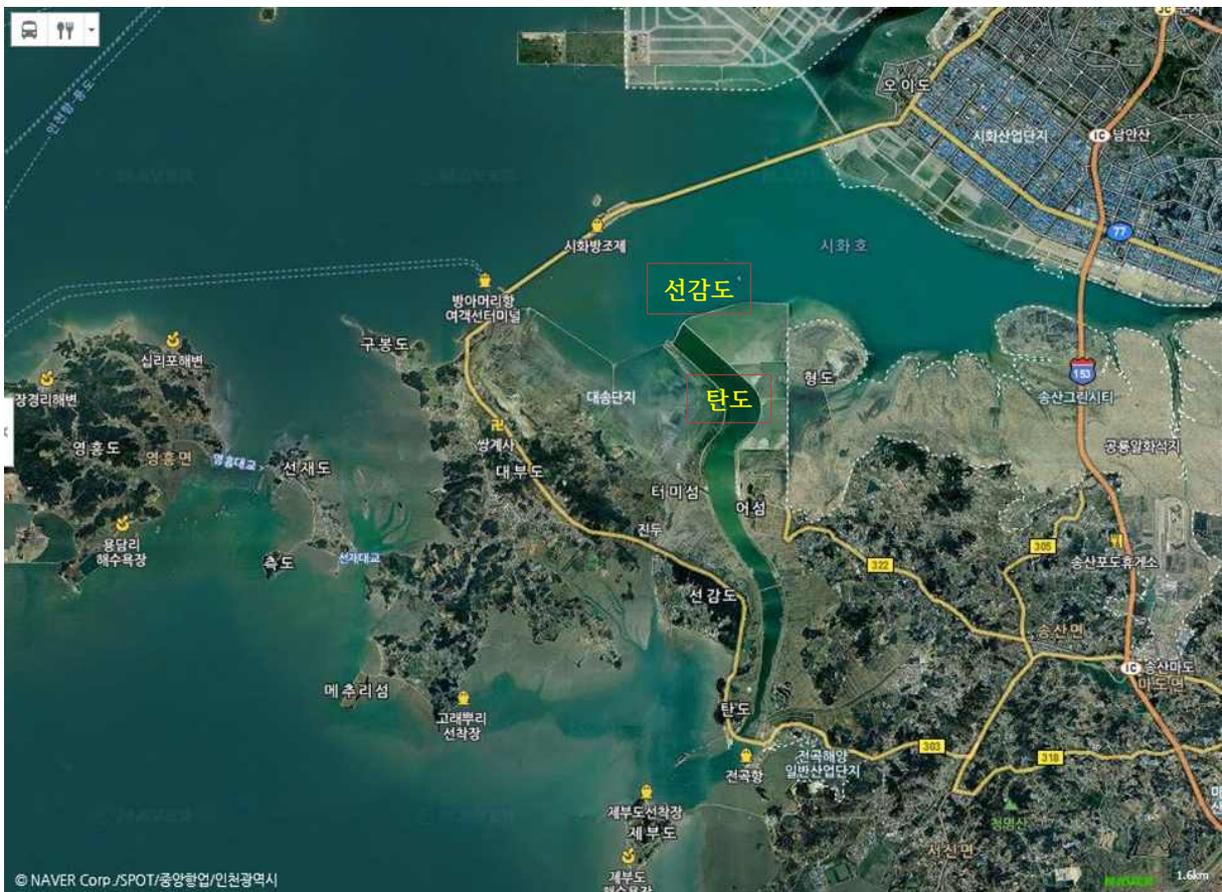


그림 3. 대부도 지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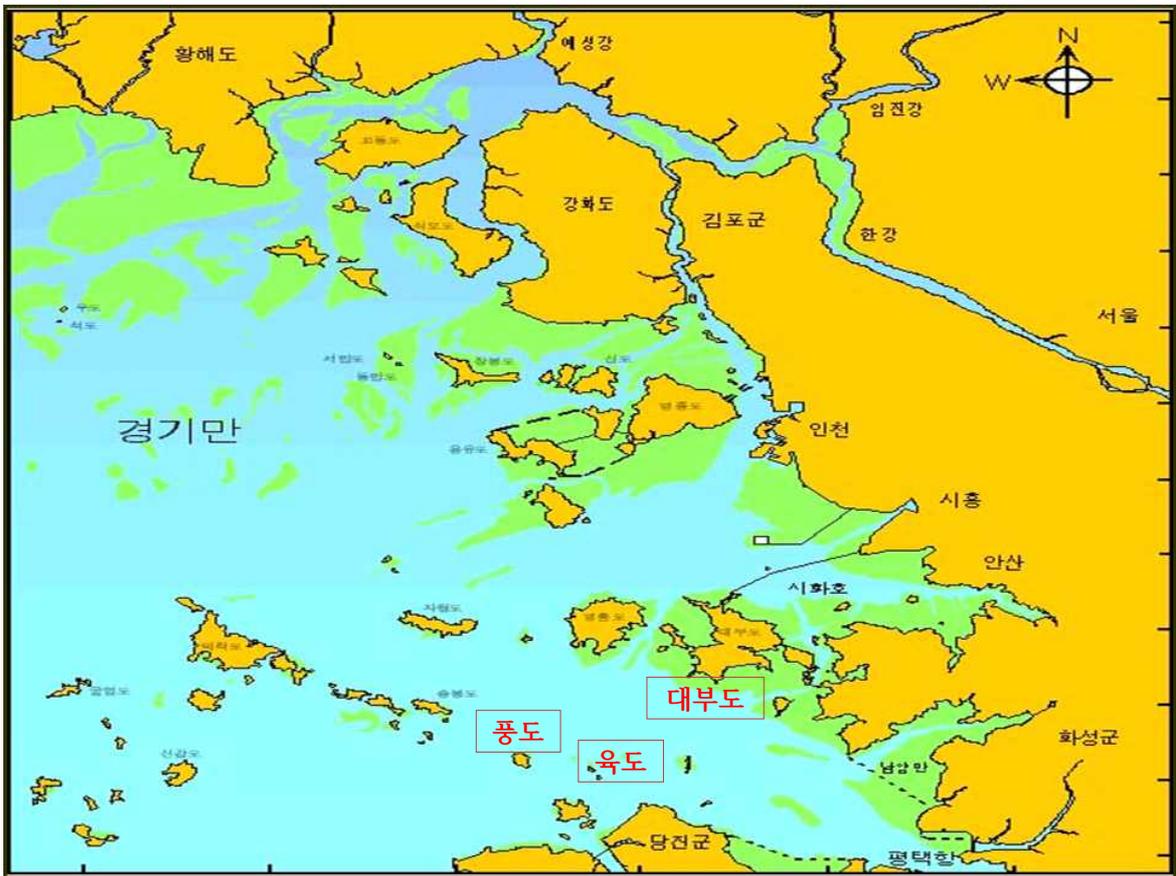


그림 4. 대부도 지역 주변 경기만

(2) 대부도 지형 ((사)연안보전네트워크, 2013)

○ 대부도 해안은 인천 인근 해역 및 아산만 등과 함께 경기만 갯벌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지역으로 리아스식 해안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나 시화지구 매립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연안 환경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시화방조제는 해수의 흐름과 자연적인 침식 및 퇴적 작용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해양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섬의 일부 지역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조달하기 위해 구릉지를 개석하면서 상당량의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었다.

○ 내륙지역은 저산성 구릉지와 충적평야로 되어 있다. 구릉지들은 경작지로 개간하여, 대부도의 특산품인 포도(캠벨)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 저지대의 구릉지 사이와 해양 쪽에는 갯벌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갯벌 배후의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곳을 중심으로는 사빈 및 자갈해안, 해안사구 등이 발달되어 있다.

○ 대부도의 전체 면적 중 25m 이하가 전체의 71.3%로 저산성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지역 이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논, 밭, 과수원, 염전, 거주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지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남서 방향으로는 낮은 저지대가 몇 갈래로 나뉘어 뻗어 있다. 산지의 많은 부분이 시화지구사업의 토취장으로 활용되어 상당량의 녹지가 훼손되었다.

표 2. 대부도의 표고별 면적 분포

구 분	1~5m	6~25m	26~50m	51~75m	76~100m	101m이상	합계
면 적(km ²)	4.1	27.3	8.6	2.9	1.0	0.2	44.0
구성비(%)	9.2	62.1	19.4	6.6	2.2	0.4	100

2. 사회적 현황

(1) 어가와 어가인구

○ 안산시는 서해에 접하고 있어 예로부터 어업종사자들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생활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산업입지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및 방조제 완공으로 전업 및 주거지 이동이 일어나 안산시의 수산업 규모가 크게 감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웅진군에 속해 있던 대부도, 풍도, 육도 등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 추세를 보였다. 안산시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수는 1997년 1,771가구에서 많은 변동을 거친 후 2007년 1,730가구로 유사해졌다. 이후 최근까지는 조금씩 줄고 있다. 반면 어업종사자수는 1997년 4,427명에서 2007년에는 2,859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 이후 최근까지는 조금씩 줄고 있다(표 3).

표 3. 어가와 어가인구 연도별 현황

(단위: 호, 명)

연도	어가수			어가인구		어업종사자	
	전업	겸업	합계				
1997	496	1,275	1,771	5,353	3.0	4,427	2.5
1998	343	1,043	1,386	4,187	3.0	3,279	2.4
1999	431	1,291	1,722	5,131	3.0	2,267	1.3
2000	160	486	646	1,897	2.9	1,897	2.9
2001	397	1,478	1,875	5,062	2.7	2,300	2.2
2002	401	1,492	1,893	5,382	2.8	2,436	1.3
2003	310	728	1,038	2,907	2.8	1,720	1.7
2004	387	1,460	1,847	5,138	2.8	3,043	1.7
2005	69	411	480	1,312	2.7	880	1.8
2006	370	1,398	1,768	5,328	3.0	2,922	1.8
2007	359	1,371	1,730	5,190	3.0	2,859	1.8
2008	342	1,308	1,650				
2009	328	1,255	1,583				
2010	315	1,203	1,518				
2011	299	1,142	1,441				

참고) 안산시, 2012, 안산통계연보

- 대부동의 동별 면적은 대부남동이 가장 넓고, 풍도동이 가장 좁고, 대부북동과 대부동동은 약 10.1km²로 비슷하였다(표 4).
- 2013년 10월 기준으로 대부동의 인구는 남자 3,972명, 여자 3,615명으로 성별 구성비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부동의 동별 면적 (2013년 10월 기준)

행정동	면적	인구수		
		합계	남	여
대부북동	10.81km ²	7,587	3,972	3,615
대부동동	10.64km ²			
대부남동	14.27km ²			
선감동	4.66km ²			
풍도동	2.04km ²			
합계	42.42km ²			

참고) 대부도 주민자치센터 자료

- 대부동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구학적 특성은 고령화이다. UN은 국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0년 12월 11.3%로 노인인구가 542만명이 되었다. 대부동 지역의 고령화지수는 26.9%로 한국의 고령화지수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UN기준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권으로 떠나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표 5).

표 5. 대부동의 2010년 연령별·성별 인구(통계청, 2010, 2010 인구총조사(읍면동/성/연령별))

연령별	인구(명)	남자(명)	여자(명)	성비(%)
계	5771	2864	2907	98.5
15세미만	626	330	296	111.5
15 - 64세	3593	1911	1682	113.6
65세 이상	1552	623	929	67.1
75세 이상	701	231	470	49.15
80세 이상	358	99	259	38.22
85세 이상	170	36	134	26.9
평균연령	48.7	45.5	51.9	
연령중위수	51.6	48.7	54.3	

○ 대부동의 인구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대수도 마찬가지로이다. 2003년부터 10년 동안 가구수는 약 1,000 세대가 증가한 반면에 인구수의 증가는 800명에 그쳤다. 이는 2003년 기존 가구수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남성이 52.8%로 여성보다 약 4.6% 많았다.(표 6)

표 6. 대부도 연도별 인구 현황

연도별 인구현황	세대수	남자수	여자수	총계
2003년	2,695	3,371	3,136	6,507
2004년	2,730	3,421	3,131	6,552
2005년	2,859	3,452	3,197	6,649
2006년	2,946	3,507	3,213	6,720
2007년	3,084	3,514	3,246	6,760
2008년	3,202	3,575	3,268	6,843
2009년	3,378	3,697	3,415	7,112
2010년	3,438	3,727	3,384	7,111
2011년	3,507	3,796	3,418	7,214
2012년	3,578	3,862	3,442	7,304
2013년	3,660	3,863	3,458	7,321

참고) 대부도 주민자치센터 자료, 2013년 11월 기준

○ 생태관광마을 대상이 되는 북2리(종현동 속말)과 남3리의 세대수와 인구수는 각각 423세대 826명과 103세대 195명이다. 종현동에서 직접 대상이 되는 지역의 인구도 전체의 약 1/5에 해당한다.

표 7. 대부도 종현동, 남3리 세대수 및 인구

행정동(리)명	세대수	계	남자	여자
종현동(속말, 건너말)	423	826	426	400
남3리	103	195	92	103

참고) 대부도 주민자치센터 자료, 2013년 11월 기준

○ 종현동의 연령별 인구구성은 40대와 50대가 전체의 45%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으며, 60세 이상도 약 25%가 되어 전체 주민의 1/4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26명이 더 많았다.

표 8. 종현동 연령별 인구현황

연령	남	여	총인원
0~10	21	18	39
11~20	39	39	78
21~30	38	36	74
31~40	35	22	57
41~50	92	74	166
51~60	107	99	206
61~70	47	45	92
71~80	38	48	86
81세이상	9	19	28
총인원	426	400	826

참고) 대부도 주민자치센터 자료, 2013년 11월 기준

○ 한편 남3리의 경우는 40대와 50대가 약 35%이고, 60대 이상이 39%이어서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고령층에서 여성의 비중도 높았고 전체적으로 여성이 10명 더 많았다.

○ 상대적으로 종현동이 주 활동층(30~50대)에서 남성이 훨씬 많은 것에 비해 남3리는 남·여 구성이 비슷하였다. 따라서 두 마을 중에서 남3리가 더 전원(농촌)형 인구 구성비를 가졌다.

표 9. 남3리 연령별 인구 현황

연령	남	여	총인원
0~10	4	4	8
11~20	4	6	10
21~30	10	12	22
31~40	12	4	16
41~50	8	10	18
51~60	23	20	43
61~70	18	20	38
71~80	8	17	25
81세이상	4	8	12
총인원	91	101	192

참고) 대부도 주민자치센터 자료, 2013년 11월 기준

○ 농업은 여전히 대부도의 중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인구가 2,231명으로, 대부도의 인구 중 절반 가량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가인구 중 50세 이상이 64%로 농가인구가 고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은 포도 재배를 하고 있다. 2011년 포도 수확량이 10,250톤에 이르며, 소득액이 2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 대부도의 어항은 14곳인데 지방어항 2곳, 소규모 육지 어항 10곳, 소규모 도서 어항이 2곳이다. 어가는 254가구이고 가구원 총 수는 696명이다.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이다. 또한,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갯벌에서 직접 어업행위를 하는 어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표 10. 대부도 주요 종사업

	주민등록상 인구(안산시 통계연보)	인구총조사	사업체 종사자	농업 종사자	포도 농가	어업 종사자
조사년도	2011년	2010년	2010년	2012년	2012년	2010년
인구 수	7,296	5,771	2,117	3,384		696
가구 수	3,217	2,242		1,217	968	254

○ 대부도의 사업체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소규모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비중은 미미하다.

(2) 도로 및 교통량 현황

○ 대부도의 도로 및 교통량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일에 시화방조제를 오가는 차량 대수는 6,500여대이며, 주말은 10,000여대의 차량이 시화방조제를 오간다. 대선로 대부고삼거리-선재대교 입구 구간은 평일 4,000여대, 주말 5,500여대이다. 시화방조제의 평일 대비 주말 차량 증가분은 3,500여대, 대선로는 1,500여대이다. 대부도를 거치기만 한 채 선재도와 영흥도로 빠지는 관광객 차량 수를 1,500여대로 추정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교통량으로 볼 때, 대부도를 찾는 방문자들은 연간 약 800만 명에 이른다. 토요일 오후에 외부에서 대부도로 들어오는 차선과 일요일 오후, 대부도에서 외부로 나

가는 차선에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이는 대부도, 대부도와 다리로 이어진 선재도, 영흥도에서 주말 관광을 온 관광객들에 의해 야기된 교통체증으로 추정된다. <그림 5>⁵⁾는 시화교에서 오이선착장으로 가는 차선의 일요일 시간대별 평균속도이다. 오후 3시부터 속도가 떨어져 4시부터 7시까지 평균 10km/h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다.



그림 5. 시화교→오이선착장 차선의 일요일 시간대별 평균속도

5) 해양생태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대부도 지역 생태관광 및 문화예술 자원조사 연구, p72.

3. 대상 마을의 경관과 식생

(1) 마을 경관

가. 마을

○ 대부도 전체는 평균해발고도가 높지 않다. 그 결과 대부분 평지나 구릉지의 특성을 띠고 있다. 특히 해안과 직면한 지역도 선재도와 연육교로 연결되는 부분만 제외하면 대부분은 경사가 완만하다. 집수역은 넓지 않지만 강우는 경사가 완만하여 빠르게 해양으로 이동하지 않고 육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암석의 풍화는 비교적 양호하여 암반이 밖으로 노출된 지역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해안선을 따라 건축물을 축조한 지역은 지면이 노출되어 건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 역시 산지의 사면은 건조한 상태이고 펜션의 건설로 인하여 식생이 없는 지역도 적지 않다((사)연안보전네트워크, 2013).

○ 북2리(종현동) 속말의 뒷산은 시화호 매립을 위한 채취로 산정부위가 잘려나갔지만 아래에서 보면 바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마을 뒤 성황당이 있던 지역은 부분적으로 절개되어 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노출부분이 생기고 식생대가 단절되었다. 뒷말에는 포도밭은 거의 없고, 도로 아래에서 해안까지 포도밭이 많고 해안 가까이에는 펜션들이 밀집해있다.

○ 해안 펼쳐별로 구성되어 있고 해안 방조제 앞쪽으로 염생식물 식생대(염습지)가 확장되고 있다. 이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고 그 하천에서 기수성 생물과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일부 생물들의 통로가 되고 있다.

○ 북2리(종현동)의 경우, 마을의 가옥이 구릉지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현재는 구릉지 정상 부근 카페가 있는 지점에서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앞말 해안까지 시야가 트인다. 종현동의 지형을 따라 위치한 마을 가옥의 자연스러운 배치와 수직적 경관은 물리적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요소가 된다.



그림 6. 북2리(중현동) 구릉 정상부에서 본 마을 전경 01



그림 7. 북2리(중현동) 구릉 정상부에서 본 마을 전경 02



그림 8. 북2리(종현동) 구릉 정상부에서 본 마을 전경 03



그림 9. 북2리(종현동) 구릉 정상부에서 본 마을길

○ 북2리(종현동) 마을의 가옥은 대부도의 전통적인 “ㄱ”자형 배치를 가진 가옥들이 주로 남아있으며,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는 가옥이 대부분이며 거주하지 않는 가옥도 몇 채 찾아볼 수 있다. 별도의 담장이 높게 둘러있지 않은 건물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가옥들은 마을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도만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다. 이들 주택은 개량 주택처럼 보이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에서 기둥을 그대로 둔 채 벽을 콘크리트로 바꾸고 지붕을 슬라브로 바꾸었다. 이후에 양철 지붕으로 교체하였다. 따라서 이들 가옥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림 10. 북2리(종현동) “ㄱ”자형 마을 가옥 사례 01



그림 11. 북2리(중현동) “ㄱ”자형 마을 가옥 사례 02



그림 12. 북2리(중현동) 마을길 01

○ 종현동 전통 취락구조는 아름답고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낡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 이전에(2012년) 북2리(종현동 속말)에서 진행되었던 마을 벽화 사업으로 인한 대부도 내 이질적인 경관은 조성하였지만 현재로써는 방문객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를 더욱 발전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지닌 사업으로 보다 확장을 시킨다면, 마을의 양호한 접근성과 대부도 내 위치를 고려할 때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좋은 기회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북2리(종현동) 마을길과 벽화 01



그림 14. 북2리(중현동) 마을 벽화 사례 01



그림 15. 북2리(중현동) 마을 벽화 사례 02



그림 16. 북2리(종현동) 마을 벽화 사례 03



그림 17. 북2리(종현동) 마을 벽화 사례 04



그림 18. 북2리(종현동) 마을 벽화 사례 05

- 남3리는 북2리(종현동)와 확연하게 다른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2리(종현동 속말)가 구릉지에 가옥들이 클러스터를 이루어 배치되고 모여있는 데 비해 갯벌과 염습지, 농지를 끼고 구릉의 가운데 부분 평지에 위치한 남3리의 가옥들은 분산되어 배치하고 있다.
- 해안에서 보면 전체적인 경관이 낮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안에서 볼 때 도로쪽(서쪽) 숲은 조림된 밤나무 숲이고, 왼쪽(동쪽)과 북쪽 숲은 자연적으로 곰솔과 상수리나무가 우점한다.
- 마을 앞부분에 위치한 해안 갯벌과 염습지에 서식하는 대규모의 붉은 염생식물 군락은 방문객,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방문객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경관을 제공한다. 또한 마을 안쪽으로 펼쳐진 농지와 습지 등은 자연경관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해안 갯벌과 함께 다양한 생물서식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남3리 경우 좁은 해안도로를 근래 건설하여 대남초등학교로부터 해당지역까지 접근

성은 매우 양호하지만 육지와 해양이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도로의 폭이 좁아 대형 야생동물의 이동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작지는 논보다는 밭의 면적이 넓고 밭은 대부분 포도과수원이다. 일반적인 농어촌보다는 많은 농어촌 가구 생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인간의 발자국이 없는 곳은 없다.



그림 19. 남3리 마을 안쪽 농경지 경관 01



그림 20. 남3리 마을 안쪽 농경지 경관 02



그림 21. 남3리 마을 안쪽 농경지 경관 03



그림 22. 해안가쪽 마을 입구 건물



그림 23. 남3리 마을 내 가옥 사례 01



그림 24. 남3리 마을 내 가옥 사례 02



그림 25. 남3리 마을 내 가옥 사례 03



그림 26. 남3리 마을 주민의 일상

나. 내륙습지

○ 남3리 지역의 내륙습지는 비교적 좁으며, 논, 수로 및 폐농경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지역은 해발고도가 낮아 해수면과 고도 차이가 거의 없다. 그 결과 산지로부터 습지로 유입된 담수가 서서히 해양으로 유출됨에 따라 수량은 많지 않지만 항상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물론 경작지는 필요에 따라 입수와 배수를 하기 때문에 수위가 사람에 의하여 조절된다. 습지에서 물이 일정량 이상으로 항상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수생식물의 분포나 생육에 큰 영향을 준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하면 본 지역의 습지는 일정량의 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논이 수로에는 여러 종류의 수상식물이 자라고 있어 환경교육 체험장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 종현동 속말에는 내륙습지가 없고 해안으로 유입되는 개천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속말에서는 그 흔적만 찾을 수 있다.



그림 27. 남3리 내륙 습지



그림 28. 남3리 내륙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

다. 해안

- 남3리 지역과 종현동 도로 아랫말의 해안은 조간대와 약 2-3 m 높이 차이가 있는 해안도로가 있고, 이 해안도로는 석축 혹은 시멘트로 축조되어 있다. 조간대 전체는 고도에서 큰 차이가 없어 매우 넓은 지역이 평탄하다. 육지 근처 제방의 하부에는 비교적 큰 입자의 저토가 있으나 제방에서 멀어질수록 세립한 펄(泥質)로 변하고 있다.
- 마을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담수가 있는 작은 수로 출구에는 모래나 큰 패각 더미가 있고 고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역만은 고도, 해수에 잠기는 시간, 저토 내 수분 함량, 염분 농도 등이 대부분의 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식물이 생육하는데 다양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염생식물이 생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담수의 양인데 육지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은 적지만 일정하게 지하수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어 염생식물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먼 거리에 있는 해안식물의 근계에까지 담수가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담수의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염분농도가 0.5%일 때에 잘 자라는 갈대의 분포 면적이 지극히 제한되었다.
- 한편 내성이 강한 염생식물인 천일사초, 칠면초, 갯잔디 등이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이 넓었다. 특히 칠면초는 넓은 면적에 생육이 가능하다. 조간대의 저토가 급격히 퇴적되거나 침식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식생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현재도 칠면초의 면적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9. 남3리 지역 해안 염습지 01



그림 30. 남3리 지역 해안 염습지 02



그림 31. 남3리 지역 염생식물



그림 32. 남3리 지역 해안 염습지 03



그림 33. 남3리 지역 해안 염습지 04

(2) 식물상 및 식생

가. 육상

○ 해안의 육지는 해풍이 강하고 바람과 함께 염분 입자가 유입되며, 토양 환경이 매우 건조하며 척박하다. 그 결과 바람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바닷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육할 수 있는 식물종만 분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수종은 곰솔이다. 대부도 지역에서도 산지의 우점종은 곰솔이었다. 곰솔의 하층에 생육하는 식물종도 단자엽이 대부분이며,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곰솔을 포함한 현지의 해안 사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종은 다음의 표와 같다.

○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추진센터(2013)에서 펴낸 자료에 따르면 대부도에는 481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안에서 자라는 식물

종들과 내륙습지와 염습지에서 서식하는 종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육지에서는 목본 종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과 아래와 표와 같이 우리나라 중부지방 해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종들과 비교하였다.

-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들 중 팔배나무, 보리수나무, 모감주나무, 소사나무, 병아리꽃나무, 사람주나무, 붉나무, 해당화, 가막살나무, 준비기나무, 작살나무 등은 관상의 가치가 있는 수종들이다.

표 11. 우리나라 중부지방 해안사면에 흔히 출현하는 목본식물종. 비교에서 표시된 종들은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종들임

과명	국명	학명	비고
소나무과	리기다소나무	<i>Pinus rigida</i> MILL.	◎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S. et Z.	◎
	곰솔	<i>Pinus thunbergii</i> PARL.	◎
측백나무과	노간주나무	<i>Juniperus rigida</i> S. et Z.	◎
버드나무과	은사시나무	<i>Populus x tomentiglandulosa</i> T. LEE	◎
	버드나무	<i>Salix koreensis</i> ANDERSS.	◎
	갯버들	<i>Salix gracilistyla</i> MIQ.	
가래나무과	굴피나무	<i>Platycarya strobilacea</i> S. et Z.	◎
	오리나무	<i>Alnus japonica</i> STEUD.	
	물오리나무	<i>Alnus hirsuta</i> (SPACH) RUPR.	◎
	개서나무	<i>Carpinus tschonoskii</i> MAXIM.	
	소사나무	<i>Carpinus turczaninowii</i> HANCE	◎
	개암나무	<i>Corylus heterophylla</i> var. <i>thunbergii</i> BL.	
참나무과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S. et Z.	◎
	상수리나무	<i>Quercus acutissima</i> CARRUTH.	◎
	굴참나무	<i>Quercus variabilis</i> BL.	
	떡갈나무	<i>Quercus dentata</i> THUNB.	◎
	신갈나무	<i>Quercus mongolica</i> FISCH.	◎
	줄참나무	<i>Quercus serrata</i> THUNB.	◎
	갈참나무	<i>Quercus aliena</i> BL.	
느릅나무과	참느릅나무	<i>Ulmus parvifolia</i> JACQ.	
	팽나무	<i>Celtis sinensis</i> PERS.	◎
	푸조나무	<i>Aphananthe aspera</i> PLANCH.	
뽕나무과	꾸지뽕나무	<i>Cudrania tricuspidata</i> BUREAU	◎
	뽕나무	<i>Morus alba</i> L.	
	산뽕나무	<i>Morus bombycis</i> KOIDZ.	◎
미나리아재비과	할미밀망	<i>Clematis trichotoma</i> NAKAI	
으름덩굴과	으름	<i>Akebia quinata</i> DECNE	

장미과	병아리꽃나무	<i>Rhodotypos scandens</i> (THUNB.) MAKINO	
	돌가시나무	<i>Rosa wichuraiana</i> CREP.	
	해당화	<i>Rosa rugosa</i> THUNB.	
	귀룽나무	<i>Prunus dadus</i> L.	◎
	산벚나무	<i>Prunus sargentii</i> REHDER	◎
	개벚나무	<i>Prunus leveilleana</i> KOEHNE	
	콩배나무	<i>Pyrus calleryana</i> var. <i>fauriei</i> (SCHNEID.) REHDER	
	팔배나무	<i>Sorbus alnifolia</i> (S. et Z.) K. KOCH	◎
콩과	족제비싸리	<i>Amorpha fruticosa</i> L.	
	다릅나무	<i>Maackia amurensis</i> RUPR. et MAXIM.	
	아까시나무	<i>Robinia pseudoacacia</i> L.	◎
운향과	초피나무	<i>Zanthoxylum piperium</i> A.P. DC.	
	산초나무	<i>Zanthoxylum schinifolium</i> S. et Z.	◎
	쉬나무	<i>Evodia daniellii</i> HEMSL.	
	상산	<i>Orixa japonica</i> THUNB.	
소태나무과	소태나무	<i>Picrasma quassioides</i> (D. DON) BENN.	◎
대극과	광대싸리	<i>Securinega suffruticosa</i> REHDER	◎
	사람주나무	<i>Sapium japonicum</i> PAX et HOFFM.	
울나무과	붉나무	<i>Rhus chienesis</i> MILL.	◎
	개울나무	<i>Rhus trichocarpa</i> MIQ.	◎
노박덩굴과	회잎나무	<i>Euonymus alatus</i> var. <i>ciliato-dentatus</i> HIYAMA.	◎
	참빗살나무	<i>Euonymus sieboldiana</i> BL.	
	노박덩굴	<i>Celastrus orbiculatus</i> THUNB.	◎
단풍나무과	만주고로쇠	<i>Acer truncatum</i> BUNGE	
무환자나무	모감주나무	<i>Koelreuteria paniculata</i> LAXM.	
나도밤나무과	나도밤나무	<i>Meliosma myriantha</i> S. et Z.	
포도과	담쟁이덩굴	<i>Parthenocissus tricuspidata</i> (S. et Z.) PLANCH.	◎
피나무과	장구밥나무	<i>Grewia biloba</i> var. <i>parviflora</i> (BUNGE) HAND.-MAZZ.	◎
보리수나무과	보리수나무	<i>Elaeagnus umbellata</i> THUNB.	◎
두릅나무과	송악	<i>Hedera rhombea</i> BEAN	
	음나무	<i>Kalopanax pictus</i> (THUNB.) NAKAI	◎
	두릅나무	<i>Aralia elata</i> SEEM.	◎
진달래과	진달래	<i>Rhododendron mucronulatum</i> TURCZ.	◎
	철쭉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MAXIM.	
노린재나무과	노린재나무	<i>Symplocos chienesis</i> var. <i>leucocarpa</i> for. <i>pilosa</i> (NAK.) OHWI	◎
물푸레나무과	취퐁나무	<i>Ligustrum obtusifolium</i> S. et Z.	◎
인동과	분꽃나무	<i>Viburnum carlesii</i> HEMSL.	
	덜꿩나무	<i>Viburnum erosum</i> THUNB.	

	가막살나무	<i>Viburnum dilatatum</i> THUNB.	◎
	병꽃나무	<i>Weigela subsessilis</i> BAILEY	
	인동	<i>Lonicera japonica</i> THUNB.	◎
마편초과	작살나무	<i>Callicarpa japonica</i> THUNB.	
	누리장나무	<i>Clerodendron trichotomum</i> THUNB.	
	순비기나무	<i>Vitex rotundifolia</i> L. f.	



상수리나무



팽나무



마타리



마타리



생강나무



미국자리공



그림 34. 해안 식생대의 식물

나. 내륙습지

○ 남3리의 내륙에 있는 논과 접하고 있는 관개수로 그리고 경작하지 않는 곳에 형성된 습지에 분포하는 종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관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습지식물은 크게 침수식물, 부수식물, 부엽식물, 정수식물로 구분하고 있다. 앞의 세 가지 부류의 식물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정수식물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습지식물의 종이나 수를 정하기가 어렵다.

○ 이 보고서에서는 현지에서 직접 확인된 종과 생육할 가능성이 높은 종을 습지식물 종 목록으로 제시하였다(표 12). 이 표에서는 사초과와 대부분의 벼과는 제외하였다. 제시된 종들 중 매화마름은 법정보호종이며, 현재 대부도의 서부 지역의 논에 생육하고 있어 이 지역도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연 상태로 방치한 습지의 면적이 매우 좁고 수심도 얇은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많은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장 답사의 시기가 생육기말인 10월 13일로 일부 식물은 관찰이 불가능한 종도 있을 수 있다. 수질이 양호하고 거의 마르지 않는 수로가 있는 것은 다양한 수생식물을 유지하는데 기본이 된다.

표 12. 내륙수생식물, 현지에서 서식을 확인한 종(생육)과 생육할 것으로 보는 종(생육 가능)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음

생활형	국명	학명	생육	생육가능
-----	----	----	----	------

부수식물	개구리밥	<i>Spirodela polyrhiza</i> SCHLEID.	◎	
	좁개구리밥	<i>Lemna paucicostata</i> HEGELM.	◎	
	생이가래	<i>Salvinia natans</i> ALL.		◎
침수식물	말즘	<i>Potamogeton crispus</i> L.		
	실말	<i>Potamogeton berchtoldii</i> FIEBER		◎
	나자스말	<i>Najas graminea</i> DEL.		◎
	통발	<i>Utricularia japonica</i> MAKINO		◎
	검정말	<i>Hydrilla verticillata</i> CASP.		
	이삭물수세미	<i>Myriophyllum spicatum</i> L.		
	물질경이	<i>Ottelia alismoides</i> PERS.		◎
	붕어마름	<i>Ceratophyllum demersum</i> L.		
부엽식물	어리연꽃	<i>Nymphoides indica</i> O. KUNTZE		
	가래	<i>Potamogeton distinctus</i> A. BENN.	◎	
	마름	<i>Trapa japonica</i> FLEROV		
정수식물	애기부들	<i>Typha angustata</i> BORY et CHAUB.	◎	
	넓은잎부들	<i>Typha latifolia</i> L.	◎	
	부들	<i>Typha orientalis</i> PRESL		◎
	달뿌리풀	<i>Phragmites japonica</i> STEUD.	◎	
	벗풀	<i>Sagittaria trifolia</i> L.	◎	
	보풀	<i>Sagittaria aginashi</i> MAKINO	◎	
	물옥잠	<i>Monochoria korsakowi</i> REGEL et MAACK	◎	
	물달개비	<i>Monochoria vaginalis</i> var. <i>plantaginea</i> (ROXB.) SOLM.-LAUB.		◎
	미나리	<i>Oenanthe javanica</i> DC.	◎	
	택사	<i>Alisma canaliculatum</i> ALL. BR. et BOUCHÉ		◎
	올미	<i>Sagittaria pygmaea</i> MIQ.	◎	
	사마귀풀	<i>Aneilema keisak</i> HASSK.	◎	
	고마리	<i>Persicaria thunbergii</i> H. GROSS	◎	
	미꾸리뉘시	<i>Persicaria sieboldii</i> OHKI	◎	
	매화마름	<i>Ranunculus kazusensis</i> MAKINO.		◎

	
<p>가래</p>	<p>지칭개</p>
	
<p>좁개구리밥</p>	<p>개구리밥</p>
	
<p>배암차즈기(곰보배추)</p>	<p>나도겨풀</p>
	
<p>미나리</p>	<p>애기부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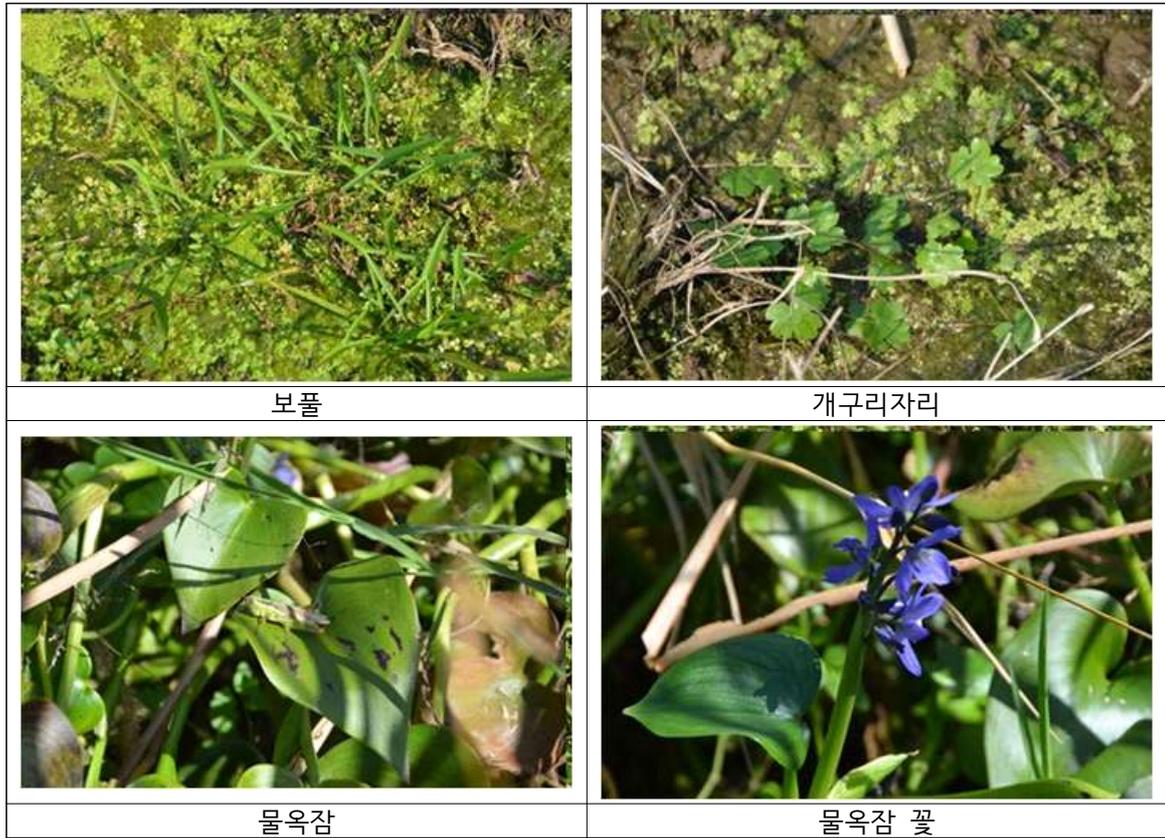


그림 35. 대상지 내 습지 식물

다. 해안

○ 우리나라의 염생식물은 사초과와 골풀과를 모두 포함하면 약 30여종에 이른다. 이들은 염분이 매우 낮은 곳부터 해수보다도 더 높은 곳까지 분포한다. 염생식물이 조간대에서 살기 위해서는 염분에 대한 내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 외에도 해수에 침수되어 호흡이 불가능한 것에도 내성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침수되는 시간은 저토 내 염분도와 함께 염생식물의 분포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 대부도 대상 지역 내에 분포하는 염생식물종은 표 3과 같다. 조하대에 생육하는 거머리말 4종과 사구에 생육하는 3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염생식물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확인되었거나 분포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염생식물은 종의 수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

○ 또한 식생의 측면에서도 분포 면적이 매우 넓고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비교적 안정된 군락을 이루고 있다. 향후에도 외부로부터 식생에 가해지는 교란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염생식물로 구성된 식생이 적은 한국의 경우 이 지역의 식생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넓게 분포하였던 기존의 경기만 일대의 염생식물 군락이 간척사업에 의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표 13. 대상 지역 내 염생식물

과명	학명 (국명)	생활형	분포	분포가능
거머리말과	<i>Zostera</i> spp. (4종)	다년생		
지채과	<i>Triglochin maritimum</i> L. (지채)	다년생	◎	
벼과	<i>Puccinellia coreensis</i> OHWI. (갯꾸러미풀)	다년생		
	<i>Phragmites communis</i> TRIN. (갈대)	다년생	◎	
	<i>Zoysia sinica</i> HANCE. (갯잔디)	다년생	◎	
	<i>Phacelurus latifolius</i> (STEUD.) OHWI (모새달)	다년생		◎
사초과	<i>Carex scabrifolia</i> STEUD. (천일사초)	다년생	◎	
	<i>Carex rugulosa</i> KUKENTH. (큰천일사초)	다년생		
	<i>Carex pumila</i> THUNB. (좁보리사초)*	다년생		
골풀과	<i>Juncus haenkei</i> E. MEYER (갯골풀)	다년생		◎
명아주과	<i>Kochia scoparia</i> SCHRAD. (갯땀싸리)	일년생	◎	
	<i>Atriplex gmelini</i> C.A. MEYER (가는갯는쟁이)	일년생	◎	
	<i>Salicornia herbacea</i> L. (통통마디)	일년생		◎
	<i>Suaeda japonica</i> MAKINO. (칠면초)	일년생	◎	
	<i>Suaeda asparagoides</i> (MIQ.) MAKINO.(나문재)	일년생	◎	
	<i>Suaeda maritima</i> DUM. (해홍나물)	일년생	◎	
	<i>Suaeda malacoeperma</i> H. HARA(기수초)	일년생		
	<i>Salsola collina</i> PALLAS (솔장다리)*	일년생		
	<i>Salsola komarovi</i> ILJIN (수송나물)*	일년생		
석죽과	<i>Spergularia marina</i> GRISEB. (갯개미자리)	일년생		◎
갯질경과	<i>Limonium tetragonum</i> (THUNB.) A.A. BULLOCK (갯질경)	이년생	◎	
국화과	<i>Aster tripolium</i> L. (갯개미취)	이년생	◎	
	<i>Artemisia scoparia</i> WALDST. et KIT.(비쭉)	이년생	◎	
	<i>Artemisia fukudo</i> MAKINO (큰비쭉)	이년생	◎	

* 사구(sand dune)나 모래갯벌의 주변부 사질에 주로 생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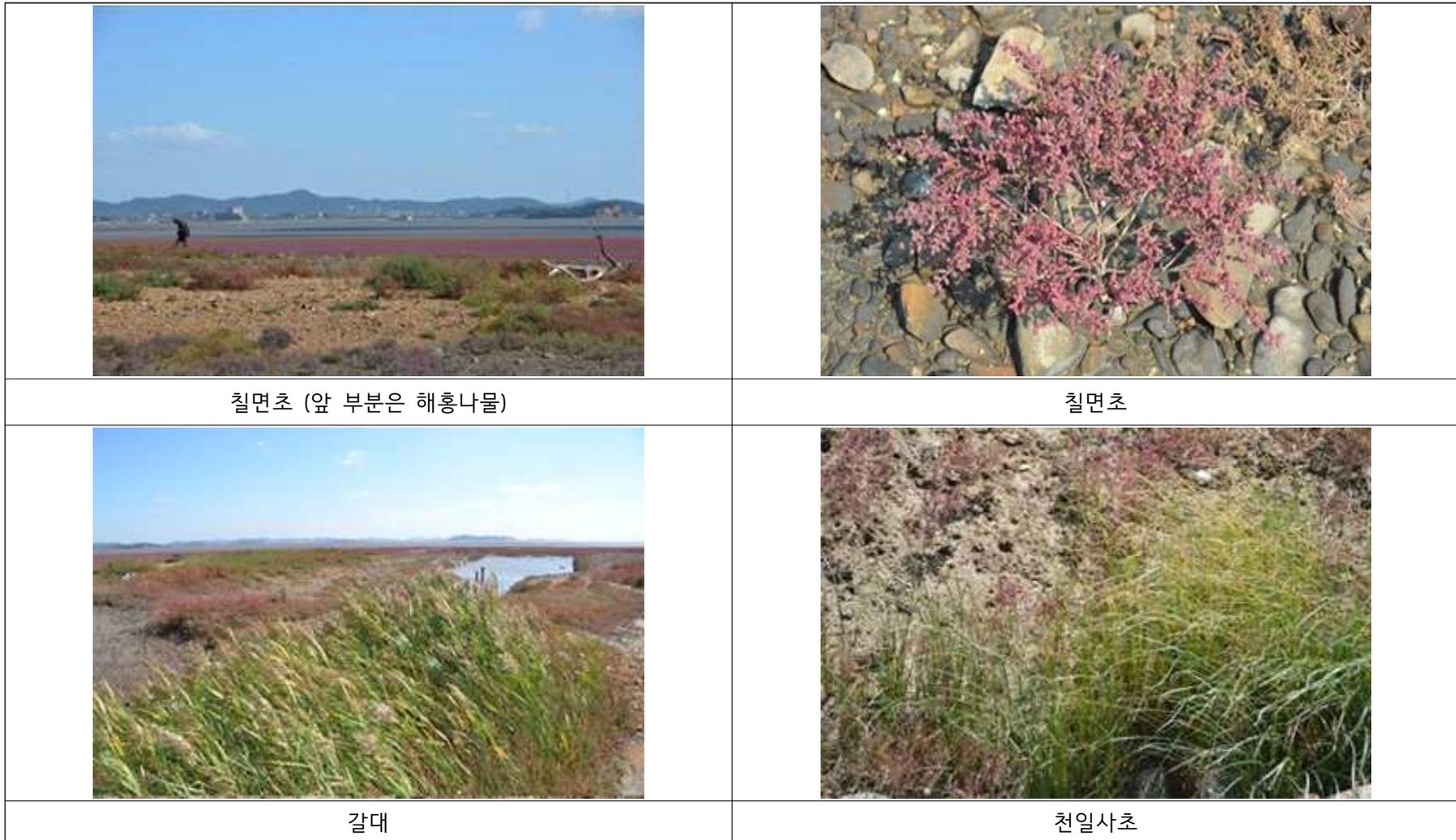


그림 36. 대상지역 해안가 염생식물



갯질경



낙문재



가는갯는쟁이



칠면초

(계속)



갯뚝싸리



갯뚝싸리



지채



해홍나물

(계속)

(3) 자연 경관의 가치

가. 육상

○ 현재 상태에서 육상의 식물상 혹은 식생에 대한 경관 가치는 낮은 상태이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산지의 대부분에는 곰솔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만 일부 활엽수가 분포한다. 더욱이 이 활엽수도 상수리나무, 밤나무, 아까시나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관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하층에 있는 식물종 중에서는 해안의 사면에 주로 분포한 것이 생육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종현동 뒷말 뒷산의 훼손지나 절개지에서는 초기 천이 종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년 내에 식생 특성을 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나. 내륙습지

○ 남3리 입구 쪽에 방치된 내륙습지는 면적이 좁았다. 더욱이 수심이 얕아 애기부들, 물옥잠, 도깨비바늘, 고마리, 미나리 등 몇 종에 분포하여 종다양성은 매우 단순하였다. 수심과 수공간을 재편하면 다수 수생식물들이 분포하는 습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 해안 염습지

○ 대부도 대상 지역(종현동 갯벌 포함)의 해안 식생은 경관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염생식물군락을 대부분 한 지역에서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염생식물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순천만도 갈대군락, 칠면초군락, 모새달군락, 천일사초군락을 제외하면 다른 군락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갈대군락과 칠면초군락을 중심으로 지채군락, 갯잔디군락, 천일사초군락, 나문재군락, 해홍나물군락, 갯개미취군락이 분포하고 있었다.

- 둘째, 해안도로로부터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거리에 모든 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전체 해안도로를 따라서 1km 정도의 폭으로, 도로로부터 갯벌 50m 이내에 서 모두가 분포하고 있다. 직접 조간대 내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한 것이다.
- 셋째, 육지로부터 해양방향으로 전형적인 대상(띠모양)분포 혹은 고도에 따른 분포를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종들의 염분에 대한 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 넷째, 칠면초 군락은 300m 정도의 폭으로 형성되어 있어 경관적으로 장관이었다. 국내에서 이와 같이 넓은 식생의 폭을 나타내는 곳은 매우 드물다. 일본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관광지로 만든 지역도 이보다는 좁다. 우리나라에서도 염생식물 단지를 조성하여 생태관광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더 의미가 있다.

4. 대상 마을의 주거구조

○ 서해안의 마을들은 해안에서 서쪽 바다를 바라보고 형성된 곳은 없다. 서향이라 하더라도 언덕이나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에 위치하며 이마저도 해안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방풍림이나 가림 거리를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의 해안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의 가옥구조에는 □자 형 집이 많다. □자 집은 □자와 같이 집의 중심에 안마당이 있고 주변을 방과 마루가 에워싸고 있는 집을 말하며 모서리가 트인 ‘튼 □자형 한옥’으로 제안하고 네모서리가 닫힌 집들은 ‘□자형 한옥’이라 하였다(송, 2004). □자 형 집은 ㄱㄴ형, 맞고패집⁶⁾, 입 구(口)자 집이라고도 부른다.

○ 대부도의 오래된 민가 가옥(원형은 대개 초가인 한옥)들은 어촌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튼□자형’ 집이 많다. 이러한 형태는 비바람과 추위를 막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지붕은 본래 초가지붕 혹은 기와지붕이었다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끼고 다시 양철지붕으로 개량한 집이 많다.⁷⁾

○ 다음은 안산시사(안산시사 편찬위원회, 2011)에 실린 대부도 전통가옥들의 개요다.

○ 종현동 속말 김두석가옥

- 소재지: 단원구 속말길34(대부북동 1373)

- 김두석가옥이 위치한 마을은 종현동이라고 하는데 대선로가 마을 앞을 지나고 있다. 대선로 큰길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속말길이다. 종현동 이라는 마을 이름은 왕지정王指井 우물의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김두석 가옥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초입에 왕지정 우물이 있다. 마을은 남서향으로 열린 구릉에 형성되어 있다. 김두석 가옥은 남서쪽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역 ㄱ자형의 안채와 역 ㄴ자형의 행랑채가튼□자 형태로 배치되었다.

- 안 채 부엌 뒤쪽으로 덧붙여 화장실과 창고를 증축하였다. 속 말길에서 연이어 행랑채 앞으로 바깥마당이 만들어지고 대문간은 행랑채의 꺾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 안채는 1897년에 건립되었다. 전 면에 뒷마루를 둔 2칸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안방이 꺾인 부분을 포함하여 1.5칸으로 놓고 그 앞으로 부엌이 있다. 대청의 오른

6) 맞고패집은 □자 집의 방언

7) 네이버 블로그 동네목수, 대부도 오래된 집 프로젝트 (<http://mookga.blog.me/10178600367>)에서 인용함.

쪽에는 건넌방이 있다. 대청에는 전면으로 2칸 모두 들어 열 개사분합문을 달아 뒷마루와 구분하였고 상부에는 교창을 달았다. 대청 뒷면 가운데 에 뒤주를 놓고 뒤주 오른쪽 뒷벽에는 중방위쪽으로 위패를 모셔두는 감실을 조성하였다. 가옥의 구조는 전퇴며, 주오량구성에 훔쳐마 팔작지붕이고, 지붕에는 현재 기와 형태의 컬러강판을 사용하였으나 원래는 기와지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김두석 가옥 전퇴 구성

- 행랑채는 전면 4칸 구성으로 오른쪽 두 번째 칸에 대문간을 두고 왼쪽으로 사랑방과 작은 방을 연이어 두었다. 작은 방은 안마당 쪽으로만 출입문을 달았고 사랑방은 대문간과 바깥마당 쪽에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근에 바깥마당 쪽은 창으로 개조하였다. 대문간 오른쪽에는 외양간을 두고 안쪽으로 꺾어 광을 두었다.



그림 37. 김두석 가옥 전경 (1)



그림 38. 김두석 가옥 전경 (2)

- 외양간 앞쪽으로는 퇴칸을 두어 나뭇간으로 사용하였다. 대문간에는 바깥 마당 쪽으로 바깥대문을 달고 안마당 쪽으로도 안대문을 달았다. 판 문으로 짠 두 대 문은 엇비껴 놓아 내외를 구분하였다. 행랑채의 가구는 평사랑 구조이고, 지붕은 초가였으나 현재는 골함석을 이은 팔작지붕이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고 외양간이 있는 동쪽 외벽에는 중방까지 화방벽을 쌓았다.
- 김두석 가옥은 안채와 행랑채의 평면구성 부재치목 벽체마감 등에서 반가의 기법이 채용된 민가로서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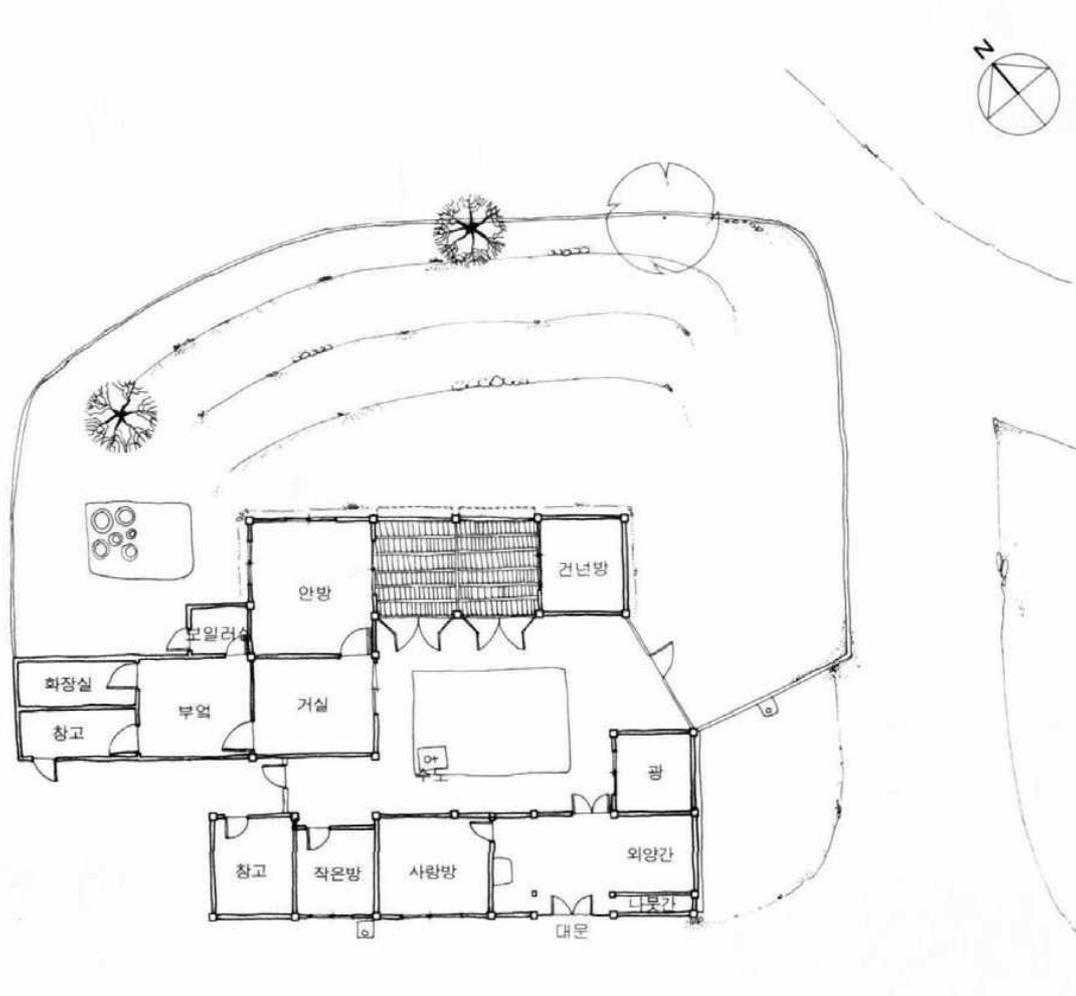


그림 39. 김두석 가옥 평면배치도 (경기도건축문화유산, 2000)

○ 종현동 속말 김태덕 가옥

- 소재지: 단원구 속말길 39(대부북동 1323-1)
- 김두석 가옥의 동쪽으로 한집 건너에 김태덕 가옥이 위치하고 있다 . 1952년(檀紀四二八五年壬辰)에 건립되었다. 가옥의 형태는 안채와 행랑채의 지붕을 하나로 연결한 열린口자형으로 구성되었다. 김두석 가옥을 모본으로 하여 실용성을 위주로 변형한 모습이다. 특히 행랑채의 바깥 마당쪽으로는 3칸에 걸쳐 화방벽을 쌓고 폐쇄적인 벽체를 구성하여 김두석 가옥에 비해 외부공간으로의 연결보다는 내부 지향적인 배치를 보여준다. 행랑채 외부화방벽 상부에는 벽돌을 사용하여 시기의 변화에 따른 사용재료의 변천을 알 수 있다.



그림 40. 김태덕 가옥 전경



그림 41. 김태덕 가옥의 안채와 안마당

○ □형 민가의 전형적인 모습은 남3리에서도 발견된다. 이들 가옥들은 건립연도가 오래 되고 전통가옥의 기본 형태로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이들 가옥을 잘 보수하여 유지하면서 민박으로 활용하면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5. 대상 마을의 문화·역사·관광 자원

(1) 역사적 자원

가. 고려시대 석곽묘와 토광묘 (안산시청, 안산시사편찬위원회b, 201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217-1번지 육곡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육곡 주민들과 향토사학자들이 산의 경사면에 파괴된 채로 노출된 석곽묘들을 일부 확인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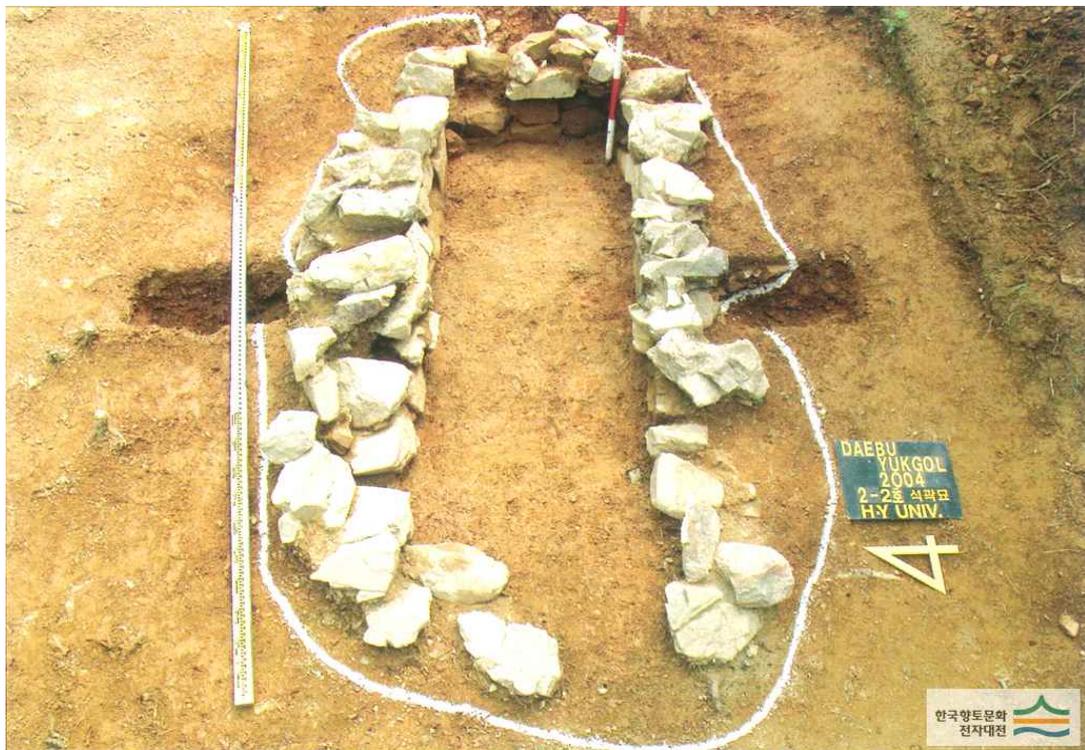


그림 40.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 10호 석곽묘
(안산시사편찬위원회b, 2011, 안산시사 4권; 371)

○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은 대부남동 산217-1번지 일대의 산사면에 훼손된 채로 노출되어 있었고, 마을 주민과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확인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분군이 위치한 곳의 지명은 6개의 골짜기가 있다 하여 '육골'이라 불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육곡. 六谷'이 된다. 안산시에서는 더 이상의 유적의 파손을 방지하고 고분

군의 정확한 성격을 밝히고자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의뢰, 2002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석곽묘 10기와 토광묘 37기 등을 발굴 조사하였다.

○ 1차 조사에서는 석곽묘 8기, 토광묘 17기 등을 확인하였으나 조사기간이 짧고 동절기에 실시된 관계로 석곽묘6기와 토광묘7기만 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때 미 조사된 석곽묘 1기와 토광묘 10기를 조사하였고 새롭게 석곽묘 2기와 토광묘 20기 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 확인하였던 제6호 석곽묘는 현재까지 존재한 민묘와 중복되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 발굴 결과 고려시대 고분군으로 확인되었고 조성연대는 12~14세기로 파악되었다. 유물은 토기병(土器瓶), 관정(棺釘), 청동발(靑銅鉢), 청동분합, 청동수저, 청동동곳, 은제동곳, 철제보습, 옥玉과 더불어 각종 청자와 백자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제7호 토광묘에서는 문서나 서신 혹은 물목物目등을 봉하는 데 사용된 인장으로 추정되는 청동인장(靑銅印章)이 발굴되어 주목된다. 고분군의 피장자는 추후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중국과의 교역에 종사한 상인집단이거나 고려의 하급 관리들로 추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육곡 고분군은 고려시대 서해 도서지역의 장제(葬制)와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안산시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려사 연구의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은 고려시대 안산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안산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 출토 유물
(안산시사편찬위원회b, 2011, 안산시사 4권; 371)

나. 패총 (안산시사편찬위원회b, 2011)

○ 구봉이 패총 1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북동 산35-1

대부북동 구봉이에 위치한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에 형성된 패총이다. 안산에서 시화 방조제를 건너 대부도에 이르러 약 1km가량 남진하면 구봉이로 갈라지는 편소로가 나온다. 소로를 따라 다시 1km 정도 가다 우회전하면 구봉이에 이르게 되는데, 산 정상 남동쪽 하단부 구릉사면에 넓게 분포한다.

패총은 표토 아래 5~10cm에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패각층이 형성된 지점은 길이 15m, 두께 50cm가량이며, 순패각층으로 보인다. 예전 보고에 따르면 패총 하단에서 무문토기 조각을 대량으로 수습하였고, 지표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을 수습하였으나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 구봉이 패총 2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북동 산27

패총은 종현어촌체험마을 안에 있으며 군사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진입하면 된다. 구봉이는 대부도 북편에 있는 산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는 77.5m이다.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패총은 산의 서사면에 형성되어 있는데, 산과 접하여 만들어진 계곡부 주변에 주로 형성되어 있었다. 군사시설로 인해 노출된 패각의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고 했는데, 최근 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고되었던 패총은 멸실된 것으로 보이며 산사면에서 흘러내린 패각들만 확인된다.

○ 대부북동 패총 1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북동 산45-2

시화방조제를 건너 대부도에 진입하여 남진하면 구봉이 방향으로 들어서는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회전한 후 바로 다음 삼거리에서 바닷가를 따라 북쪽으로 1km 정도 가다 보면 바다와 면한 절벽 위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었다. 패총이 확인된 산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으로, 패총은 해발 58.3m의 산이 바다와 접하는 남서쪽 하단부에 위치한다. 패각의 자세한 범위는 알 수 없으며 두께는 40~60cm 정도이다. 과거 조사에 의하면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수습된 바 있다.

○ 대부북동 패총 2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북동 산48-2

시화방조제를 건너 대부도에 진입하여 남진하면 구봉이로 들어서는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회전한 후 바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 모텔이 나오고 그 앞에서 우회전하여 바닷가까지 진입하면 회센터가 나온다. 패총은 회센터 바로 뒤편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곳은 산의 남사면 하단부에 해당한다. 패각의 분포범위는 길이 약 8m 정도이며 깊이는 드러나 있는 부분이 60cm 이상으로 바닥까지 노출 되지는 않았다. 패각은 주로 굴껍데기로 이루어진 혼토패총(混土貝層)이며, 유적의 형성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 종현동 패총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북동 1420-1

이전 보고에 따르면 낮은 구릉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포도밭의 정상부 절단면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당시 패총이 있던 자리에 포도경작을 위한 수로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으로 패총이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 섬창골 패총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북동 1682

패총은 종현동으로 넘어가는 산의 샅길에 노출되어 있다. 패각은 약 10m에 걸쳐 있으며, 노출된 패총은 두께 40~60cm, 높이 2~2.5m이다. 형성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다와 떨어져 있고 인근에 주거행위가 있었을 만한 지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패총이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옛 지형을 추정할 만한 유적으로 사료된다.

○ 중부흥 패총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남동 170-3

대부도 읍내 삼거리에서 말부흥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2km 정도 가면 중부흥 마을이다. 민가의 반대편에 쓰레기 소각터가 있으며 주위의 절단면에서 패총을 확인할 수 있다. 패총은 마을로 들어서는 소로를 만들면서 많이 훼손되었고, 쓰레기 소각 등으로 더욱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패총 주변에서 조선시대의 자기 조각을 확인하였다.

○ 대부남동 패총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남동 산186-12

신석기시대 패총이다. 시화방조제를 건너 대부도로 진입한 후 영흥도, 선재도 방향으로 진행하다보면 한사위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좌회전한 후 농원 앞에서 우회전해서 직진하면 바닷가에 이르게 되는데, 패총은 바닷가와 만나는 시멘트 포장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선재도와 연결되는 선재대교의 주변 지역에 해당되며, 패총은 해발 23.5m의 낮은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유적의 범위는 길이 약 16m, 두께 50~70cm였다고 하나 산으로 길을 내면서 깎여 나가 현재는 길이 약 2m, 두께 30~40cm만 남아 있다.

○ 말부흥 패총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남동 산388

말부흥마을의 도로가 끝나는 곳 해발 약 40m 정도 구릉의 7부 능선 쪽에 바다를 면해 패총이 남아 있었다. 원래는 해안지대에 널리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닭사료용으로 파내어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대부분이 굴껍데기인데 두터운 곳은 약 110cm 정도의 두께로 남아 있었다. 유물은 타제석기 1점만이 수습되었는데 백색의 규암제 넷돌의 끝 부분과 옆 부분을 깨트려 만든 것이었다.

○ 흘곶 패총 1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남동 산331-1

대부도 읍내에서 대남초등학교를 지나 약 2.5km 더 가면 도로 우측에 유적이 위치한다. 흘곶패총은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서해도서 지표 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되어 학계에 처음 알려졌다. 이후 1999년 경기도박물관에서 실시한 '도서해안지역 지표조사'때 재조사를 하였으나 지표에서 유물을 수습하지는 못하였다. 2002년에는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층위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표토층, 흑갈색 혼토패층, 황갈색 혼토패층, 적갈색 사질점토층, 풍화암반층 등 5개 층으로 구분된다. 출토유물로는 빗살무늬 토기 조각과 석기류 등 모두 100여 점이 확인되었으며, 전체 층위에서 고르게 출토되었으나 특히 2층(흑갈색 혼토패층)과 4층(적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대체로 중서부지방의 포탄첨저형을 띠고 있으며, 구연부와 동체 상부에만 시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기는 마제석부, 화살촉, 갈돌이 각 1점씩 출토되었으며 용도가 불확실한 타제석기도 몇 점 출토되었다.

○ 흘곶 패총 2

- 소재지 : 단원구 대부남동 산361

대부남동 흘곶패총 1에서 도로를 따라 바닷가 쪽으로 계속 가면 우측 해발 18m의 구릉 하단부 절단면에 패총이 노출되어 있었다. 패총은 메추리섬으로 가는 길목으로 주변은 포도밭으로 경작되어 있다. 패총의 길이는 6m 정도이며, 적어도 두 시기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토 바로 아래에서 30cm 두께의 굴껍데기로 이루어진 혼토패층과 이 패각층의 60cm 아래에 40cm 두께의 굴껍데기로만 이루어진 순패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패각층 사이의 두께로 보아 형성 시기는 상당기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습된 유물이 없어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다.

○ 불도 패총 1

- 소재지 : 단원구 선감동 산143-1

신석기시대 패총이다. 불도마을로 진입하면 우측에 좁은 샛길이 나오는데, 패총은 이 샛길을 따라 절토된 경사면에 노출되어 있다. 패각은 지표면 바로 아래에 형성되어 있으며 패각층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패총은 굴껍데기로 구성되어 있는 혼토패층이었다. 패각이 노출되어 있는 범위는 길이 약 15m, 두께 20~30cm로 패각층은 비교적 얇은 편이다. 기존의 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 불도 패총 2

- 소재지 : 단원구 선감동 산134

청동기시대 패총이다. 대부도에서 선감도를 지나 방조제를 건너면 불도에 이르게 되는데, 왼쪽으로 산 아래를 따라 비포장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따라 1km 정도 진행하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왼편의 소로를 따라 진입하면 동쪽으로 노출된 패총이 보인다. 송전탑 방향에서 볼 때 북서쪽에 위치한다. 패각층 바로 아래는 암반이며 혼토 패층이다. 패각이 노출되는 범위는 길이 약 25m, 너비는 10~15m 정도이다. 암반 위에 있어 깊지는 않았다.

○ 탄도 패총 1

- 소재지 : 단원구 선감동 681-9

대부도 읍내에서 수원 방향으로 계속 남진하면 선감도, 불도를 지나 탄도에 이르게 된다. 패총은 탄도의 최남단지역으로 안산어촌민속 박물관 북서쪽 나지막한 구릉 위에 형성되어 있다. 구릉의 서쪽 부분은 도로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동쪽은 민가가 들어서면서 일부 훼손이 되었다. 도로에 의해 절단된 서쪽 면의 상황으로 미루어 패각층의 범위는 길이 약 15m, 두께 40~120cm 정도이다. 패각층을 이루는 패류는 위층은 조개류이고, 아래층은 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탄도 패총 2

- 소재지 : 단원구 선감동 산147-1

신석기시대 패총이다. 대부도에서 탄도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면 왼쪽으로 대부광산 퇴적암층이 있다. 기존 보고에 따르면 패총은 대부광산으로 사용되어 절단된 2개의 봉우리 사이에 위치하였고, 패각은 채석작업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직경 1~2m만이 남아 있으며 빗살무늬토기 조각과 무문토기 조각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최근 조사에서는 패총의 흔적을 찾지 못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 탄도 패총 3

- 소재지 : 단원구 선감동 680

원삼국시대 패총이다. 대부도에서 남진하여 탄도에 이르면 식당가가 밀집되어 있고 우측으로 숙박업소들이 위치하는데 패총은 동쪽으로 난 소로에서 사면 구릉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패각을 이루는 주요 패류는 굴이며 혼토패층이다. 패각의 범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길이는 약 15m, 폭은 약 10m, 깊이는 유적의 양상으로 보아 50cm 이상으로 여겨진다.

(2) 문화적 자원

가.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 (안산시사편찬위원회c, 2011)

○ 대부도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은 ‘바지락칼국수’이다. ‘디지털안산문화대전’에서는 바지락칼국수의 연원과 변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부도에서 바지락칼국수를 처음 먹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대부도에서 칼국수의 재료인 밀농사를 거의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6.25전쟁 이후 먹을 양식이 부족했던 시절 미국의 원조로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왔고 이를 이용해 만든 음식이 칼국수이다.

○ 일반 가정집에서 끓여 먹던 바지락 칼국수가 음식점의 메뉴가 된 것은 대부도에 많이 있던 염전들 때문이었다. 염전에는 많은 염부들이 일을 했는데,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칼국수를 점심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그 뒤 본격적으로 칼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생기게 된 것은 대부도와 주변 섬들을 연결하는 방조제가 건설되던 1980년대 후반이다. 대부도는 원래 선감도, 불도, 탄도 등 인근 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이 섬들이 각각 방조제로 연결되었고 이때부터 건설 현장 인부들, 관광객 등 외지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게 되었다. 그때 선감도와 대부도 본섬 사이를 잇는 방조제 부근에서 그 동네(당시 신당리) 사람들이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바지락칼국수 식당을 연 것이 바지락칼국수 전문점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림 44.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

○ 대부도는 칼국수의 탄생지이며, 현재 전국에서 바지락칼국수는 판매하는 음식점의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200여 곳의 식당 가운데 135곳 (71%)이 바지락칼국수를 판매하고 있었다. 아직 바지락칼국수는 수도권 해안지역의 식당에서 우세하지만 점차 시내나 육지 쪽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여겨진다(그림 45). 바지락이 다산하는 태안, 부안, 장흥과 고흥지역에는 바지락회나 바지락죽과 같은 다른 음식문화가 존재한다(제종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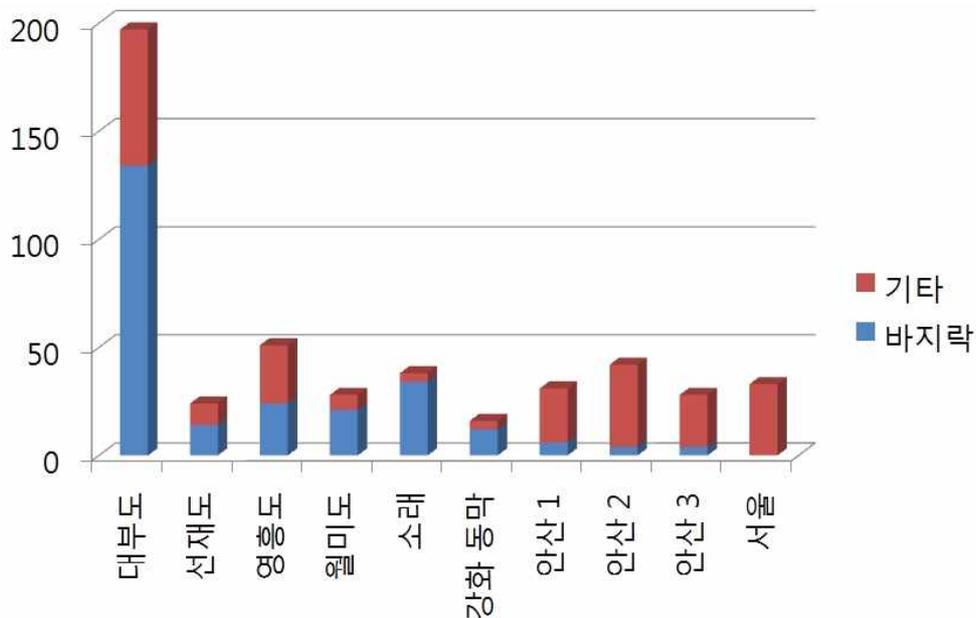


그림 45. 수도권 지역별 바지락칼국수의 판매점 수와 비중

나. 어구

○ 대부도의 두 마을(종현동과 남3리)에는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 부분은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다. 최근(2013년 후반)에 남4리에서 개최된 전통어업과 종현동에 개최된 전통 굴음식 행사 등에 나타난 전통어법과 조리법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다. 대부도 포도 (안산시사편찬위원회c, 2011)

○ 대부도는 해산물 말고도 포도가 특산물로 유명하다. 1954년에 대부북4리 정경선이 캠벨 50여 주를 심기 시작하여, 1977년에는 대부동리 김봉환, 김한규 등 이 포도재배를 시작했다. 1980년부터 본격적인 포도재배가 시작되었는데,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 방풍막을 치는 비가림포도가 유명하다. 1995년부터는 대부포도축제를 시작하였고, 1999년부터는 포도가 수확되는 9월에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그린영농조합에서는 2000년부터 큰 언덕이라는 뜻의 ‘그랑꼬또’라는 이름으로 대부도포도를 이용한 와인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림 46. 대부도식 재배방법인 비가림 포도

(3) 대부도 주요 관광자원 (안산시청 홈페이지)

가. 갯벌 체험

○ 대부도는 갯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갯벌 체험 학습장을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갯벌 체험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탄도, 선감도, 종현동 유어장(어촌계)이며, 이 곳에서는 갯벌의 생태를 배우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교육’, 소라와 낙지에 대해 배워보는 ‘어장체험’ 등 다양한 갯벌체험이 가능하다.

- 또한 체험이 끝나고 채취한 수산물을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친환경 관광마을로 홍보하고 있다.

나. 동주염전

- 1953년부터 염전을 시작해 지금까지 재래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고 있으며, 대부분 염전들이 장판을 사용하는데 반해 동주염전은 옹기와 타일을 활용해 천일염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금의 맛이 담백하고 모양이 일정한 사각형을 띄며 특히 미네랄과 염도가 높아 우수한 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 염전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소금을 생산해보고, 옛날 소금 창고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주염전은 2009년 환경부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생태관광 20선에 채택된 곳이기도 하다.

다. 탄도 바닷길

- 탄도에서 1.2km 떨어진 무인도 누에섬의 등대전망대와 썰물 때 하루 두 차례 4시간씩 드러나는 갯벌은 근처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이다.

라. 구봉도와 해솔길

- 구봉도는 봉우리가 아홉 개라 붙여진 이름으로 해별길을 따라 펼쳐진 모래사장 옆으로 거대한 바위가 위치하고 있다. 작은 바위는 ‘할매바위’, 큰 바위는 ‘할아배바위’로 부르고 있다. 솟아 오른 두 개의 바위 사이로 보이는 해넘이가 장관으로 유명하며 구봉도의 출발 야영장은 최근 캠핑족들에게 각광을 받는 명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낚시하는 사람들과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갯벌을 많이 찾고 있으며, 트래킹 코스와 각종 수상 레포츠가 가능하여 꾸준히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최근에는 구봉도를 출발하여 대부도 해안가를 걷는 ‘해솔길’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마. 쌍계사

○ 쌍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다. 1689년(조선 숙종 15년)에 창건되어 창건 당시에는 수정암(水井庵)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근에서 1576년(선조 9년)에 만들어진 기와가 발굴된 것으로 보아 1576년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편찬한 <가람고(伽藍考)>에는 사찰 이름이 쌍계사(雙鷄寺)라고 적혀 있고, 1799년(정조 23년)에 편찬된 <범우고(梵宇攷)>에는 현재의 절 이름인 쌍계사로 나온다. 1641년(헌종 7년)에 절이 파괴되었으며, 1869년(고종 6년) 12월에 중창했다. 건물로는 극락보전과 요사채 2동이 있고, 유물로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아미타후불탱화, 현왕탱화, 신중탱화, 독성탱화, 지장탱화 등이 있다. 그밖에 인근에 부도가 남아 있으며 명문이 적힌 기와조각이 많이 발굴되었다.

바. 대부도 주요 관광지 현황과 주민 인식

○ 2013년 10월 현재 대부도의 주요 관광지는 유료 입장이 가능한 관광지와 무료 입장이 가능한 관광지로 크게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안산 시티투어와 유리 박물관,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을 비롯한 유료 관광지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 4개 년도의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10년 기준 66,000여명에서 928,000여명으로 약 13배 정도 관광객 방문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 반면, 누에섬 등대 전망대를 비롯해 2012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안산 시화호 조력 발전소 등의 무료 관광지 방문객은 137,000여명에서 1,433,000여명으로 약 10배 정도 관광객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지난 3년 여간 양적으로 팽창한 것은 분명하나 어촌체험마을과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조력발전소 방문 등의 친환경적 관광 아이템은 일부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레저와 축제 중심의 관광객 방문이 주로 제공되고 관리되어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 과도한 소비와 환경 파괴를 지양하며, 일부 기업이나 외부 자원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게 하자는 생태관광적 측면에서 장

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극히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향이라 볼 수 있다.

표 14. 대부도 주요 관광지 방문자 현황

<안산시청 제공>

구분	관 광 지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월말	비 고
총 계		204,331	167,139	841,492	2,362,337	
유 료	소 계	66,990	66,907	355,809	928,351	
	안산시티투어	3,345	3,173	3,726	4,495	
	안산어촌민속박물관	63,645	63,734	56,441	65,239	
	NCC골프클럽				186,000	
	아일랜드리조트				43,428	
	종현어촌체험마을			17,842	47,267	
	선감어촌체험마을			24,000	98,422	
	대부도펜션타운			175,000	237,000	
	대부도유리섬			18,800	82,500	
	동춘서커스			60,000	65,000	
	베르아델승마클럽				21,000	
	안산밸리룩페스티벌				78,000	관광과
무 료	소 계	137,341	100,232	485,683	1,433,986	
	누에섬등대전망대	33,617	37,425	44,892	44,653	
	안산시화호조력발전소 (T-Light공원)			400,000	1,347,000	
	대부바다향기튠립축제				10,000	시민공원과
	전국노래자랑				3,000	문화예술과
	경기국제보트쇼	103,724	62,807	37,697		해양수산과
	대부관광안내소			3,094	29,333	관광과

○ 이러한 현황은 2013년 (사)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 발간한 관련 보고서(해양생태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대부동 지역 생태관광 및 문화예술 자원조사 연구)에서 관광지로서 대부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응답을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도 내 주요 산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주요 산업이 농업이라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59%)로 나타났고, 관광업이라고 하는 응답자는 23.3%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대부도에서 육성시켜야 할 산업에 대한 질문에서는 관광업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7.7%로 다른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산업인 농업에서 관광업으로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후 정부의 지원 등이 뒷받침해준다면 관광산업에 임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 더욱이 대부도 지역주민들은 대부도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질문에는 환경보전이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과 경제 활동을 위해서 생태자원의 훼손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현재 대부도의 자연환경 훼손요인을 주로 “관광객의 증가”, “관광지 조성과 도로확충 등의 개발사업”, “시화방조제의 영향”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관광산업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존재하되 무분별한 관광에 대한 경계 또한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또한 생태관광에 관련한 질문에서 지역주민들은 생태관광에 대해 사전에 어느 정도 보통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생태마을 조성과 참여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인 “자연환경보존”이 대부도 생태관광의 향후 방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7.2%로 전체의 절반 정도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의 소득증대”라고 대답한 사람이 22.5%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의 대부도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 의지 또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생태관광을 실제 마을에서 실시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기본 의식 수준 자체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매우 큰 기회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47. 지역주민들의 생태관광에 대한 기본 의식

○ 지역주민과 대응하는 주체로서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대부도의 관광 매력요소는 “갯벌 → 칼국수, 조개구이 등 음식 → 해안선, 낙조 등 바다경관 → 포도밭 등 농촌경관 → 시화방조제 → 펜션단지 → 수도권 인접성 → 해산물 → 축제와 같은 지역문화 → 마을경관 → 동네 인심, 마을 사람들”의 순으로 나타나 자연환경 요소와 문화 요소 등의 고른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 그러나 관광 불편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장 큰 불편 요소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의 부재”를 꼽았고, “열악한 도로·불충분한 대중교통수단”, “현지의 비싼 물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2013년 (사)연안보전네트워크의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대부도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생태관광의 기본이 되는 자연환경보전 관련 인식은 이미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생태관광이 지니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어 대부도 마을에 생태관광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반이 마련된다면 서울 및 수도권 도시에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대부도의 특색있는 관광, 더욱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중심 관광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4) 대부도 관광 관련 계획

○ (사)연안보전네트워크(2013)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여 동안의 대부도 관광과 관련한 계획 및 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았다.

표 15. 대부도 관광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년월	제목	주요내용	발행처
2002. 9.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보고서	구봉지구, 선감, 쪽박섬, 메추리섬, 골프장 등 유원지 개발계획	안산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2004. 5.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계획	선감해양휴양관광단지, 쪽박섬유원지, 메추리섬 유원지, 골프장 개발, 방아머리 어항 개발, 탄도항 어항개발, 전원주택 개	안산시

		발, 황금산지구 개발, 실버타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등 21개 사업	
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2006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한국수자원 공사
2006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대부도(선감)에 해양휴양관광단지 조성, 대부도~전곡항~제부도를 잇는 해양레저관광지 조성	문화관광부
2007	제4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007~2011)	해양체험관광 상품개발의 일환으로 선감어촌체험마을의 육성	경기도
2007	제2도립 수목원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 (2007.08)	제2도립수목원 조성 및 주변해양자원 연계 유원지 조성계획	경기도
2008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안산시
2009	2020 안산비전	구봉지구, 선감 해양휴양관광단지, 시화조력발전소, 메추리섬 유원지 개발계획	안산시
2010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국토해양부
2011	제3차 관광활성화 종합 추진계획(2012~2021)	서해안의 역사문화와 해양레저를 융합한 '서해안 관광벨트' 권역에 포함되어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국제해양레저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별 체류형 휴양위락 단지를 개발	문화체육 관광부
2012. 2.	대부도 유원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구봉, 선감, 메추리 유원지 계획, 관광객/전문가/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안산시 ((주) 삼안)
2012. 3.	제5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012~2016)		경기도

○ 위 보고서에서 정리한 계획 및 정책 동향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도 지역의 유원지를 조성하려는 계획, 레저나 휴양 관련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02년부터 꾸준히 레저, 휴양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환경친화적,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에 비추어본다면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 다만, 어촌체험마을을 육성하고 해양체험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제2도립 수목원 조성과 주변 해양자원을 연계하려는 노력 등이 생태관광이 추구하는 지역 중심, 생태 중

심, 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활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III. 해양생태관광마을 만들기

1. 생태관광마을 만들기

(1) 생태관광마을의 조성 원칙

- 생태관광마을은 생태관광의 원칙인 보전과 지역사회(커뮤니티)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여행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의 통합에서 시작한다.

- 생태관광을 주도하는 생태관광마을 조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생태관광 마을 조성에 있어서 자연적, 문화적, 마을 공동체(커뮤니티)의 충격을 최소화 한다.
 - 마을 주민들의 환경적, 문화적 인식과 존중감이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간다.
 - 생태관광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맞이하는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연적, 문화적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적 투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역량 강화와 재정적 투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태관광마을이 속한 관련 국가 정책, 환경,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대부도 생태관광마을 만들기 과정

- 이 연구에서 생태관광마을 만들기를 위한 제안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대부도 내 대상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조사를 통한 기존 자연과 문화 자원을 목록화 하고, 생태관광마을에 적용가능한 자원을 도출한다.
 - 문헌 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전통적 맥락에서의 지역 상황을 이해하여 단순한 생태적 측면에서만 생태관광마을 계획을 지양하고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생태관광마을이 되도록 고려한다.

2. 생태관광마을의 유형

○ 대부도 내 대상마을인 북2리와 남3리 생태관광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생태관광마을의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백화점식 마을 만들기가 아닌 두 마을의 특성에 따른 마을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적 생태마을 네트워크인 Global Ecovillage Network (<http://gen.ecovillage.org>)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마을의 분류는 공동체/커뮤니티 중심 마을, 생태 중심 마을, 문화/영성 중심 마을, 경제 중심 마을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공동체 / 커뮤니티 중심 마을 (Social/Community dimension)

- 생태마을은 마을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한 그룹으로써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임. 이 작은 그룹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통해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함.
-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서로 인정하기
-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간의 돕기
- 커뮤니티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함께하고 모든 구성원의 생계적 문제 해결
- 최하위 그룹의 통합
- 다양성을 존중하고 통합

- 생태 중심 마을 (Ecological dimension)

- 생태마을은 사람들 개인과 살아있는 지구가 맺어가는 경험임. 사람들은 토양, 물, 바람, 식물과 동물들과의 매일의 상호작용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들이 필요한 음식, 옷, 보금자리 등을 순환하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 커뮤니티의 생태 지역 내에서 가능한 작물 재배
- 유기농 중심의 생산
- 마을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 활용
- 생태 경제 원칙 준수
- 적당한 에너지와 폐기물 관리를 통한 깨끗한 토양, 물, 대기 보전
- 야생지역과 자연지역의 보전

- 문화 / 영성 중심 마을 (Cultural/Spiritual dimension)

- 모든 생태마을이 문화적, 정신적 구심점으로 모여있지는 않지만, 지구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문화적, 예술적 풍부성과 표현이 정신적 범주에 포함
- 독창적이고 예술적 표현, 문화 활동, 종교적 활동의 나눔
- 커뮤니티의 통합과 구성원간의 교류와 정신적 의지
- 문화적 유산, 각 커뮤니티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고 가꾸는데 필요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공유

- 경제 중심 마을 (Economic dimension)

- 생태마을의 경제는 다른 지역 경제에 비해 건강하고 강함
- 가능한 커뮤니티 안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
- 마을 경제는 구성원들을 통해 벌어들이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

표 16. 국제 생태 네트워크(GEN: Global Eco-village Network)에서 제안하는 생태마을 구분

	
<p>공동체/커뮤니티 중심 마을</p>	<p>생태 중심 마을</p>
	
<p>문화/영성 중심 마을</p>	<p>경제 중심 마을</p>

- 이를 기초로 생태마을과 마을 만들기의 측면에서 근원적 기반을 함께 하고 있는 생태관광마을에서는 공동체를 통한 마을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주체적 참여를 기초로 하고, 마을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 중심 생태관광마을, 문화 중심 생태관광마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구분에 비추어 본다면,
 - 대부도 북2리 종현동 속말 마을은 위치상 대부도를 가로지르는 중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으로, 이전에 경험이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만 남은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을 확장하고 수정 보완한 문화 중심 생태관광마을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 대부도 남3리 학란골 마을은 풍부한 해안습지와 논습지, 염생식물 군락 등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 중심 생태관광마을로 구성함으로써 마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자원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대부도 북2리(종현동 속말), 남3리(학난골) 주요 시설 배치

(1) 대상 마을 지명 유래 및 생태관광적 의미

가. 북2리(종현동)

○ 첫 번째 대상지인 북2리는 대부도 북단 방아머리 해수욕장 방면 진입부에 위치한 마을로 예로부터 종현동이라 불리는 지역이다.

○ 종현동(鐘懸洞)이란 지명은 조선 인조 임금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조 임금이 병자호란으로 피난 중에 잠시 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신하에게 앞에 보이는 숲 속에 우물이 있을 것 같으니 물을 찾아보라고 손으로 가리켰다 한다. 신하가 급히 그 곳으로 들어가 찾아보니 실제 조그만 우물이 있어, 신하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은 단숨에 물을 마신 후 이 우물을 왕지정이라 칭하고 기념으로 쇠로 만든 종을 하사하셨다 한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마을을 종현동(鐘懸洞)이라 칭하였다 전해진다(안산시사 5권, 2011.11.30. p447).

○ 북2리 종현동(또는 종현마을)은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어 어촌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은 쌀과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대략 100여 세대가 살고 있으며, 대부도 전체에서 논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여 예전부터 농사를 주로 짓고 어업은 부업으로 진행한 곳이다.

○ 종현동에는 고깔섬, 돈지섬, 구봉도라 불리우는 작은 섬들과 작은 에메기, 여수갯골 등의 갯골이 있으며, 해안의 늘어진 모양이나 굴곡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불리우는 지형이 있고, 각 지명의 유래와 생태관광적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안산시사 5권, 2001. 홍성운(1930.6.1.) 대부북동 1291, 김복동(1928.8.5.) 대부북동 1279 구술).

- 고깔섬 : 구봉이 건너편에 있는 작은 무인도로 고깔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깔섬 갯골은 골이 깊고 좁으며 풍량이 잘 인다고 한다. 북2리(종현동) 생태관광마을 부지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생태관광적 측면에서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돈지섬 : 구봉이 옆전 저수지 서쪽에 있는 새둥지처럼 생긴 작은 섬으로 둥지섬이 변음되어 돈지섬으로 부르는 곳이다. 섬의 자연적 위치, 자연자원적 가치와 함께 지명 유래에 관련한 스토리텔링으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구봉도(九峰島) : 봉우리가 아홉 개로 된 구봉리는 대부도의 대표적 지역 중 하나이며, 구봉 염전이 천일염전이 되면서 제방을 축조하여 연육이 되기 전까지는 섬이었던 곳이다. 돈지섬과 함께 옛 지명과 지리적 변화에 이르는 스토리텔링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 선돌살(구봉이 돌살) : 구봉이 선돌 쪽에 고기 잡는 살을 났 때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살에 물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곳이었다 해 이름 붙여진 지역이다. 훌륭한 생태관광 자원이다.
 - 작은 에메기 : 두우현재빠기 다음 갯골이 있던 곳의 물목이다.
 - 여수 갯골 : 북3리 쪽에 있는 큰 산줄기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이 모여 물이 흔하여 남아 돌아나가는 갯골이라 하여 여수(餘水)갯골이라 한다.
 - 느릿개 : 해안이 길게 늘어졌다 하여 느릿개라 부른다.
 - 느리(느리뿌리) : 해안의 굴곡이 느리고 긴 갯장술을 말하며 이러한 곳에 있는 산을 느리큰산 또는 느리뿌리로 부른다.
 - 기타 : 고깔섬 끝 돌살로 고기가 많이 잡히던 곳에서 유래한 “고깔이 돌살”, 북3리(종현동) 앞 논뜰의 경우 갯벌이던 곳을 방죽으로 막아 논으로 만든 곳이라 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선창방죽논뜰”로 칭한다.
- 종현동의 특색있는 문화 중의 하나는 “당고사”가 있다. 예부터 “잘 위하면서 자손만대 잘 되도록 해 달라”고 매년 정월보름에 당고사(당제)를 행하였다고 한다. 제당은 족히 몇 백 년은 되었을 ‘보기 좋은’ 소나무 4~5 그루였으며, 그 터는 마을 최고 부자의 소유였다. 그 조상들이 당을 위하였고 마을 주민도 당을 위하였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제당 터의 주인인 대부도 초대 면장이었던 분의 후손이 제당 터를 외지인에게 매각하였고, 그 외지인이 당을 없애면서 당제는 약 50년 전에 중단되었다. 그 후 마을에서는 터를 희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 복원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한다.
- 종현동 주민 간략 인터뷰에 의하면, 이전 종현동 마을은 왕지정 우물을 복원하고 관광 진흥을 위해 벽화를 마을에 일부 그리기도 했지만, 크게 관광객을 유치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 체험의 경우, 포도 따기 체험이나 감자 캐기 체험 등의 농업 체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체험 마을 농업인이 별 이득이 없어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국지적인 작은 노력은 간간히 있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장기 계획이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이지는 않으며, 현재 어느 정도 소득수준 유지로 인해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고 파악되었다.
- 위의 사항들은 종현동(속말)이 생태관광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잠재적으로 위협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반대 측면에서 기존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마을로의 변화를 위한 안정적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간략 인터뷰에서 요청된 사항 중 하나인 마을마다 고기를 잡는 독특한 방식을 관광 상품화하는 전략이나 다양한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갖추는 등 소프트웨어적으로 단단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남3리

- 두 번째 대상지인 남3리는 산세가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태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학난골이라 불리고 있다. 남3리(학난골) 주변에도 다양한 명칭의 지명이 있다.
- 학란골이라 불리우는 이 지역은 14통 일대로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 하여 학난골(鶴卵谷)이라 이름 하였다. 학란골은 행낭골 이라고도 부르는데 조선시대에 말을 돌보는 목부와 감독관들이 잠을 자던 행랑이 있었던 곳이라 행낭골(行廊谷)이라 했다고 한다. 이 지역에 위치하는 다른 지역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장마루 : 다른 갯벌보다 빨이 깊어 잘못하면 빠져 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옛날에 말을 키울 때 이 빨로 몰아넣어 잡아 먹었다하여 말을 죽여 영장하는 곳이라 영장말, 이 영장말이 다시 영장마루로 불리워짐.
 - 장거리(장자여) : 밀물 때 걸어서 건너가는 길이 4~5m 정도 되는 큰 여.
 - 옷뿌리 : 고래옷뿌리라고도 하는데 장거리여로 가는 바위줄기가 고래모양의 형태라 하여 붙여진 이름임.
 - 고래뿌리 : 고래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는 김 양식장 시설이 들어서 있음.
 - 서근여 : 고래 뿌리 동남쪽 밖에 있는 여(岩)로 간조 때 연육이 되어 서서 건넌다고 해서 서근여란 이름이 붙여짐.
 - 아침서근여 :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배들이 의지하여 피하던 곳으로 아침녘에 서서 건너던 여라고 함.
 - 두몽 : 남3리와 4리의 경계선상에 있는 갯골로 옛날에 백마(白馬)가 나온 자리라고 하며 무척 깊은 곳이었으나 지금은 메워졌음.
 - 긴장술이 : 해안가가 긴 자갈밭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지리적 명칭은 그 유래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의 예전 모습과

자연적,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지역주민 삶과의 연관성, 생활모습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스토리를 내재한 좋은 생태관광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남3리 지역주민 간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 지역은 마을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도 관광객이나 어항 옆 횃집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데, 펜션이나 민박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촌계에서는 이 지역이 너무 알려져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이 지역은 낙지도 유명하여 가을에는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동죽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었고 어촌계에서는 망둥이 낚시와 낙지잡기 체험을 운영(고래뿌리 지역)하고 있다.

○ 관광객 방문에 대한 지역의 다른 견해 차이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적정 관광객 수용력과도 관련이 된다. 지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관광 수요가 가능하도록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2) 북2리(종현동 속말) 마을의 현재 자원 지도화 (Mapping)

○ 북2리(종현동)의 속말은 위치상 대부도 입구이며, 도로에서 산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 내에는 갯벌이나 해안이 직접 속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북2리 대로변에서 해안 쪽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포도밭과 갯벌 그리고 염습지가 있는 이들 해안생태관광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현재 북2리(종현동 속말)는 뚜렷한 문화, 역사 자원이나 특별한 자연 자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구릉지라는 지형상 특성으로 인해 정상부에서는 맑은 날 앞쪽 해안까지 한 눈에 보이는 트인 경관과 도시에서 찾기 어려운 마을 골목길과 대부도의 특징인 “ㄱ”자형 가옥들로 인해 외부 방문객들이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마을 경관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구릉지 정상 전망카페까지 올라가는 길에 있는 일부분 가옥들은

예전 정보화마을 사업시 진행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개성있는 벽화들이 보인다. 그러나 디자인적 측면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재정비를 통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별한 마을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조선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 왕지정(王之井)-왕진물이 마을 진입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생태관광의 거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처에 전통 가옥 방문객센터로 변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속말에서 전통가옥과 전통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12자형 전통가옥 민박에서 마을 전설이나 마을 역사를 익히고 해안의 포도밭과 갯벌체험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49. 북2리(중현동 마을)



(계속)



(계속)



그림 50. 북2리(중현동 속말) 생태관광마을 만들기 지역적 범위



그림 51. 북2리 생태관광마을 대상지의 지역적 범위와 확장 범위

(3) 남3리(학안골) 마을의 현재 자원 지도화 (Mapping)

○ 남3리(학안골) 마을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바닷가 마을이다. 마을은 해안 도로와 내륙 쪽 도로의 2가지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데 해안 갯벌과 농사를 짓는 농경지가 함께 공존하는 마을이다.

○ 해안 쪽으로는 매우 풍부한 염생식물지대가 펼쳐져 있고, 마을 안쪽 논에는 논습지를 따라 12~13여종의 수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마을길에서 보이는 논 건너편으로는 밤나무 군락이 위치하고 있어 남3리의 경우, 육상식물, 염생식물, 수생식물 등 매우 다양한 식생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다.

○ 논 수로와 둠벙에는 여러 종류의 곤충과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 전통 논습지 체험장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논둑에는 곰보배추가 대량 서식하고 있어 체계적인 재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는 비썩 등은 허브로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이들 습지 생물들을 보전·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소형 ‘해안습지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 연구소는 연구기능 뿐 아니라 약간의 전시와 교육 그리고 관광 방문객센터로서 다기능을 부여하면 좋다.

○ 남3리는 풍부한 식생 생태자원뿐 아니라 대부도 지역 전통가옥 형태인 “口”자형 가옥도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논과 밭을 중심으로 한 농사체험 등의 체험도 가능할 정도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일부 논경지는 휴경을 하고 있으나 논농사인 경우 친환경농법을 하고 이들 농산물과 수산물을 동시에 활용하는 로컬푸드 식재료 전문 생산지나 로컬푸드식당 개설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 마을의 자연자원 분포와 프로그램 진행방향을 보면 다음의 지도와 같다.



그림 52. 남3리 마을 자원 위치

나. 생태관광마을 조성시 추가 조성 환경 및 식물종

○ 육상: 육상의 경관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다소 어렵다. 그것은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종이 경관적 가치가 낮은 곰솔이고 산지의 목본식물을 모두 교체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곰솔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첫째, 대부도의 고유종으로 남아있는 아교목 혹은 관목류를 소나무림의 가장자리에 대폭 투입시키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목본식물로는 음나무, 모감주나무, 소사나무, 장구밥나무, 꾸지뽕나무, 노린재나무, 팔배나무, 붉나무, 회잎나무, 병아리꽃나무, 사람주나무, 분꽃나무, 가막살나무, 만주고로쇠나무, 당단풍, 보리수나무, 생강나무, 으름, 오미자, 두릅, 진달래, 상산 등이다.
- 둘째, 초본류도 추가하면 경관이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는 참나리, 원추리, 대나무, 해국, 갯기름나물, 물레나물, 감국, 마타리, 상사화, 범부채, 도라지, 잔대, 복수초, 애기붓꽃, 각시붓꽃, 백선, 족도리풀, 노루귀, 둥굴레 등이 있다. 현재 제시된 종은 대부도에 자생 분포하고 있다.
- 셋째, 대부도가 매우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여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본식물이다. 대표적인 것은 감나무와 상수리나무이다. 감나무는 흔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면 상수리나무가 가장 적합하다. 상수리나무 군락을 조성하여 가을에는 실제 상수리를 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주운 도토리에 해당하는 양만큼 다른 것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도의 상수리나무에서 얻은 도토리로 목을 만들어 시식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관광테마가 될 수 있다. 도토리목은 우리나라의 정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메밀목이나 다른 가루를 섞어 만든 것과는 맛이 전혀 다르다.

○ 또한 식자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소비되는 양만큼의 도토리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또한 상수리나무에는 사슴벌레나 하늘소 등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곤충이 자연 상태에서 서식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곤충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숲을 만드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현재 참나무겨우벌레와 참나무시들음병이 창궐하여 신갈나무와 졸참나무는 피해를 많이 보았으나 상대적으로 수피가 두꺼운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덜 본 상태이다. 상수리나무는 강한 양수이기 때문에 충분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관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밀도를 낮추고 키가 큰 다른 식물은 함께 식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내륙습지: 내륙습지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향후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보된 습지는 수심을 다양하게 만들어 침수식물과 부엽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넓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 2에 제시된 식물종을 식재하고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면 된다.

- 어리연꽃, 노랑어리연꽃, 물수세미, 수련, 꽃창포, 창포, 줄, 자라풀, 붕어마름 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면 수생식물 생태탐방지로 충분하다. 이때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만을 분리하여 인수하고 생활하수는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충식물은 깨끗한 수질을 요한다. 부가적으로 주변 논에는 자생 논우렁이가 많은데 이것 역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해안: 해안의 염생식물이나 식생은 이 지역 생태관광의 중심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태로도 매우 훌륭하지만 다음 몇 가지만 좀 더 보완하면 이상적인 염생식물 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

- 첫째, 칠면초군락, 갈대군락, 천일사초군락, 지채군락, 갯잔디군락, 나문재군락은 현재로도 충분하지만 갯질경군락, 갯개미취군락, 비쭉군락은 면적을 넓혀야 된다. 특히 갯개미취는 염생식물 중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면적이 넓을수록 좋다. 그리고 통통마디군락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수위가 일정하도록 유지시켜주면 통통마디군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실제 기반 조성시 자문할 예정이다.
- 둘째, 통통마디는 이미 함초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칠면초나 해홍나물도 일부 찜밥집에서 나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 염생식물을 채소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공법이나 조리 혹은 요리법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시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염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 셋째, 과거에는 해당화가 생육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이라도 해당화군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근의 영흥도에는 도로변에 해당화를 대단위로 식재하였다. 참고하면 해당화군락의 조성여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넷째, 현재 조성되어 있지만 좀 더 확장하여 망둥어와 같은 어종에 대한 낚시터도 고려해볼만하다. 이것은 물골을 중심으로 깊게 파고 메워지는 것만 방지하면 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 다섯 째, 비쭉은 허브 종이나 약용 종로서 가능성은 높은 종이다. 비쭉의 냄새나 기능성 효능을 파악하여 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4. 두 마을의 미래 산업

(1) 생태관광마을 사례 검토

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사례

○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동피랑 마을은 재개발 계획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수차례 변경되어 온 지역을 지역의 역사와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독특한 골목 문화로 재조명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공공미술을 통한 마을 변화를 꾀한 마을이다.

○ “동피랑” 지역의 비탈길 언덕배기 집단촌의 특성을 활용해 그림이 있는 골목,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으로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을 추가하였다. 그림 나열식의 벽화가 아닌, 걸으면서 느끼는 볼거리와 휴식을 추구하는 슬로우 시티(slow city), 슬로우 라이프(slow life)를 지향(<http://www.dongpirang.org> 동피랑 마을 홈페이지 인용)하고자 한 마을로 이제는 벽화마을의 대표적인 마을로 알려져 있다.

○ 문화중심형 생태관광마을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53. 동피랑 마을 안내도 (<http://www.dongpirang.org>, 동피랑마을 홈페이지 자료)



그림 54.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동피랑 마을 벽화작업
(<http://www.dongpirang.org>, 동피랑마을 홈페이지 자료)



그림 55. 통영국제음악제와 동피랑 마을
(<http://www.dongpirang.org>, 동피랑마을 홈페이지 자료)

나. 부산 가덕도 정거마을 사례 (환경부 습지생태체험마을)

- 2010년부터 준비를 시작한 부산 가덕도 갈맷길 거점마을 및 놀차 정거마을의 생태마을 만들기는 2년이 지난 2012년에야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시범 생태마을 (현재 환경부 습지생태체험마을) 추진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의 원래 생업과 생태체험마을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과 쟁점들을 추진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갔다.
- 정거마을은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부산신항에 건설되기 이전까지 마을 앞바다의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인해 마을 평균 소득이 매우 높았던 곳이었으나 이후 바다 오염도가 높아지면서 마을 앞바다에서 주로 행하던 어업에서 배를 타고 어느 정도 나가 조업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 2012년 본격적인 생태체험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대적인 관광수요가 급증했다거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마을 주민들과 주변 지역 시민 사회 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부처(환경부)에서 관심을 갖고 마을자원을 모으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추진 과정과 준비에 대해서는 시사점이 크다.



그림 56. 가덕도 정거마을 전경 (<http://blog.daum.net/dkfemsea/1207>, 가덕 놀차 정거마을의 갈맷길 거점마을 및 생태마을 만들기 블로그 사진)



그림 57. 정거마을쪽 풍광 (<http://blog.daum.net/dkfemsea/1207>, 가덕 놀차 정거마을의 갈맷길 거점마을 및 생태마을 만들기 블로그 사진)



그림 58. 마을 끝집에서 바라본 마을 모습 (<http://blog.daum.net/dkfemsea/1207>, 가덕 놀차 정거마을의 갈맷길 거점마을 및 생태마을 만들기 블로그 사진)



그림 59. 정거마을을 통해 국수봉으로 올라가는 길 (<http://blog.daum.net/dkfemsea/1207>, 가덕 놀차 정거마을의 갈맷길 거점마을 및 생태마을 만들기 블로그 사진)

다.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사례

- 연대도는 경상남도 통영의 570개 섬 중 하나로 2008년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기본계획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 마을로의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지역이다.
- 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고, 통영의제로 대변되는 행정기관이 뒷받침을 해 주는 형식으로 사업 초기 고령인구가 대부분인 연대도의 지역 주민이 어떻게 에코아일랜드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해 이끌어 나가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논점이면서 고민이기도 했다.
- 오랜 동안의 주민 교육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마을 만들기 특히,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가 주민의 삶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소통과 뜻을 모으는 작업 끝에 이제는 주민 스스로 의견을 제안하고 자주적인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2012년 작은 섬마을 주소득원 외 수입이 1억 원이 넘는 마을이 되었다.
- 마을만들기의 가장 큰 목적은 지속가능발전 마을 만들기였다. 지속가능발전에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연생태자원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마을 사업과 관광을 이끌어갈 마을 주민들을 조직하고 스스로 운영할 논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여러 노력의 결과가 가지고 오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마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마을의 주 소득원인 농업을 유기농업으로 변환시키고, 국화차, 썩차, 민들레차 등 차 만들기를 고연령인 마을 할매들과 함께 만들어 방문객과 외지에 판매하는 등 농업과 관광, 마을 사업을 연계한 사업이 적극적 주민 참여를 불러온 것이 두드러진다.
- 마을 주민 교육을 통해 마을 생태관광 해설사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바다해설사, 연대 지갯길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연대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다.

▮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만들기



그림 60,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홈페이지



그림 61. 연대도 모습 (<http://www.yeondaedo.com> 홈페이지 사진)



그림 62. 연대도 주민교육 - 부녀회 바리스타 교육 (<http://www.yeondaedo.com/사진>)

(2) 북2리(종현동 속말) 생태관광마을 제안

나. 북2리(종현동 속말) 생태관광마을 제안

○ 북2리(종현동 속말)는 마을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경관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중심형 생태관광마을로 제안하고자 한다.

○ 최근 관광 및 여가 트렌드 추이 중 하나인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 투어리즘의 확산” (심원섭, 2010)은 새로운 관광 문화 중 하나인 걷기 문화를 급속도로 확산시켜왔고, 이는 전국적으로 올레길, 각종 둘레길 등의 길 중심의 마을 관광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다.

○ 걷기 문화와 걷기 여행의 확산은 느리고 여유로운 삶과 내적인 자기 성찰, 건강한 삶을 여행의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들의 동기와 목적이 되기도 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걸으며 새롭게 보고 싶다는 여행 방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림 63 참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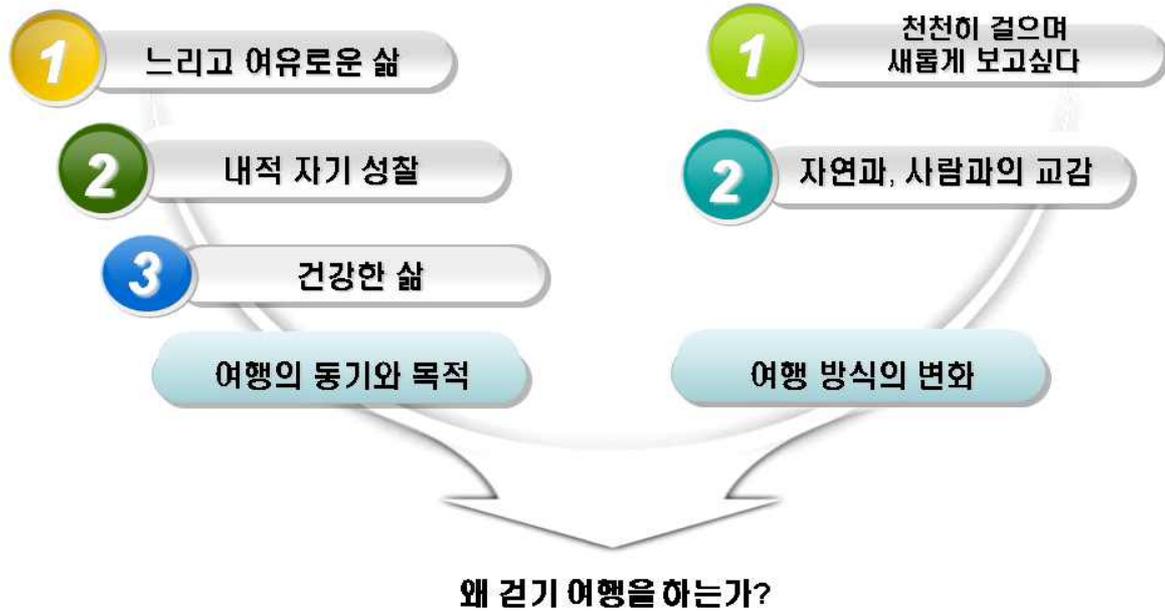


그림 63. 걷기여행의 동기와 목적 및 여행 방식의 변화

○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2리 마을은 도시로부터 출발해 대부도 내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마을의 소소한 마을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연결시키고 교감할 수 있는 문화생태관광마을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도시의 많은 곳에서 이미 사라져간 골목길 경관과 문화 또한 북2리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요소라 보여지며, 걷기와 골목길의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마을문화생태관광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제안한다.

① 마을 산책 프로젝트

- 마을 벽화사업 재정비
 - 현재 북2리 마을에 진행되어 있는 마을 벽화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대부도 내 특색 있는 벽화문화마을로 분명하게 변신하고, 마을 내 문화적 볼거리를 먼저 준비한다.
 - 마을 벽화 관련 동아리, NGO,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길을 따라 테마별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특화된 그림들을 제공한다.

8) 정휘, 2011, “전국의 걷는 길과 서울둘레길 추진현황 및 조성방향”, 한국조경학회 발표자료를 표로 재편집

○ 마을산책 동무

- 벽화마을의 기본 전제 하에 걷기문화 확산과 느린 관광의 확산에 맞추어 마을을 “산책하는 마을”로 잡고, 1980년대 이전의 골목 문화 등을 느껴볼 수 있는 마을 산책 코스를 개발한다.
- 각 산책 코스는 마을의 옛날 이야기부터 현재 마을 소개까지 실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산책동무가 되어 함께 산책을 하며 관광객들에게 동무가 되어 줄 수도 있고, 마을 소개와 설명을 해 주기도 하면서 관광객들에게는 현지 주민들에게 생생한 마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외지인들과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

○ 마을 산책 거점들 : 마을 여행사, 마을 도서관, 카페, 마을 갤러리, 향토 식당, 직거래 장터

- 마을 산책길(골목길)은 몇몇 거점 포인트를 만들어 쉬어가거나 마을 생산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유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을 여행사 :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산책동무를 모으고 교육하며, 관광객들과 연계시켜줄 수 있는 작은 마을 여행사를 마련한다.
- 마을 도서관 : 작은 도서관 형태로 정적인 여행을 즐기고 싶은 관광객을 위한 산책길 중 기존의 비어있는 가옥 등을 활용하여 만들어 관광객의 여유로운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고, 쉼터로서의 역할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문객센터 : 마을 산책길 입구에 센터를 두어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책 동무들의 휴식처이자 마을 소개를 담당하는 마을 관광의 중심이며 여행사의 사무실로 둔다. 생태마을의 취지에 알맞게 지역주민이 운영하고 지역상품과 지역 예술가 작품을 판매하는 카페도 운영 되도록 한다. 이 공간은 지역주민 문화공간도 된다. 마을 도서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
- 마을 갤러리(박물관) : 문화중심 생태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진, 글, 작품, 동영상 등으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마을의 역사와 진행을 엿볼 수 있는 갤러리, 더 나아가 관광객 체류 거점으로서 갤러리를 마련하되 종현동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만 팔되 일본의 ‘미르노에끼(길의역)’와 같이 생산자 이름을 표식하는 동네 시장이 된다..
- 향토 식당과 직거래 장터 : 마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향토 식당과 도시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마련한다.



그림 64. 제주 슬로비 식당에서 제공하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그림 65. 제주 슬로비 사례 : 애월읍에 자리잡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한 독특한 메뉴 개발로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식과 요식업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 동네 놀이터

- 최근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했던 “초등성장보고서 - 제2부 외롭고 심심하다, 아이

들의 놀이“편에서 전문가 실험연구를 통해 나왔던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고 있고 또 현재 즐기고 있는 놀이는 부모세대들이 알고 있는 놀이의 1/4도 안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대의 어린 세대들의 놀이문화의 한계와 더불어 우리의 다양한 놀이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회 현상 중의 하나이다.

- 속말마을은 도심에서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골목마을을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고, 벽화마을 사업이 선행된다면 그 시각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전 골목길에서 놀던 우리의 놀이문화를 마을 산책 중 다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골목 여기저기에 재미있는 요소들- 어구 전시/망둥어 말리는 장치/ 포도주 시음 등을 장치하여 흥밋거리를 마련한다.
- 놀이문화 경험을 위해 마을 내 작은 공터들을 활용한 동네 놀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마련하고 산책 프로그램 중 또는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마련한다.

○ 마을 산책 프로그램

- 보다 다양하고 마을 밀착형 산책 프로그램이 되는 동시에 방문객의 여가 및 관광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밤 마을 산책, 예술(음악, 영화, 독서 등)과 함께 하는 산책 등의 산책 문화를 프로그램을 통해 산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밤 마을 산책 : 불빛이 많지 않은 마을의 조용하고 독특한 밤 풍경을 느낄 수 있게 산책 동무가 동행하면서 산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시각에 주로 의지하던 산책에서 청각, 촉각, 후각 등 기타의 다른 감각을 의존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준다.
- 밤 산책이니만큼 안전상의 위험 요소 등이 내재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산책 동무가 동행하여 길을 안내해 주고, 마을 산책이니만큼 산책시 유의할 점(조용히 산책하기 등) 등에 대해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책하는 의자 : 마을 산책을 할 때 피로를 덜어주고 중간중간 원하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경관이 좋은 곳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지팡이 의자를 대여해 제공해 준다. 걸음이 불편하거나 신체적 약자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66. 지팡이의자 사례

- 마을 음악회 : 마을 놀이터나 마을 내 공터 등을 이용해 자연을 소재로 한 음악회를 개최하거나 자연 악기 만들기 등 음악을 매개로 한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전 활동으로 풀피리 만들기, 나무로 만든 악기 등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음악회 때 이 악기를 이용하여 음악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다.

② 에코투어러 스테이션 계획

- 속말 우물터 주변을 생태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정보와 쉼터의 역할을 하는 장소로 정비하여 에코투어러 스테이션으로 계획한다.
 - 에코투어러 스테이션에는 주차장과 방문객센터를 배치한다.
 - 방문객센터에는 생태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도 및 마을 특산물을 홍보하고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상설 마을 시장을 개설한다.
 - 우물가 재정비를 통한 퓨처 마크화
 - 기존에 일부 진행되었던 마을 벽화사업을 재정비하고, 생태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재기발랄하고 마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교체한다.



그림 67. 주차장과 휴게소 시설 제안

- 종현동 마을의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을 전망대를 설치한다.
 -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건물 설치와 같은 전망대가 아닌 친환경적 생태 재료를 기반으로 한 간이식 전망대로 구성한다.



그림 68. 전망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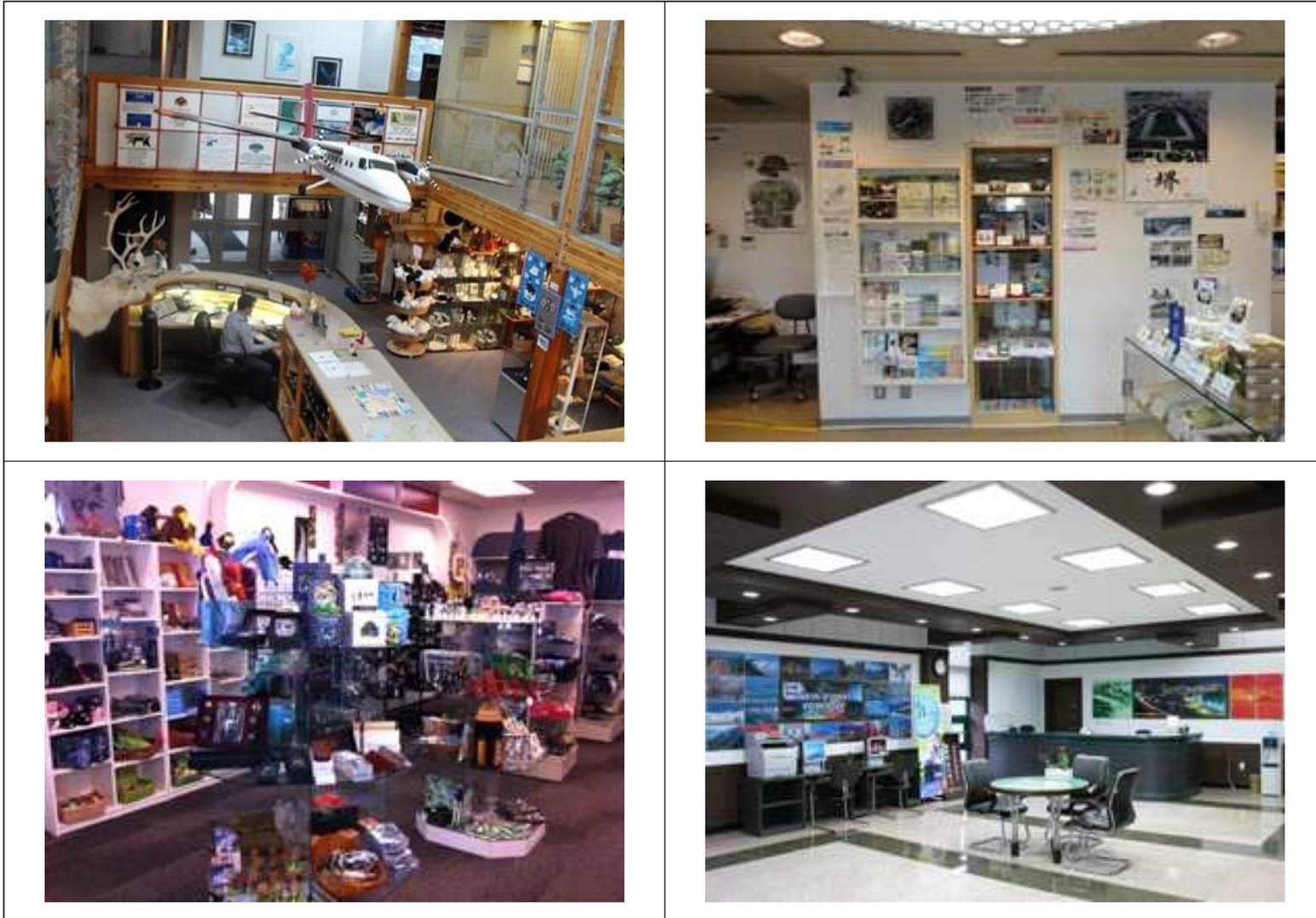


그림 69. 휴게시설 또는 방문객센터에서의 여행정보 제공



그림 70. 마을 도로 정비 - 바닥, 스트리트 퍼니처



그림 71. 우물가 재정비 - 퓨처 마크



그림 72. 마을 담장 정비 - 꽃담, 돌담, 흙담

(3) 남3리 생태관광마을 제안

○ 남3리는 마을이 지니고 있는 뛰어난 생태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생태 중심형 생태관광마을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자연생태 중심형 생태관광마을은 전통가옥을 민박으로 재구성해서 휴양형/체험형 생태관광을 촉진한다.

○ 기존의 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마을 중 일부에서 진행해 오던 자연 생태자원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정한 생태적 수용능력 테두리 안에서 생태관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 현장조사 결과 남3리는 해안 갯벌을 중심으로 한 염생식물 군락, 마을 안쪽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육상식물군, 논습지를 중심으로 한 논습지식물군 등 다양한 식생 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비쭉” 등의 육상식물들과 일부 염생식물들을 재배하여 허브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넓은 면적의 풍부한 염생식물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생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염생식물연구소 또는 해안습지 연구소를 만들고 허브 단지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자연생태계의 종다양성 증진과 생태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염생식물연구소가 단순 연구기능만을 하는 연구소가 되지는 않도록 해안가쪽 마을 진입부에 연구소와 방문객센터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관광객들의 생태관광의 시작점이 되는 동시에 마을 생태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줄 수 있고, 주요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정보센터의 기능도 함께 하도록 한다.

○ 마을 내 유기농 농업 단지와 비쭉, 곰보배추, 함초 등 특색있는 먹거리 자원을 활용한 로컬푸드 식당을 마련하여 염생식물연구소와 더불어 건강을 주제로 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마을에서 쉽사리 찾을 수 있는 “함초”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는 곳도 찾아볼 수 있다.

○ 남3리의 식물자원들은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투어리즘의 확산”과 지역 자원과 지역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착한 관광소비자의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방문객센터는 마을로 들어오는 두 개의 길(해안쪽 도로, 마을 안쪽 도로) 입구에 메인 방문객센터와 규모가 조금 작은 보조 방문객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마을 곳곳에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둘러 앉아서 쉬거나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형태 또는 전통적 형태의 “모정”을 2~3개 거점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그림 73. 모정 사례



그림 74. 그늘막형 야외학습장 사례

- 마을의 유기농업과 허브 단지 등의 지역 주산업 중의 하나인 농업과 연계한 생태관광 아이템으로 최근 도시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도시 농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도시 농업이나 허브 재배에 필요한 용품, 농기구, 씨앗, 모종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을 설치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생태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농업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림 75. 호주 CERES의 파머스 마켓 판매 농산물



그림 76. 호주 CERES에 마을 생산물을 판매하러 나온 주민과 소비자



그림 77. 남3리 마을 생태관광을 위한 기본 인프라 제안 (화살표는 프로그램 진행 방향)

IV. 결론

○ 지역의 환경이나 문화 자원을 계속적으로 소비하고 훼손하면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대중관광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대안관광으로서 생태관광은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지향성에 맞추어 방문객들의 관광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관광 대상지가 되는 지역과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관광이다.

○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그 지향하는 목적과 도달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마을, 문화마을, 농촌관광 마을, 생태체험마을 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생태관광으로 인해서 또는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 연구 대상지인 대부도는 안산시 소재 섬이었으나 시화호 방조제 공사 완공 후 연륙이 된 곳으로 연륙 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그 변화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의 빠른 증가와 도시에서 가까운 섬이라는 자연자원을 가진 대부도를 대중관광지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대중관광지의 선례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의 대중관광지화는 경제적 이익이나 기반시설 확충과 마련 등의 상승효과나 이익도 있지만, 개발과정과 개발 후 활용의 과정 중에 지역이나 마을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부 자본에 의해 자연자원과 지역사회는 파괴되거나 흔들리고, 경제적 이익조차도 외부로 빠져 나가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부도의 북2리(종현동)와 남3리로 대표되는 두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이 지니고 있는 자연자원 및 경관자원, 문화자원 등을 검토하고 그 바탕으로 북2리(종현동)는 문화자원과 경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화중심의 생태관광마을로, 남3리는 해안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생태중심의 생태관광마을로 제안한다.

○ 생태관광마을의 제안은 큰 구조 안에서 마을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이후 실질적인 ‘해양생태관광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마을 주민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의 바탕에서 서로 함께 주인이 되는 관계 안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활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록 2 참조).

참고문헌

- 강미희, 2013, “생태관광의 이해”, 2013년 생태관광 아카데미 발표자료.
- 경기도의회, 2012, 서해안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국립공원관리공단, 2010, 관매도 명품마을 마스터플랜 (요약보고서).
- 국립공원관리공단, 2010, 영산도 명품마을 장기비전 마스터플랜.
- 김기호 등, 2012, 우리, 마을 만들기, 나무도시.
- 김성진(2002),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현, 2013,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2013년 생태관광 아카데미 발표자료.
- 내무부, 1996, 한국도서백서, 400쪽.
-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추진센터, 2013. 해양생태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대부도 지역 생태관광 및 문화예술 자원조사 연구, 413쪽.
- 박원순, 2011, 마을, 생태가 답이다. (주)우리교육 검등소.
- 송인호, 2004. 북촌 뜰자형 한옥의 유형 연구. 건축역사연구, 13(4): 125-138.
- 심원섭, 2010,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심진범(2011) 지역사회 기반 섬 관광정책 추진방안: 세어도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2011. 안산시사, 4권: 415-417.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a, 2011, 안산시사 1권, 86-91.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b, 2011, 안산시사 4권, 371-372.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c, 2011, 안산시사 5권, 46.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2), 한국의 생태관광 발전전략 모색, 2002 세계생태관광의 해 기념 포럼집.
- 정휘, 2011, “전국의 걷는 길과 서울둘레길 추진현황 및 조성방향”, 한국조경학회 발표자료.
- 제종길, 2012, 갯벌 소실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과 해안 음식문화 보전의 위기. 도서문화, 40: 357-374.
- 제종길, 2013, “지역사회 중심 생태관광 전략”, 2013년 생태관광 아카데미 발표자료.
- 한국생태관광협회, 2013, 생태관광 아카데미 교육자료.
- 환경부, 2000, 자원유형별 생태관광 추진전략 수립 연구.
- 환경부, 2012, 인천연안도서 지역사회 기반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승봉도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Bennett, N.J. and Dearden P. (2013) Why local people do not support conservation: Community perceptions of marine protected area livelihood impacts,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Thailand, *Marine Policy* (In Press).
- Ewing, T. (2007) *Community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A Case Study of Monte Verde*, Master's Thesis, Syracuse University.
- Funnell, D. (2008), *Ecotourism* (3rd edition), Routledge NewYork, NY.
- Honey, M. (1999), *Eco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o owns paradise?* Washington D.C. Island Press.
- Honey, M. 2008. *Eco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o owns paradise?* (2nd ed.), Island Press, Washington. 551pp.
- Mitchell, R. and Eagles, F. (2001) An integrative approach to tourism: Lessons from the Andes of Peru,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9(1):4-28.
- Scheyvens, R. (1999), *Ecotourism and the empowerment of local communities. Tourism Management* 20(2) 245-249.
- Scheyvens, R. and Momsen (2008), *Tourism in small island states: From vulnerability to strength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6(5): 491-510
- Schnaiberg, A. and Gould K. (1994), *The environment and society*, New York, St. Marins Press.
- Sebastien N. and Stapleton P. (2011) The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ss in ecotourism development: a case study of the community of Sogoog, Bayan-Ulgii, Mongoli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9(6) 695-712
- Vivanco, L. (2006) *Green Encounters: Shaping and Contesting Environmentalism in Rural Costa Rica*, New York, Berghahn Books.
- Weinberg A. Bellows S. and Ekster D. (2002) Sustaining Ecotourism: Insights and Implications from Two Successful Case Studies, *Society and Nature Resources: An International Journal*, 15(4):371-380.

부록 1. 국내 생태마을 만들기 사례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마을과 생태관광⁹⁾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방식이 채택된 이후,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필요를 반영하듯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 "Habitat Agenda"에서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 개념이 등장함.
- Habitat Agenda(1996)는 인간은 적절한 주거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지 개발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자연과 자신의 문화적 유산 및 정신적, 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지 개발을 지향하고 있음.
- 이후 본격적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도모하는 정주지 설계와 개발이 시작됨. 현재 코하우징(cohousing)¹⁰⁾등과 같은 공동체적 삶을 위한 주거단지 설계시도가 결합되면서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전원도시, 생태주거, 생태마을, 친환경 주거단지 등에 관한 논의들이 이에 해당함.
- 생태마을의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경제, 경제-환경, 환경-사회간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생태적 부양능력(Ecological Viability), 살만한 정주환경(Livable Built Environment), 사회적 형평성(Socially Equitable)을 추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함(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7)¹¹⁾
- 생태마을의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주환경에 관한 원칙은 '친환경 주거지' 조성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고, 환경적 측면과 동시에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생태적 부양능력' 관련 원칙은 '환경친화적인 생산 활동' 위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이 중 '환경친화적인 생산 활동'은 특히 농촌, 어촌, 산촌 등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이 부상하고 있음.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관광분야에 적용한 생태관광은,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중 특화된 형태로써 기존 대중관광이 발생

9)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환경부, 2004

10) 도시나 교외지역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동주거단지와 달리, 모든 거주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존성, 그리고 협동을 강조하는 주거형태임. 물리적 디자인은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형태로 계획되며,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짐. 즉, 공동체 생활의 장점을 가지며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단위주택의 자율권을 가지는 것으로, 주민스스로의 참여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이경희, 김선중, 2003:123)

11)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1997), Sustainable Communities Task Force Repor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시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질적인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¹²⁾임.

- 국내에서도 지역단위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생태마을 관련 실천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자연·역사·문화 자원과 농·어·산촌을 활용한 생태관광, 농어산촌관광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을개발사업 정책과 맞물려 대부분의 생태마을들에서 운영하고 있음.

2. 생태마을의 구성 원칙¹³⁾

생태마을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은 ‘지속가능성’으로, 크게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며, 구성요소들을 보면, (1) 자연 환경 (2) 물리적 환경 (3) 생활·생산양식 (4) 주민역량 등. 각 구성요소 별로 강조되는 세부원칙들을 살펴보면,

- 자연 환경 : 건전한 수환경과 녹지 공간을 보전하여 자연경관, 동식물 서식지를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마을.
- 물리적 환경 : 인간척도의 적정밀도 마을로 입지와 공간구조가 자연경관 및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건물과 시설이 환경친화적인 마을.
- 생활·생산양식 : 자원·에너지 절약형·순환형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으로 주변 생태계에 오염부하를 적게 주는 마을.
- 주민역량 :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생산양식에 관한 주민합의 및 교육 등의 공식·비공식적 제도가 갖춰진 환경 보전 역량을 가진 마을.

12) www.world-tourism.org

13)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환경부, 2004.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자연 환경 및 물리적 환경 관련 항목들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경제/사회, 문화 부문은 정책적 편의상 제한적으로 고려되어 크게 생활/생산양식관련 항목과 주민역량과 관련된 사항들로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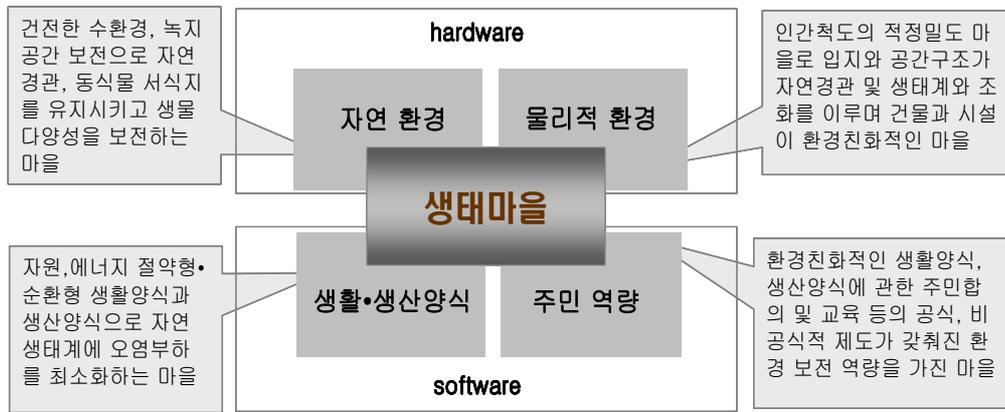


그림 78. 생태마을의 부문별 구성원칙

3. 국내 생태마을 만들기 동향과 사례

1) 국내 생태마을 만들기 동향

- 우리나라에서 생태마을의 용어가 등장한 시점은 1997년 8월 전국귀농운동본부 주최의 ‘생태마을 만들기 그 현황과 과제’라는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생태마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녹색연합,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생태마을 연구회, 생태산촌마을 만들기 모임과 기타 단체나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어 옴. ¹⁴⁾
- 생태마을 만들기는 자연과 조화된 생태적인 삶의 양식과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직접 생태마을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계획마을과 농산어촌 등 뛰어난 자연생태계에 인접했거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모색한 주민들이 친환경농업과 생태관광 등을 연계하면서 발전시킨 기존 마을 개선 방식 등으로 진행되어 옴.
- 농촌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농촌 지도자들에 의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 왔지만, 전문가들과 농촌마을이 결합하여 마을만들기 운동¹⁵⁾을 시도한 사례는 1990년대 후반 녹색연합의 금산 건천리 생태마을 사업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음. 이후 녹색연합은 강화도 장화리(우수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발전, 기존마을 개선), 무주 진도리(생태적 귀농, 계획마을), 홍성문당리 생태마을(농촌마을 발전, 기존마을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주도함. 특히 홍성

14) 황보철(2005), 한국적 생태마을계획을 위한 경관지표의 활용, pp.1-2.

15) 국내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마을만들기(마찌쯔구리)『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라는 책이 소개된 시점인 1997년 무렵으로,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목적과 내용 방법에 따라 ‘마을디자인, 마을가꾸기, 마을만들기, 마을진흥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한국의 마을만들기 현황과 과제, 임경수)’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음.

문당리의 경우, 마을지도자와 녹색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가 결합하여 농촌마을에 있어 마을만들기의 전형을 제시하게 됨. 이를 계기로 농촌살리기 그린투어리즘(녹색관광) 차원의 농촌마을가꾸기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게 된¹⁶⁾ 경우임.

- 한편,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환경친화형 농어촌 조성, 생태산촌 조성 정책과 생태관광, 녹색관광, 환경농업 등 친환경 생산마을 육성,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 등 마을 단위 생태계 보전 정책 등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과 2000년대 마을개발사업의 확대로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생태마을 만들기 진행되고 있음.

2) 국내 생태마을 만들기 사례

- 생태마을의 개념 정립, 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을 한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2004, 환경부)의 생태마을 대상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내 생태마을 대상선정 기준>	
■	자연과 순환, 공생하는 생산양식 혹은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주민 공동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	국내 생태마을의 유형별 커다란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마을
■	폐쇄적인 종교, 이념 공동체는 제외
■	지리적 특징, 조성경위, 조성주체별의 특징을 가지는 마을

- 계획마을 사례 : 산청 안솔기 마을, 무주 진도리 마을, 함양 청미래 마을
- 기존 마을개선 사례 : 양평 명달리 마을, 철원 양지리 마을, 홍성 문당리 마을, 강화 장화리 마을, 부산 물만골 공동체

표 17. 생태마을활성화 방안 연구-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p27

마을이름	조성경위	조성주체	지리적 특성	특징
물만골공동체 (부산)	기존마을 개선	주민	도시형	도시빈민공동체 생태적 도시재개발 지향
안솔기 마을 (산청)	계획마을	주민	산촌형	주거중심 대안학교 배후마을

16) 임경수(2007), 한국의 마을만들기 현황과 과제

진도리 마을 (무주)	계획마을	주민	산촌형	생태적 귀농마을
청미래 마을 (함양)	계획마을	주민	산촌형	생태적 귀농마을 대안대학교 배후마을
명달리 마을 (양평)	기존마을 개선	지자체 외부전문가	산촌형	산촌생태관광
양지리 마을 (철원)	기존마을 개선	지자체	농촌형	환경농업 생태관광
문당리 마을 (홍성)	기존마을 개선	주민	농촌형	환경농업 농촌녹색관광
장화리 마을 (강화)	기존마을 개선	주민	어촌형	갯벌보전지역

3) 사례 조사 내용¹⁷⁾

(1) 산청 안솔기마을

가.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 17, 18 번지. ■ 준농림지 약 45,000평
마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형 마을 ■ 계획마을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가구수 18가구로, 세대주는 대체로 40대 전후반. ■ 한의사, 건축가, 약사, 교사 등 전문직이 많음.
추진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토지 계약 및 입주자 모집
마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의 배후 주거지로서 계획적인 생태마을 조성사례 ■ 교사, 학부모들을 위한 정착촌 조성. 주민 대부분이 마을 외부에 직업을 가진 주거중심의 생태마을임. ■ 자연과 조화된 삶의 양식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모델 창조. 생태적인 삶을 통해 좋은 사회를 이루는 일에 참여 등에 있어 '친환경적 주거양식'에 중점을 둠. ■ 공동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마을 내규가 작성되었음

17)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중 '국내 생태마을 사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사례 추가 보완함.

나. 자연 환경

- 마을대상지는 지방도로와 접한 자연부락인 외송리과 둔철산 분지에 자리잡은 둔철리 사이의 계곡지의 좌편에 자리한 고도 해발 약 200-300m 지역임.
- 소나무 등의 침엽수림으로 구성된 녹지등급 7등급의 보전임지 35,000평 및 10,000평의 준농림지.

다. 물리적 환경

- 10,000평의 개발용지의 택지조성 과정에서 마을주민이 직접 시공하면서 불필요한 녹지훼손을 줄이고 자투리 녹지를 최대한 살림. 산림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35,000평의 산림은 마을공동명의로 보전함. 마을공동공간에 빗물을 모으는 연못 2곳을 조성하여 주변 생태계와 연계되어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소생물권을 조성함.
- 자연지형과 수림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개별 필지는 제한하여 분양. 개별 필지는 개별 건축과 텃밭으로 개발함. 마을공동용지는 마을 내 도로, 공원, 완충숲, 공동주차장, 공동연못, 관정, 수로, 공동구(전기/통신/상수) 등으로 활용함.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개별 필지와 도로를 배치함. 마을 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주택필지와 도로를 계획함.

라. 생활·생산양식

- 건축은 대부분 환경친화적인 소재인 흙, 나무를 이용하여 한옥식, 통나무집식, 유럽풍 조립식으로 조성
- 식수원은 공동상수원 이용, 개별 자연정화연못 및 자연발효화장실 사용
- 에너지는 대부분 화목보일러와 일부 태양열집열판 설치
- 천연 비오톱(소생물권) 등은 원형보존, 투수성 포장, 실개천, 공동주차장 조성

마. 주민역량

-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 마을계획/설계 단계마다 의사결정 대안 마련, 마을 주민들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최종 결정, 직접 참여방식으로 마을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참여
- 마을공동기금 운영 및 마을공동재산 운영
- 마을공동규범 : 안솔기 마을자치규약(2000.7.16)에서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마을”을 목적시하고, 이를 위해, 개별적인 전유토지의 사용과 마을의 모든 토지와 그 안의 시설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바. 평가

- 주민들과 설계전문가가 많은 토론을 거치고, 주민이 직접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산림과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
- 마을구성원이 지속적인 마을회의의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와 실천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마을내규를 합의하여 생태적 삶의 실천하고 있음.
- 가구별 주택 유형이 다양하여 마을경관의 통일성이 부족함.

(2) 무주 진도리 마을

가. 마을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준농림지 및 임야 65,000평
마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형 마을 ■ 계획 마을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가구수 13가구 입주 완료함. ■ 세대주는 주로 30-40대, 유치원에서 초중고생까지 아이들이 있으며, 대부분 농민.
추진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대상지 일시 매입 ■ 1997년 입주자 모집
마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인 생활과 생산의 구체적인 실현. 마을 주민전체가 생계형으로 환경농업을 실천. ■ 젊은 귀농자가 많아 품앗이나 공동육아 등의 다양한 공동체 문화 실험들이 이루어짐. ■ 환경농업과 지역자연생태계 등과 더불어 무주군의 친환경성을 이 미지화에 큰 기여를 함.

나. 자연 환경

- 45,000평의 임야와 20,000여 평의 산간계곡지형의 경사면을 따라 분포하는 준농림지로 이루어짐.
- 준농림지는 벼농사를 지어오던 계단식 논경작지와 산경사지에 잡목으로 덮인 휴경지이며, 임야는 전형적인 중부혼효림으로 구성됨

다. 물리적 환경

- 대상지의 경사지형을 최대한 살려 개별 주택지와 동선을 배치함. 기존의 휴경농지를 이용하여 주거지를 조성하거나 빈집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산림 훼손을 하지 않음.
- 20,000여 평의 준농림지에서 기존의 논은 이용하고, 경사면의 휴경지를 이용하여 마을 도로, 개별 필지, 밭을 배치함.

라. 생활·생산양식

- 신규 조성 주택의 경우 흙과 나무를 이용한 한옥식이 많으며, 일부 외지의 농가(흙벽, 슬레이트지붕)를 이동, 재조립한 경우도 있음.
- 식수는 마을공동 지하수 탱크를 설치하여 이용, 농수는 기존 형성되어 있던 농수로를 이용하여 마을 옆 계곡수를 이용
- 가구별 자연수로나 수생식물을 이용한 소규모 자연정화연못, 모래자갈숲을 이용한 정화조를 조성. 자연발효식 화장실
- 딸감겸용 화목보일러 사용
- 농사에 종사하는 가구가 대다수이며 자급자족. 환경농업

마. 주민역량

- 마을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어린이집 공동육아와 품앗이, 농산물 공동출하

바. 평가

- 주민주도형 마을 조성으로,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며 건축. 자급자족적 생태적 삶의 실현하기 위한 3-40대로 구성되어 실천력이 매우 강함.
- 마을 조성 초기 외부 일반방문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개인일상생활의 침해가 많아 마을회의를 통해 외부와의 교류를 중단함.

(3) 함양 청미래 마을

가. 마을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일대, 38,000여평의 준농림지와 임야
마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형 마을 ■ 계획마을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6가구, ■ 녹색대학과 관련이 있거나 환경농업, 혹은 대안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30~40대가 많음. ■ 학교교사, 건축가, 대학교수(퇴직예정), 농민, 교직원 등.
추진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6. 토지 계약 / 9. 입주자 모집 광고
마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인 녹색대학의 배후주거지로서 유기적인 지원, 보완관계 조성 및 생태마을로 조성 ■ 자급자족 마을 지향. 대부분 도시귀농자들이며 녹색대학의 교육/생산/다양한 경제활동과 상호유기적 관계.

나. 자연 환경

- 환경사지의 발경작지이며, 대상지 주변이 침엽혼효림 지역으로 전망이 매우 좋음.
- 토양의 수분함량이 매우 많으며, 대상지 중앙부에서 지하수가 자연유출됨.

다. 물리적 환경

- 마을 대상지내 지하수가 유출되어 형성된 연못을 보전.활용하여 생태연못으로 조성, 가재 등이 서식할 수 있는 마을내 소생물권으로 조성함.
- 일조권 확보를 고려하여 필지 배치함, 마을 진입부에 공동작업장, 마을회관, 방문객 센터 설치 예정. 보조동선 3곳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필지 배치함. 녹색대학 농장 또는 마을 공동경작지 확보.

라. 생활·생산양식

- 흙, 나무 등의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전통가옥 및 현대양식의 주택조성.
- 공동상수원 이용 및 병합정화조와 자연정화 병행.
- 기후에 적합한 배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냉난방
- 마을 진입부에 공동작업장, 마을회관, 방문객 센터 등 설치.

마. 주민역량

- 마을 공동사업단을 조성하여 마을 기반공사를 주민이 직접 진행.(마을기초공사, 마을

회관 리모델링 등)

- 마을 조성에 관한 원칙들은 주민회의를 통해 규약에 반영. 건축, 생활, 작목으로 분야 구분해서 구체적인 규칙 제정, 생태건축으로 산림훼손 최소화 위해 소규모 지향하는 내용.
- 식량의 자급자족 및 개별 필지이외는 모두 마을 주민 공동명의

바. 평가

- 마을기초 공사를 하는 데 있어 행정적 절차나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음. 마을의 특성에 맞게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이웃한 대안대학인 녹색대학과 연계되어 학교 프로그램을 주민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마을에서 생산되는 환경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보, 학교 관계자 거주 등의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함.

(4) 양평 명달리 마을

가. 마을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일대
마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형 마을 ■ 기존마을 개선형 ■ 지자체 및 외부전문가 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70가구 총인구수 150명, 실제 거주세대수 54호, 20여가구는 주말용 전원주택 ■ 세대주 3-40대가 많음. 임업과 농업이 주이며, 일부 외지인이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추진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5. 양평군 산림비전21에서 명달리를 녹색관광형 생태산촌마을로 조성제안
마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군이 추진하는 산림비전 21사업에서 '에코닥터스' 사업 시범마을로 선정됨. 민간단체 '(사)생태산촌만들기 모임'이 본격적으로 연계되면서 실질적인 마을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함. ■ 2002년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 ■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풍부한 산림휴양자원과 서울과의 근접성을 이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 ■ 생태관광 : 대학과 연계한 영농체험 위주의 체험프로그램 진행. 펜션형 숙박단지 조성 및 폐교를 개조한 생태교육장 운영. 주민 교육 및 가이드 양성 등

나. 자연 환경

- 남한강과 북한강을 기고 자리잡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협곡지대. 산입 부분에 명달리가 세 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뉘어 자리잡고 있음.
- 침엽수림으로 이뤄진 산림이 마을 전체 면적의 70%(군유림: 40%, 사유림: 50%)임.
- 하천수질은 양호한 편이며, 수량이 풍부하여 갈수기에도 건천화되지 않음.

다. 물리적 환경

- 마을 주변의 산림에 간벌 등의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숲의 종다양성을 높임. 소유곡계곡 수생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산천어를 방생함.

라. 생활·생산양식

- 기존 농촌주택형 주택으로 자연부락별로 공동관정 이용
- 개별 정화조 설치 이외 가구의 경우 하천 직접 방류.
- 기존 주민 대부분이 임업(잣)과 농업(거주민)이며, 일부 외지인이 관광 및 숙박업(외부인)에 종사함.

마. 주민역량

- 마을내 조직대표들과 의지가 있는 이들 10여명으로 시작되어 2002년 명달리 생태산촌 영농조합법인이 됨. 시설관리팀, 산촌체험관광팀, 숲가꾸기팀 크게 3팀으로 구성.
- 마을 회관, 폐교활용 생태교육장 등 마을공동자산 운영. 숲가꾸기사업, 장뇌삼을 마을 공동으로 생산.

바. 평가

-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마을발전 방향을 환경농업, 생태관광 등과 일치시키기 수월하여 주민간의 합의, 실천에 효과적임.
- 서울과 근접, 주변의 산림과 하천 등 청정의 자연 조건을 가져 도시소비자와의 교류가 매우 유리함.
- 마을주민 중 30~40대가 많아 사업계획과 실행이 유리함.
- 초기 양평군과 관련 전문가들이 마을사업을 제안, 정부지원사업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었음.
- 펜션사업 등에 외지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음.

(5) 철원 양지리마을

가. 마을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일대
마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형 마을 기존마을 개선형 지지체 및 외부전문가 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40~50대가 많음. 젊은 사람들이 적은 편이지만 평균연령은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 낮은 편. 대부분 농업으로 쌀농사,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봉을 특작으로 함.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3. 문화재청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로 인근 내원리 일대 120,000평이 지정됨. 1996. 양지리 철새먹이주기 활동 시작
마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원군내에서도 철새들이 많이 찾는 마을로 96년부터 실시된 주민들의 자발적인 철새먹이주기 활동이 시작됨. 지역 내의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자발적 철새보호활동을 진행함. 마을단위 환경농업 규모가 크며, 행정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음. 생태관광 : 철새탐조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 학습원(2003) 개원.

나. 자연 환경

- 1973년 민통선이북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정부에 의해 철원평야지대에 조성된 마을로 DMZ 인근의 풍부한 자연환경이 주변에 있음.
- 토교저수지 일대가 독수리, 두루미, 재두루미, 큰고니 등의 겨울철새들과 말뚝가리, 황조롱이, 백로 등 여름철새의 서식임.

다. 물리적 환경

- 철새먹이주기, 밀렵감시, 조류보호사 운영관리 등

라. 생활·생산양식

- 마을 내 재생창고 설치하고, 신문.잡지.농약병 등을 모아 재생공단에서 수거해감(청년회/부녀회)
- 환경농업 : 1994년 시작, 1997년 친환경농업 양지작목반 구성. 오리농과 우렁이농 중심의 저농약.무농약 농업. 퇴비로는 돈분액비와 녹비를 사용함.
- 쌀소포장시설, 액비저장탱크, 공동퇴비장

마. 주민역량

- 마을개발위원회, 철원옛쌀작목반, 철새보호회, 조류보호협회 등의 주민조직
- 가장 많이 참여하는 마을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의제가 있을 때 소집해서 마을일에 대해 의논함.

바. 평가

- 당시, 철새보호구역 확대지정안을 둘러싸고 철원지역 전반적으로 문화재청, 지자체와 마을농민간 불신 존재.
-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단위로 환경농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농업 기술, 판로 확보 등에 대해 지역적 공동활동이 이루어짐.
- 철새 도래지 보전을 위해 대한조류협회 등의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철새먹이주기, 생태관광 시설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다양한 정보와 기술 등을 교류함.

(6) 흥성 문당리 마을

가. 마을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일대
마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마을 ■ 기존마을 개선형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40대 젊은 층이 많음. 대부분 전업농.
추진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 벼농사 오리농법 도입 ■ 2000.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수립
마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하고 확산시킨 환경농업마을 ■ 마을의 자연환경, 생산활동, 생활환경, 삶의 질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21세기 문당리 발전백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 공동규범 : 영농조합법인 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인 '풀무학교' 졸업생들이 마을활동 및 지역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2000년 흥동환경농업교육관을 개관하여 농민들과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농업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음. ■ 녹색관광 : 환경농업 및 농촌문화 체험, 세시풍속 체험, 체험형 자연생태학습 등을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1995년부터 매년 오리입식 행사 및 가을걷이 행사 진행.
--	--

나. 자연 환경

- 삽교천변 평야지대에 위치한 전형적 농촌마을
- 전체 면적의 44%가 경작지이며, 나머지는 주거지와 낮은 구릉지형의 임야로 주변 6등급의 조림지임.

다. 물리적 환경

- 마을 초입에 어리연꽃연못을 조성하여 마을 내 소생물권을 조성하였으며,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하수의 자연정화효과를 냄.(2002년). 2002년 화신(장곡)저수지 녹조현상이 생기면서 수질이 악화되자 지역주민차원에서 '흥동수질대책협의회'개설하여 정화운동 진행. 자연형 하천복원

라. 생활·생산양식

- 분뇨처리하는 개별 가구마다 토양미생물정화처리시설(BMW) 설치, 자연에너지 활용 및 자연친화적 주택 건축, 쓰레기 없는 마을 구축. 풍력+태양광(800와트)발전시스템을 교육관에 설치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건축은 대부분 기존의 농촌농가 형태로, 각 가정마다 관정을 파서 식수원으로 이용.
- 환경농업교육관 마당을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잔디와 블록을 이용한 투수포장으로 시공하였음.
- 오리농산물 특화 및 한약원, 한우원, 종합가공장 등 운영. 경제적 지속가능성 마련

마. 주민역량

- 1999년 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설립. 1996년 오리농업작목반 결성(흥성 환경보전오리농업작목연합회로 확대). 수질관리협의회 등
- 마을 총회를 통해 마을대소사, 이장 선출 등공식적인 마을 의사결정을 하고, 영농조합법인 이사회에서 정부 지원사업 집행 등 마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
- 공동 퇴비장, 공동 오리장 설치 및 관리. 소비자와 함께 하는 오리입식 축제 및 가을걷이 축제. 농번기 품앗이.

- 환경농업교육관, 방문객 숙박시설, 농촌생활유물관, 환경농업쌀 정미소, 마을 목욕탕 등 설립 및 운영. 녹색관광프로그램의 다양한 교류와 홍보활동 전개.
-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 정보화시범마을 선정 및 젊은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

바. 평가

- 환경농업 실천농민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인하여 마을전체가 환경농업을 실천하게 되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마을사업 공동 추진.
- 생협, 농협 등의 마을 및 지역사회 공동으로 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행정과의 연계하여 정부지원사업 유치,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 지역의 생협, 농협, 군청, 전문가, 기업 등 외부와의 교류가 매우 활발함.
- 마을만들기 운동은 마을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으로 외연을 확대(임경수, 2007)

(7) 강화 장화리 마을

가. 마을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2리(버드러지) 일대
마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형 마을 ■ 기존마을 개선형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연령이 약 62세로 노령인구 많음 ■ 반농반어 형태의 농어업 가구가 많음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강화도 남단갯벌 2900만평 매립계획인 화북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반대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마을 여론 형성 ■ 1998년 녹색연합.강화도시민연대 장화리 생태마을계획 작성
마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경관 및 갯벌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모델을 지향. ■ 주씨 집성촌으로 마을주민 95%가 성공회교 신자. 성공회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주민들 자발적으로 생태관광 마을계획을 추진함 ■ 수도권 지역 인천시 지역 방문객들이 많고, 인천시 생협과는 안정적 도농교류 형태를 갖춘. ■ 해양탐구수련원이 마을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단체인 강화도시민연대 갯벌보존 활동의 영향 받음. ■ 생태관광 : 장화리 갯벌 망둥이 잡기 축제, 밤줍기 고구마 캐기 행사,

	새끼 꼬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마을주민들이 체류형 관광을 위해 외부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형 펜션 조성. 해양탐구수련원의 갯벌체험 및 생태관찰 프로그램 운영
--	---

나. 자연 환경

- 서해안 해안가 마을 뒤로 산에서 갯벌과 바다로 이어지는 서향의 완만한 경사지에 마을이 입지해 있음. 마을과 바다 사이에 경작지가 펼쳐짐.
- 마을 배후로 위치한 상봉산 및 마을 중앙의 해안가 도로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일몰 경관이 빼어남
- 바다, 갯벌, 산림, 농경지 등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음.

다. 물리적 환경

- 마을주민들이 체류형 관광을 위해 외부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형 펜션 조성. 해양탐구수련원의 갯벌체험 및 생태관찰 프로그램 운영

라. 생활·생산양식

- 대부분 기존 농가 형태이며 일부 고가옥.
- 각 가정마다 관정으로 지하수 이용. 오폐수 처리시설 없이 바다 유입.
- 성공회성당이 마을의 공간적 중심지로, 종교행사 뿐만 아니라 주민집회의 장소로 이용됨.
- 도시근교형 농업으로 마을자체소비용과 일부 대규모 경작 작물이 수도권과 거래됨.
- 수산업은 계절별로 어획종이 다양하며, 외부 방문객 상대로 마을관통도로 주변 상업/서비스업 형성.

마. 주민역량

- 마을개발위원회, 작목반 등이 있음.

바. 평가

- 강화남단 대규모 갯벌매립사업의 반대운동을 진행하면서 마을주민들이 갯벌과 마을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의 발전방향을 합의함으로써 지속적인 실행이 이루어짐.
- 마을주민들의 대부분이 성공회로서 지속적인 가치 공유 및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함.

- 수도권 주민들과의 교류가 매우 유리함.
- 갯벌전문가, 생태관광 전문가, 지역단체 등과의 활발히 교류함.

(8) 부산 물만골공동체

가. 마을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7동 일대
마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 마을 ▪ 기존마을 개선형 ▪ 주민주도형 마을
마을 구성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층이 많은 도시형 인구구성. ▪ 일용직 노동자가 60% 이상.
추진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70년대 철거민 유입으로 마을 형성됨. ▪ 1997. APT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그 대안으로 생태마을을 설정.
마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만골은 무허가도시빈민으로서 철거투쟁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임. ▪ 1999년부터 마을공동 활동을 통한 주거 질 개선과 토지 매입 등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함. ▪ 부산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외부 영향력이 약함 ▪ 전체 주민 합의로 주민 주체의 생태마을로의 재개발을 하기로 합의 ▪ 공동규범 : 물만골 공동체 운영위원회 정관에 명시

나. 자연 환경

- 마을이 부산 도심속의 황령산(428m)북향사면에 자리잡아 마을 중앙으로 계곡이 흐르고, 마을주변으로 7등급의 활엽혼효림이 분포함.
- 계곡지형에 맞추어 주택들이 고밀도로 자리함.
- 물만골을 통해 마을 외부인들이 황령산 기슭 약수터와 등산로를 이용함. 주말 이용객이 상당수 있음.

다. 물리적 환경

- 1997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하는 황령산 개발계획 및 도로계획 반대운동을 진행하면서 황령산 보전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황령산 자연생태계 조사 진행. 물만골공동체 명의로 생태계 보전지구 설정. 임도 주변 녹화사업, 토착 식물군 복원, 군락지 조성 사업

라. 생활·생산양식

- 4개 지하관정으로 마을 상수 이용
- 대부분 기존 재래화장실 사용
- 음식물쓰레기 활용한 공동양계장 : 침출수 문제 해결 필요
- 자원재활용 사업단 운영
- 자급자족용 소규모 텃밭 경작
- 재개발사업 계획 :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변형된 계곡을 기존의 자연계곡으로 복원, 환경생태 체험장 조성, 친환경적인 공동주거단지,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 계획 등

마. 주민역량

- 물만골 공동체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정책자문단/감사/대의원회의), 직할부서(자활사업단/풍물패 솟을오름/주민학교, 의료복지상담소), 자치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
- 주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 마을공동행사 진행. 공동취로사업운영(건설공동체, 재활용사업단, 의류봉제사업 등). 정기적 주민교육 등

바. 평가

- 마을이 형성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이주율이 높지 않고, 80년~90대 강제철거투쟁을 함께 겪은 경험으로 인해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강하고, 주민들간의 공동체성이 매우 높음.
- 주민들의 소득이 높지 않아 경제적 효과를 위한 마을공동 활동 -마을영화제, 물물교환, 자원재활용, 재활용품 수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자급자족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활발함.
- 마을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마을회의를 통해 진행함.
- 계곡지형에 물만골공동체가 단독적으로 위치, 특정한 마을의 역사 때문에 도심의 다른 마을들이 모델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5. 분석 및 시사점

1) 생태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¹⁸⁾

생태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 즉 조성 특성별, 지리적 특성별, 초기 조성 주체별 전략을 제시함.

(1) 조성 특성별 전략

- 계획마을의 경우, 마을조성단계에서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한 원칙마련, 조성 초기 단계에서 친환경기술 활용계획 고안, 주민 참여적 마을계획 및 마을조성, 마을회의 활성화, 환경친화적 삶을 위한 마을규범 제정, 기술 및 행정부문에 대한 자문 지원
- 기존마을을 개선하는 경우, 생태마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을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생산을 시작으로 환경친화적 실천 유도, 녹색관광에서 생태관광으로의 전환 및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연계,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정비 유도, 마을 발전을 주도할 만한 리더십 형성, 마을 전통 계승 및 마을 공동체성 강화

(2) 지리적 특성별 전략

- 농촌형 :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적인 재정비 유도,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을 통한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환경친화적 생산을 시작으로 환경친화적 실천유도, 지자체와 협력 관계 구축 및 농촌대상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 활용
- 산촌형 : 입지선정 및 조성과정에서 산림파괴 최소화, 마을조성부지의 일부를 삼림으로 보존, 경과 조화를 위해 주택규모와 층수 제한, 산림생태계를 활용한 생관광 및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 어촌형 : 기존 어촌마을의 환경친화적인 재정비 유도, 해양경관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갯벌/해양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동절기 교류 프로그램 개발
- 도시형 : 마을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 마을개발 도모, 마을자치조직과 도시행정체제 간 관계 재설정, 마을계획시 도시계획 및 도심재개발계획 고려, 도시마을 주민간 공동체성 형성, 도시 주변의 개발유인 통제

(3) 초기 조성 주체별 전략

- 주민 주도형 : 마을 전체의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과 홍보(주민 리더 재생산 및 확대), 자발적 주민실천에 대한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중앙정부/지자체와 협력적 관계 안정화, 주민 자발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생태마을 위한 기술적/경제적/교육적 지원 체계간 상호보완 체계 마련

18)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p156-164,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환경부, 2004

- 마을 외부 주도형 : 주민을 마을조성의 주체로 확립(마을 조사 및 마을계획과정 참여 구조), 안정적인 (외부)전문가-주민 협조 체계 구축(지속적인 자문과 지원 체계), 자치 단체장 임기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 새로운 마을 자원 재발굴

2) 주민 참여 활성화와 마을만들기 운동의 활동가 육성

(1)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수단이나 실현전략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 목적 그 자체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동체성과 관계성이 형성된 공동체 발굴과 공동체 인식과 관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 시기 적절한 주민참여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 조직, 행정이 외부 자원과 외부 동기 등의 다양한 외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정적인 행정체계 구축,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진정성 등을 확보.¹⁹⁾

(2) 마을만들기 운동은 계획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비전을 세우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자극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높이면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비폭력적 대화 민주적 의사결정 합의와 토의 갈등의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한 활동가 양성이 필요.

3)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지역사업 권장

- 하나의 마을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개개 마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역적 시스템 즉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이를 위해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공동체 텃밭 (Community Garden), 농민시장(Farmer's Market), 지역레스토랑(Community Restaurant), 협동조합(Co-op), 지역화폐(LETS) 등의 공동체적 지역사업을 권장함.²⁰⁾

- 사례 분석한 대부분의 생태마을들이 마을 특성에 따라 농업자원, 산림자원, 생물종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산촌문화 체험, 생태적 감수성 교육 등 생태/녹색관광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생태관광, 농어산촌관광의 효과적인 실행과 개선과제

19) 김경화(2013),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

20) 임경수(2007), 한국의 마을만들기 현황과 과제, 임경수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내발적 동기와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지역전문인력 등이 결합하여 지역산업, 지역자본과의 통합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비즈니스와의 접목을 통하여 새로운 생태관광·농촌관광의 새로운 운영 모델 제시 필요.²¹⁾

21) 김경화(2009), 생태관광·농촌관광 분야에서의 사회적 기업 연계방안 연구보고서

부록 2. 성공적인 생태관광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1. 들어가는 말

생태관광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21과 생물다양성 협약을 채택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방법 혹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경영의 한 예로 제시되었다.²²⁾ 하지만 관광이 기존의 경제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 이후 1999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의제를 특별히 다루면서 2000년을 경계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의제는 탄력을 받아서 추진되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태관광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예가 많았다.

2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생태관광은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경험,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로 전환을 맞아야 하는 과정에 놓여있다.²³⁾ 본 장에서는 생태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의 특성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향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생태관광이 지역의 경제성장 프로젝트가 아닌 공동체의 삶과 지역의 비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아야하기 때문에 생태관광의 설계와 운영, 피드백 과정에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축적한 지식과 더불어 주민간의 관계망과 협력의지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인 생태관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 뉴질랜드의 카이쿠라의 예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 여하, 생태관광의 규모와 외부자본의 유입, 정치적 결정의 권한 등이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먼저 제시하였다. 뒤 이은 몽고 비안 울기의 해외설문 사례와 국내 사례를 통해 공동체의 특성과 사회적 자본 수준에 따른 생태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어촌이나 섬을 중심으로 펼

22) 생태관광의 개념은 1965년 Hetzer가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이라는 말을 쓰면서 대중적 관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Funnel, 2008),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것은 1983년 Ceballos - Lascurain 이후이다. 그는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기 위해 덜 파괴된 보전지역으로 환경적으로 책임있고 의식 있는 여행을 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생태관광(ecotourism)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행자들이 자연상태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쳐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지역공동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생태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태관광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23) 정부주도의 생태관광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민중심으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발굴에서 소규모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의 전환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쳐진 생태관광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과 함께 소개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정리하면서 대부도의 주민참여 방향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제언을 담았다. 저자가 설문이나 면접을 통해 주민들 개개인의 관계망과 신뢰, 협동 의사를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에 대부도 주민참여에 의한 생태관광의 성공적 과정을 세세히 다루지는 못하였음을 연구의 한계로 먼저 명시하고자 한다.

2. 해외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제기

2.1.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²⁴⁾

코스타리카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생태관광 코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가장 큰 수입이 관광산업이다. 토르트구에로와 같은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사립으로 관리되는 보호구역인 몬테베르데, 라 쉘바, 라바 아비스, 마렌코 등은 방문객들에게 인상깊게 남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²⁵⁾ 코스타리카가 생태관광으로 복미와 유럽의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여럿 있지만, 그 중 <생태관광과 지속가능 발전: 누가 파라다이스를 소유하고 있는가? (Eco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o Owns Paradise)>의 저자인 저널리스트 마싸 허니의 7가지 건강한 생태관광의 주요요인에서 말했던 생태관광의 주요요소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관광프로그램으로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²⁶⁾

이 책에 따르면 첫째 코스타리카는 전체 관광산업 중에서 국-사립 공원을 방문하는 생태체험 테마관광이 대부분의 관광자원이다. 둘째 호텔 등 숙박시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에서 나오는 짚으로 만든 소규모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생태관광을 통해 방문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 함양에 적극 애를 쓰고 있다. 넷째 관광산업을 통한 재정적 수익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공예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나비정원, 유기농 생산물 등 야생성을 해치지 않는 지역의 생산활동을 직접 보여주며 여행을 담당하는 가이드나 여행

24) Adam Weinberg, Story Bellows, and Dara Ekster (2002), "Sustaining Ecotourism: Insights and Implications from Two Successful Case Studies",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An International Journal*, 15(4): 371-380.

25) 코스타리카의 약 0.5% (250km²)에 달하는 면적이 사유지로서 보존구역이다.

26)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에 관한 정리는 저자가 2004년 환경재단의 그린리포트 7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발췌하였음.

사도 지역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섯째는 아무리 관광산업이 중요한 수입원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배려하여 지역민들의 명절과 휴일에는 관광을 하지 않고 전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여섯째 이러한 관광산업이 외부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활동을 도모하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이러한 생태관광산업을 통해 1990년대 중반이후 산림벌채가 많이 사라졌으며 숲의 파괴가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통해 환경적인 면에서 건강성을 회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르데는 국립이 아닌 사유지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보호구역중 하나이다. 이곳은 코스타리카 삼림의 상당한 면적(7km²)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보조가 전혀 없는 곳이다. 이곳은 관광산업의 붐을 타고 각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되기도 하였지만 (예, 나비정원, 난정원, 생태적 농업, 우림지대 카노피 관광, 스카이 워크와 트레킹, 지역의 예술협동조합 프로그램과 커피회사와 치즈회사 등) 원래부터 형성되어 있던 보호지역은 ‘몬테베르데 클라우드 우림 보존지역’과 ‘어린이 불멸의 열대우림지역’이다. 몬테베르데 삼림보호구역에는 세 개의 마을이 있는데, 산타 엘레나, 체로 플라노, 몬테베르데이다.

20세기 중반까지 몬테베르데의 주민들은 농사로 근근히 먹고사는 사람들이었다. 1949년 미국 웨이커 교도들이 2차 세계대전 군대징집을 피해 코스타리카로 들어오면서 낙농업과 치즈공장이 가동되었고, 전기 생산시설을 갖추고 전화망도 설치되었다. 이민자(웨이커 교도)들이 3500에이커 중 1000에이커를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역(watershed)으로 배정하고는 이곳을 영혼불멸의 숲이라 불렀다. 치즈 공장에는 지역의 우유생산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지역 주민들에게 수입을 골고루 나눠주는 재분배 역할을 하여서 부의 편중을 막아주었고, 기존의 원주민들과 웨이커 교도들 사이의 관계 형성에도 기여하였다.²⁷⁾

1960년대 미국 생물학자들이 ‘불멸의 열대우림’을 방문하면서 이 주변이 삼림벌채로 위협받는 것을 보고 이 일대의 땅을 사들였다. 그리고 이곳이 몬테베르데 클라우드 우림 보존지역이 되었다. 1970년대 지역주민들은 이곳에서 생태관광 가이드가 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977년 호텔 몬타냐가 생기면서 생태관광의 초기형태의 숙박시설이 문을 열었다.

27) 미국 웨이커 교도들이 자연-대지와 맺는 관계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지역의 자연보존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보고도 있음 (Vivanco, Luis R. 2006. Green Encounters: Shaping and Contesting Environmentalism in Rural Costa Rica. New York, Berghahn Books)

1986년에는 이 지역 공동체가 몬테베르데 보존연대를 조직하여 보존구역 바깥지역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 연대가 형성된 직후 한 멤버가 스웨덴을 방문하여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강연을 들었던 어린이들이 이 지역의 보존노력에 동참하고자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순식간에 이 소문은 여러 나라로 퍼져 세계적인 기금을 창출하게 되었다. 결국 40여 개국에서 3-4년간 모은 돈으로 몬테베르데 보존구역 동편 7-8만 에이커의 땅을 사서 ‘아이들의 불멸의 열대우림’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생태관광이 붐을 이루면서 1989년부터 갑작스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지역에 평생을 거주한 한 주민의 말을 빌면, 치즈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주민들의 활동이 더 이상은 소와 우유가 아닌 호텔과 승마와 같은 다른 형태의 활동들로 가득찬 ‘2% 부족한 생태관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90년대가 되면서 몬테베르데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모으게 되었는데, 앞서 초반에 언급했던 생태적 농장, 나비정원, 난정원, 스카이 워크와 트랙 등이 그런 프로그램들이다. 생태적 농장의 경우, 커피와 바나나 채소를 경작하던 농지를 1993년 호르게 로드리거 가족이 농장을 사면서 일부지역을 개방하여 새를 탐조할 수 있게 하였고, 커피와 바나나 경작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트레일을 만들어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몬테베르데 클라우드 우림보존지역의 경우 70년대 초반에 100명의 방문객이 왔었는데, 90년대 말에는 6만 명의 관광객들이 보존지역을 찾았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인데, 그나마 현재는 5만 명으로 관광객을 제한하고 있어서 현재의 자연환경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불멸의 열대우림과 같이 몬테베르데 보존연대 공동체의 경우는 관광보다는 생태계 보존에 더 중심을 두어 자연체험과 생물학자들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생태관광의 한 요소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확실히 이루었다. 치즈공장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지금은 세계 곳곳으로 수출을 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이 호텔이나 다른 관광산업계로 이동한 틈에 외지의 일꾼들이 치즈공장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는 성장일로에 섰지만,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공동체” 중심의 관계망은 사라지게 되었다. 개발과 성장은 도시화로 연결되었고, 작은 마을과 공동체의 느낌은 사라졌고, 전통과 가치의 공유도 이제는 어려워졌다. 인구증가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교통, 소음, 상하수도 시스템 문제, 지가상승, 마약 등 드러나는 문제와 이러한 문화적 변화에 대한 우려가 겹쳐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 원주민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느라 바빠서 서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개발 제한없이 가능한 공간만 있으면 집과 호

텔을 지어대고 있다. 성장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지켜볼 시간도 없고...가장 극심한 것은 제한없는 성장이다. 마치 이곳이 각종 오염과 인구, 교통 문제가 있는 산호세 같이 느껴진다.” 지역의 생협 대표도 유사한 말을 한 바 있다. 그는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면서 공동체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성장에만 치우쳐있다.”

생태관광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 기여는 높아졌지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공동체가 집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지인들의 유입과 통제 불가능한 성장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체계는 외부 투자의 문제이다. 상당한 비중의 돈이 미국 투자자들에게서 흘러와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강조점 자체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몇몇 프로그램이 외부자본에 의한 “그린 마케팅” 상품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에게 자치권을 보장해 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관광객의 숫자 등을 조정하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일은 무한한 자본주의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일로서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해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압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치와 통제를 통해 생태관광을 건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막고 있다고 평가된다.

2.2. 뉴질랜드 카이쿠라²⁸⁾

카이쿠라는 뉴질랜드 남섬의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크라이스 처치에서부터 약 2시간 거리에 있으며 3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양 중심의 생태관광지역이다. 카이쿠라 바깥의 태평양은 영양이 풍부한 해양지역으로 향유고래(Sperm Whale)와 남방낫돌고래 (혹은 더스키 돌고래), 바다표범 등의 해양생물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카이쿠라 사람들은 생태관광을 시작하였다. 생태관광을 시작한 배경은, 한 공무원이 지역 원주민들의 빈곤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를 하던 차에 지역주민들이 말한 자연자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제안하였던 데에 있다. 미국의 해양생물학자들의 도움으로 지역 공동체는 생태관광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관광회사는 고래관광 상품을 만들었고, 다른 회사들도 생겨났다. 이 관광상품으로 인해 지역 사업가들은 숙박시설을 만들고, 음식점과 관광객

28) Adam Weinberg, Story Bellows and Dara Ekster, 2002. Sustaining Ecotourism: Insights and Implications from Two Successful Case Studies, *Society & Natural Resources: An International Journal*, 15(4):371-380 중 뉴질랜드의 사례를 요약함.

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을 열게 되었다. 이 후 생태관광 회사들이 더 생겨나면서 상어 다이빙, 탐조, 동굴 탐사 등의 상품이 생겨났다.

이 지역 정치인의 말을 빌면, “생태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실업률은 3%대로 떨어졌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 말 뉴질랜드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을 때, 우리 동네는 약 200명이 철도공사에서 일을 하고, 30-40명은 통신공사에서 일하는 등 마치 동네가 온통 정부청사 같은 적이 있었다. 그 때에도 낚시나 농업이 있었지만 다른 일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앞서 예를 들었던 코스타리카와 달리, 뉴질랜드 카이쿠라 지역의 생태관광은 주로 뉴질랜드 중앙정부의 환경보존과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이유는 1978년에 제정된 『해양포유류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포유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카이쿠라 지역주민들은 생태자체가 관광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이 커서 관광업계는 환경보호에 신중을 기하였다. 예를 들면 고래관광 업체는 관광 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들의 환경교육에 지원하였고, 지역의 환경보호 활동이나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결국 지역의 공동체가 초기에 생태관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집단은 아니었지만, 관광산업계가 그 지역의 자연자원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2000년을 전후하여 연간 9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이곳 역시 몸살을 앓게 되었고, 카이쿠라 역시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와 같이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첫째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문제인데, 지역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동체 내부의 결속성이나 빈번한 교류가 없어지면서 예전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쪽 끝으로 가면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에는 지역 주민들의 차를 세울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새로운 보트와 새 차들이 즐비하고 우리는 도로 관리를 위해 돈을 내지만 혜택은 못 받는다”고 불평을 토로하는 주민도 있었다. 또 다른 지역주민은 “관광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다 경제적 잣대이다. 하지만 그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사회적 파괴로 올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현재의 생태관광을 비꼬기도 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생태적 파괴이다. 기존의 하수도 시스템을 비롯하여 급수, 교통,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 늘어나는 관광객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한 지역 주민은 “고래관광을 말하고, 돌고래나 물개와 같이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하지만 상하수도에 관한 이야기나 폐기물, 수자원 보전에 관한 이야기가 되면 모두들 관심 밖의 일로 취급하려 한다. 우리

는 그런 문제점들을 유럽인들에게 제기하고자 한다.”며 생태관광의 매력적인 면만을 가지고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회사를 꼬집어 비판하였다. 방문객들도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관광산업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한계도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카이쿠라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대학, 연구자들, NGO들과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정치적 통제권을 가진 집단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생태관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그 속에서 경쟁에 대한 압박이 있고, 수입을 올리고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수익을 나눠서 지역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세금이나 물가를 올려서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다. 또한 지역의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인구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역량이나 재정적 여유가 있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는 다수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카이쿠라 의회는 소수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은 민원을 무시하거나 큰 문제를 다룰 때에도 경험부족으로 인해 힘을 쓸 수 없었다. 단편적인 예로, 『자원관리법』에 따라 누군가 자원을 이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내면 허가를 주지 않기로 일단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후에 신청자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사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이다. 몇몇 작은 사업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자원관리법의 대응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개발의 경우, 결국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하여 막아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3. 소결론

해외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에 의한 생태관광의 개발보다는 외부 전문가나 외부 사업가들에 의한 제안으로 시작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초반 도입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전통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의식 함양과 교육을 중심으로 출발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과 선택이 주어지면서 공동체는 파괴되거나 연결망이 느슨해지게 된다. 또한 외지인들의 유입이 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초기에 지역주민이 받았던 혜택은 외부자본가들이나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예가 빈번해진다.²⁹⁾ 특히 더 큰 문제는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서 이들

29) 이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Kuo (Wwing(2007)에서 재인용)가 몬테베르데의 산타엘레나 몬테베르데 여성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 수입의 증가, 삶의 질 향상, 임금 성차별 폭 저감, 벌채 감소 등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은 지역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능력까지 갖게 된다는 점이다. 느슨해진 사회 연결망 혹은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은 정치적 역량을 약화시키고 외부 투자자들의 압력을 방어할 힘이 없어진다. 따라서 슈나이버그와 구드(1994)에 주장했던 것처럼 결국은 생태관광이라는 쳃바퀴 (ecotourism treadmill)에 갇혀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태관광은 분명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친환경 경제성장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에 의한 의사결정체계 파괴와 정치적 압력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실제로 몬테베르데의 다양한 집단들은 2020년까지 지역의 생태관광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 5-6년간 공동의 노력을 하였지만 사업자들이 단기적 이익만을 생각하지 장기적 비전을 위해 현재의 이득을 놓으려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 당시 지역 공동체는 장기적 문제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첫째는 야생상태를 체험하기 위해 포장도로를 만들지 않았던 곳에 너무 많은 차들이 통행함으로써 먼지가 심하고 특히 건기에는 그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인정되며,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에게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관광객의 수를 제한하고자 하였지만 동의되지 못했다. 둘째, 그렇다고 포장도로를 건설하게 된다면 생태관광이 아니라 일반 관광과 다를 점이 없게 될 터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풀숲을 망가뜨리고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 상태를 보며 생태관광답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생태 관광객들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로키산맥의 자연을 즐기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관광객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과도한 개발로 인해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생태관광의 흥미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사결정 체계가 주민중심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사회적 자본과 생태관광

2절에서 살펴본 예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생태관광의 가장 큰 요소인 환경자본(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기 위한 방안,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특성에 따른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몽고의 작은 마을 공동체의 특성과 생태관광 개발여지를 조사한 글을 보고 우리나라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도움이 될 만한 특성을 모아 요약하였다. 또한 국내조사로서 생태관광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집단의 특성을 보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였다.

3.1. 몽고의 베이얀-울기(Bayan-Ulgii)지방의 소국(Sogoog)마을 공동체³⁰⁾

1990년 이전 몽고 관광산업은 국영 출신국립관광청에 의해 단독 운영되었으나, 1991년 관광청이 민영화를 한 이후, 관광산업이 해마다 15-17%의 성장을 하여 1989년 236,540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의 수가 2007년에는 45만명에 육박하였다.³¹⁾ 도로교통관광부에 따르면 2000-2005년에는 해외투자개발금융(FDI)중 약 1%, 전체 GDP의 10%가 관광분야에 투자되었다. 2000년대 중반 관광의 붐을 타고 한국의 경우에만도 80여개의 기업이 진출하는 등 과거 러시아와 동유럽 중심의 몽고관광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장을 하였다. 관광객들이 주로 몽고에서 선호하는 관광 상품은 자연을 체험하는 상품이 44%로 가장 많았고, 문화, 역사를 체험하는 상품이 각각 23%, 12% 등으로 많다.³²⁾ 몽고는 고비사막과 같은 특이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유목민의 특성을 담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여전히 많은 나라이다.

베이얀-울기³³⁾는 몽고의 가장 서쪽에 있는 작고 외진 지방이다. 이 지역은 몽고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로 약 3시간 반, 도로를 이용하자면 3일에 걸쳐 승합트럭을 타고 가야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온라인상에 소개되어 있는 몽고 여행안내에서도 여행객들이 보름이상의 여행일정을 잡아야 방문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권할 정도로 외진 곳이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낙타 타기나 트레킹, 독수리 사냥을 하는 민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있다. 2008년의 예를 보면 이 지방을 방문한 관광객은 대략 1400여명으로 2007년보다 40%정도가 증가한 수였다. 관광객의 절반은 미국의 관광객이고, 나머지 절반은 일본인 관광객과 유럽, 러시아로부터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울란바트르의 관광객으로는 한국인과 중국인 비율이 높은 반면 서쪽의 생태관광은 야생성(Wilderness)을 즐기는 서구 사람들이 많았다. 중국과의 국경을 일부 개방하여 도로를 놓아서 1만 여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소국(Sogoog)은 베이얀-울기 지방의 작은 마을 공동체이다. 이 마을은 소국 강의 계곡을 따라 자리잡고 있으며 약 12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 지역은 공동체의 결집성이 높고 공동체에 의한 자치가 이루어지던 곳이다.³⁴⁾ 이들은 2006년 유치원을 지을 계

30) 본 사례는 지속가능한 관광 학술지에 실린 다음의 글과 온라인상의 통계와 지역정보를 함께 정리하여 담았다. Sebastien Nault and Paul Stapleton, 2011. The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ss in ecotourism development: a case study of the community of Sogoog, Bayan-Ulgii, Mongoli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9(6): 695-712

31) Ibid 19(6):698

32) Ministry of Road, Transport and Tourism, Tourism Sector Statistics. www.investmongolia.com/forum/projects/tusul81.pdf

33) Bayan-Ulgii 혹은 Bayan olgy로 표기되기도 한다.

34) 공동체의 결집성과 자치여부는 생태관광의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음의 논문이 지적하였다. Scheyvens and Momsen, 2008, Tourism in small island states: From vulnerability to strengths.

획을 가지고 카자흐 가족개발NGO를 통해 공동체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있었고, 이것이 주민참여를 통한 생태관광 의사결정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다. 카자흐계 몽고인들은 몽고의 다른 지역과는 문화와 언어가 달라 그 여행상품의 가치도 높게 평가 받았다. 카자흐 계열의 민족이 베이안-울기 지방에서 약 88% 이상의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기에 지방 문화의 대표성을 가진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독창성과 인구특성 덕분에 이 지역은 야생성이 훼손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모험여행에 적합지로 손꼽힌다. 게다가 태반보그 국립공원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장점이 있어 생태여행지로 개발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자연자본의 우수성과 지역 공동체의 단결성을 고려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을까?

이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주민들의 환경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유목민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목축에 의한 초원파괴가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고(45%), 기후와 물부족이 각각 22%와 20%를 차지하여 다음으로 많았다. 따라서 자연을 잘 보존하기 위한 교육과 노력이 필요한 상태로 보여졌고, 생태관광이 시작된다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들의 환경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아서 물부족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이곳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공유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이들이 생태관광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자료를 보면 이들 중 다수의 사람들이 생태관광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생태관광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지식수준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민참여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의 일부에 의해 주도되거나 오랜 시간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이들이 생태관광을 시행할 경우 가능한 여행상품으로 꼽은 것은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는 상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연과 풍경이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지라는 의미는 그만큼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아서 고유한 삶의 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품화 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가 우려하듯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권리를 주민이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중심도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의 생태관광은 그러한 특성을 잘 살려, 도시와 다른 그들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 네 번째로 이들에게 참여의사를 물었을 때 83%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11%는 소극적 참여의사를 보였다.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유

목민이기 때문에 참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소국 지역에서 생태관광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카자흐 가족개발 NGO의 과거 역할은 주로 건강과 교육에 중점이 있었지만, 생태관광을 도입하게 될 경우 주민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질 것이다. 많은 응답자(40%)가 이 NGO가 생태관광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답 하였다. 유목가정(체험)과 공동체 전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20%와 15%로 이어졌다.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된 공동체의 경우 관광산업 개발에 통제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³⁵⁾ 또한 지역 공동체가 생태관광에 관해 지식을 충분히 갖고 접근할 경우, 관광산업의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지역 공동체의 이익도 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국 공동체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결집성이 높은 공동체로서 주민참여에 의한 생태관광이 가능하지만 유목민의 특성상 이동하여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여행 비수기- 준비해야 하는 생활양식 상, 이들이 생태관광을 핵심적으로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온 NGO나 컨설팅 업체가 주민들의 동의하에 생태관광을 주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그룹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특히 카자흐 가족개발 NGO와 같이 유치원이나 보건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 단체가 아니라면 이를 이끌어 내기가 무척 어렵다. 끝으로 이들이 생태관광을 하게 된다면 지역 공동체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물어보았다. 공동체 전체에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이고, 고용률과 개인의 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성도 나아질 기대했다.

결론적으로 문화와 자연적 특성이 우수한 경우라도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면 지역 공동체의 참여하에 의사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지식의 차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힘도 비대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생태관광에 관해 잘 모르고, 경험이 미숙한 공동체의 경우 자신들의 문화/자연 유산을 어떻게 상품화 할 것이고, 지역 공동체를 교육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외부와의 단절역사가 길고,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의 경우 이미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는 일에 일조해 온 NGO와의 협력을 통해 컨설팅과 외부 자문을 통해 지역의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35) Mitchell, R.E. and Eagles, F.J. 2001. An integrative approach to tourism: Lessons from the Andes of Peru.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9(1): 4-28.

4. 우리나라의 생태관광과 사회적 자본

4.1.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으로만 정의되어 있고, 국제적인 기준이나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세 가지 특성 - 덜 손상된 자연환경 자원,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관광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경제성 -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자연관광으로 여겨지거나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농수산물 판매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생태관광 사업을 두고 지역주민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2000년대 초반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2)의 평가에 따르면 철원평야와 순천만의 생태관광은 우수사례로 손꼽히는데, 2000년대 중반 철원평야의 철새탐조 관광으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환경단체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발생한 바 있고, 2013년 순천만 정월박람회를 전후하여 생태보다는 관광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 지자체간에 갈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생태관광의 특성에 제4의 요소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지역주민 참여가 그 요소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것이 국고지원을 받게 되면 그 때에서야 사업대상지의 주민들과 협의를 하거나 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졸속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이 조성된 이후, 운영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였다.

생태관광 사업은 지역이 국가의 보조를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환경의식 고취, 마을의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운영기법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한동안 대단위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의 여파로 갯벌 생물탐사교육과 갯벌체험 등의 관광이 붐을 이루었는데, 실제로는 갯벌 생물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생태체험운영자와 지역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철원평야의 경우 DMZ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철새 도래지가 되었고, 환경부의 95년 생태계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확대지정, 환경부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곳 주민들의 생활양식에 제한을 가해왔다. 하지만 군사보호구역으로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은 여러 부처의 중복 보호지역 지정에 극렬히 반대하였고, 이를 보는 환경단체와 외지사람들은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대화가 차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전지역 지정의 갈등은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토에서 발생하고 있다.³⁶⁾ 따라서 생태관광이 주민들의 생존권 및 경제적 수입원으로, 또한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중재적 안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김성진, 2002)

중재안으로서의 생태관광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연자원을 잘 보존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 수입원이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가 고용한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다양한 이익관계를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순천만 역시 생태계보전지역, 란사습지(보성별교갯벌)지정과 생물권 보전지역 등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은 바 있다.³⁷⁾ 순천시는 순천만의 자연가치를 -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인정받은 - 바탕으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주민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순천만의 청정이미지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대응을 펼쳐왔다. 순천만의 경우 지역 환경단체가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생태자원의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순천시는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습지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순천만의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⁸⁾

해외 사례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생태관광 사업에 외부투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36)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개발을 억제하는 보호지역 지정은 지역공동체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태국의 예 (Bennett and Dearden, 2013, Why local people do not support conservation: Community perceptions of marine protected area livelihood impacts,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Thailand, Marine Policy (article in process, online version))

37) 빈번한 하천범람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어온 순천만 주민들은 각종 보전조치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90년대 말에는 갈대밭 방화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8) 습지보호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가 보전보다는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여 갈대밭 데크나 생태관 시설 등에만 집중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교차로 뉴스, 2012. 11. 19 - 온라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문제를 야기한다. 순천만의 경우에도 2006년까지 연간 10만여명에 머무르던 관광객의 숫자가 람사습지로 등록된 이후 2009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2013년 정원박람회기간 동안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총 43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해의 정원박람회에는 약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시민단체들은 박람회의 개최목적이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제고임에도 불구하고 생태와 환경측면에서 수질문제와 폐기물, 에너지 과다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방문객 분산을 통한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목적과 무분별한 도심팽창 억제효과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³⁹⁾

4.2. 소규모 생태관광

거대한 생태관광 사업이 아닌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생태관광은 이런 면에서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통영 연대도의 경우 탄소제로 및 생태관광섬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마을 전체가 생태관광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영시 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 연대도는 2007년부터 통영시와 ‘푸른통영21’이 지역의 어촌계와 마을주민과 함께 생태관광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보조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체계를 수립하였고, 아직까지 재정적인 지원은 있지만 에코 아일랜드 조성사업으로 생태관광의 참고서로 알려져 여러 지역에서 생태관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 방문객센터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마을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으며 태양열 활용과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마을사람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이 공급되고 있음을 방문객에게 알려주는 정보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연대도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지갯길은 여느 돌레길과 비슷하지만 역사와 생태를 고려하여 지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로 무척 소박하면서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이 소박한 길을 지나면서도 섬 주변의 경관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훤히 바라볼 수 있어서 자연경관을 이용한 생태관광 조건을 갖추고 있다. 폐교된 조양분교를 마을 주민들이 2억 원에 사서 현재 ‘푸른통영21’에서 생태관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연대에코아일랜드 체험센터> 는 캠핑장과 워크샵 공간, 식당과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특징을 잘 살린 연대도 문패는 방문객들에게 인상적으로 남는다. 문패를 통해 주민들의 삶과 참여 두 가지를 모두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공간문화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물부족이나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역

39) 경향신문 2013.10.23.일자 온라인판 전국(호남)뉴스.

주민들의 참여 창구를 만들어 두고 있다.⁴⁰⁾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혹은 주민참여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⁴¹⁾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주어진 자연자본을 운영하는 주체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인적자본에 관한 문제는 섬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문제로서 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변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협력과 신뢰(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태관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일반적인 형태와 연안이나 도서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고찰하였다.

4.3. 사회적 관계망과 생태관광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망 혹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로 곧잘 받아들여진다. 인적 관계망으로 인한 자본적 가치가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 공동체의식을 생성하는 바탕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본 글에서는 공동체의 집단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규범의 공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적합할 듯하다. 이는 퍼트남(1995)에 의한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 기반한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신뢰,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공공재이며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면서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 관계에 의해 신뢰가 형성된 집단일수록 시장 시스템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고, 거래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도 갖추어야 할 공공재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대개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동향 출신이나 학연과 같은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대신 내부 결속력이 높다.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영향인 배타적 특성도 연고집단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 사회 전반적인 신뢰와 같은 보편적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집단 내부의 네트워킹이 빈번하고 연고형태의 집단일수록 외부 집단과의 교류나 협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섬의 경우 생태계의 민감성, 인적자원과 경제구조의 취약성, 사회문화적

40) 푸른통영21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간사를 두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도록 하였다.

41) 심진범, 2011 지역사회 기반 섬 관광정책 추진방안: 세어도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2012, 인천 연안 도서 지역사회 기반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승봉도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독특성 등 육지와 다른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적 협소성이 있어서 자원을 활용하는데 제한적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참여형 생태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통제권을 갖는 구조가 필요하다. 의사결정에서 실행과정, 관리운영 등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적자원과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역량강화가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컨설팅, 주민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중심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자망을 통해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주민중심의 어촌계와 지역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교류는 각각의 역할, 즉 지역사회 내부의 자원개발, 주민교육, 사업기획이나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어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된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에 지역 주민의 참여는 더욱 중요한 조건이다. 섬 지역의 전통적인 가치관, 문화, 역사, 구성원의 특징, 삶의 양식, 경제행위 등을 속속들이 알아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지인으로 인적, 재정적 역량을 동원할 경우 앞서 제시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와 제도적 개선이 어려워 질 수 있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고 신규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면 어촌계이다. 육지의 연안역에 있는 어촌마을은 관광개발의 수입원으로 숙박이나 요식업, 유람선 운영 등과 같은 형태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초래한 외지인의 시설 난립이나 폐수증가에 따른 어장오염으로 이어져 주민들과 개발업자와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⁴²⁾ 특히 관광산업의 추진이후 갑작스런 지가의 상승으로 인구구성원의 변화가 발생하고 영리목적의 대형 숙박시설들이 지어지면서 기존의 어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민박시설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90년대 이후 요즘에는 펜션형태의 민박전용 현대식 건물들이 세워지는 양상이다. 이는 생태관광의 핵심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단순 레저와 관광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외지인에 의해 운영되는 대규모 숙박업이나 식당영업에 대처하여 어촌계를 활용한 예가 있다. 제주도 오조리어촌계는 어촌종합센터와 북제주군의 고산어촌계는 콘도식 민박시설을 짓기도 했고, 울산시의 정자어촌계는 활어직판장을 설치하였다. 1995년 이후에는

42) 강릉의 정동진이나 울산의 정자리 주변 등 동해안에서 단기간에 관광산업이 개발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

『낚시어선업법』이 제정되어 등록어선을 보유한 어민이 지자체 신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선업이 어촌계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충남의 선진, 난지도 어촌계는 유람선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어촌계가 유람선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제도 지역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주민들이 출자하여 지분을 갖고 운영되는 형태이다.

5. 맺는 말

지역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주민집단과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 절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자본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규범(제도)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신뢰와 협동을 통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고, 협력적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집단의 유형은 생태관광을 통해 혜택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개발의 당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광산업 관련기관이나 전문가, 주민조직, 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신안군 증도의 슬로시티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⁴³⁾은 그 예를 잘 보여준다. 면장이 행정책임자로서 이해관계자간 협력구조에서 가장 중앙성이 높았고, 중간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중앙성은 주민대표인 슬로시티 추진위원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민대표로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온 슬로시티 추진위원장의 역할은 주민과 정부를 잇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되었다. 하지만 면장과 슬로시티 추진위원장이 가진 실질적인 권한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결정이나 예산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또한 공동체 기반 생태관광의 추진기관이 정부와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이 부족했던 점도 앞으로 타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통영의 연대도의 경우 푸른통영 21을 통해 그러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나 지원센터는 주민의 핵심 인물(지역리더)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신뢰가 형성되고 지속적인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접근성이 낮은 섬이나 두메산골과 같은 지역에서 생태관광

43) 이지선, 강신범(2010), 커뮤니티관광개발에서의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2(2): 75-97.

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체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집단 내에 신뢰를 얻고자 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소요된다. 특히 사업을 목적으로 접근하는데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곳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관광상품 개발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기존에 시민사회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관광상품 개발에 지역주민 공동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 수행하는 과정, 환류과정 등 전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자원자립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고, 자연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공유자산으로 인식하여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에서 사회 관계망을 적극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